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A STUDY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HURCH VISION THROUGH THE VISION ROOM: THE CASE OF INCHEON SHINKWANG CHURCH IN KOREA

비전의 방을 통한 교회비전 확립방안 연구:

인천 신광교회를 중심으로

A Thesis 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ung Ho Park (박 성 호)

Lynchburg, Virginia

May 2020

© Copyright 2020 by Sung Ho Park (박성호)
All rights reserved.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SIS PROJECT APPROVAL SHEET

_____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_____

READER
Dr. Yun Seop Kim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HURCH VISION THROUGH THE VISION ROOM: THE CASE OF INCHEON SHINKWANG CHURCH IN KOREA

Sung Ho Park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0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ystematic process in establishing church's vision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having a clear vision in church growth and by communicating with the church members in the midst of a situation where stable ministry transition is required due to the replacement of the senior pastor now that 50 years has passed since the church was planted.

For many years, the Korean church has experienced steady growth and revival. However, from the 21st century, the growth is slowing down and is stagnant. One of the reasons is the conflict between the former senior pastor and the following senior pastor which is rising to the surface as a problem among Korean churches. To resolve this conflict along with the chaos of transitions in churches and assemble church members' hearts as one, there is a need for process of developmental vision establishment.

This research focused on providing a systematic process of establishing visions that are effectively applicable to Korean churches through studying the importance of visions from the Bible, investigating on the books and case from Ansan Dongsan church which offers stable vision in transition of generations, and analyzing the refined process of vision established

through researcher’s one year ministry field at Incheon Shinkwang church.

The researcher aims to introduce the legitimacy of establishing visions with the church members in Korean churches and to deliver the specific application method to the ministers who dream for church revival through the process of vision establishment.

Abstract length: 249 words

ABSTRACT
초록

A STUDY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HURCH VISION THROUGH THE VISION ROOM: THE CASE OF INCHEON SHINKWANG CHURCH IN KOREA
비전의 방을 통한 교회비전 확립방안 연구: 인천 신광교회를 중심으로

Sung Ho Park (박성호)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0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본 논문은 설립 50년 된 전통적인 교회가 후임 담임목회자의 교체 과정으로 안정적인 사역전환과 새로운 도약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성장을 위한 명확한 교회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교인들과 소통하며 비전을 세워가기 위한 체계적인 비전확립과정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오랜 기간 한국교회는 꾸준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 있다. 최근 한국교회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원로목사와 후임목사 간의 갈등은 교회 침체의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에 교회변화의 혼란을 해소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발전적인 비전수립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먼저 성경적으로 비전의 중요성을 연구하고, 한국교회 내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안산동산교회의 도서들과 사례들을 조사하고, 인천 신광교회에서 한 해 동안 사역하면서 적용한 비전 구체화 작업을 정리 분석하여 한국교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 비전확립과정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에 교인들과 함께하는 비전수립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하며, 비전을 세워가는 과정을 통하여 교회부흥을 꿈꾸는 목회자들에게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전달하고자 한다.

초록 길이: 144 words

ACKNOWLEDGEMENTS
감사의 글

무엇보다 먼저 본 논문이 나오기까지 흔들림 없이 올 수 있도록 붙잡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쁜 사역의 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부족한 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한 논문을 연구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는 기도와 배려로 함께 해 주신 모든 신광의 가족들과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이 논문은 시작될 수 있었고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논문을 위해 기쁨으로 함께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신 신광교회 모든 교역자 여러분들께 정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이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인내해 주시고, 가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이유정, 김윤섭 두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행정적인 면을 비롯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최영식, 김낙중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아들을 위해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대구서현교회 추금란 권사님, 또한 사위를 위해 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대구대동교회 차성도 장로님, 박영미 권사님, 양가 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든든한 목회의 후원자인 누나 박원경 집사와 동생 박창호 집사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 차은희, 두 아들 연우와 연준이는 학업을 진행하는 동안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학업의 분량 속에서도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아들들의 응원은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감사한 마음을 꼭 간직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비전에 동참하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양일념으로 달려가겠습니다.

CONTENTS
목차

ABSTRACT iv
초록

ACKNOWLEDGEMENTS vii
감사의 글

TABLES xiv
표

ABBREVIATIONS xvi
약어

SUMMARY xvii
요약

CHAPTER 1: Introduction 1
제 1 장: 서론

1. Statement of the Problem and Purpose of Study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Scope and Limitation of Study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3. Biblical and Theological Basis 5
성경 및 신학적 근거

4. Methodology 7
연구 방법

5. Review of Literature and Bible verses 8
문헌 및 성경구절 검토

CHAPTER 2: Understanding Vision and Church 17
제 2 장: 비전과 교회에 대한 이해

1. Understanding Vision 17
비전에 대한 이해

1) The Definition of Vision 17
비전에 대한 정의

2) Vision in the Bible 21
성경에 나타난 비전

3) Vision in Church History 29
교회사에 나타난 비전

2. Understanding Church 36
교회에 대한 이해

1) The Definition of Church 36
교회의 정의

2) Vision Community for the Kingdom of God 39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공동체

3) Union Community as the Body of Christ 41
그리스도의 몸인 연합공동체

3. Sub-conclu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on and Church 44
비전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소결론

CHAPTER 3: Case Study of Ansan Dongsan Church Led by Vision 47
제 3 장: 비전이 이끄는 안산동산교회 사례 연구

1. Cell Ministry Led by Vision 48
비전이 이끄는 셀사역

1) General Background and Understanding 48
일반적인 배경과 이해

2) Impact of Cell Ministry on Church 49
셀사역이 교회에 미친 영향

3) Cell Ministry and Program 51
셀사역 및 프로그램

4) Evaluation of Cell Ministry 55
셀사역 평가

2. Preaching Ministry Led by Vision 56
비전이 이끄는 말씀사역

1) General Background and Understanding 57
일반적인 배경과 이해

2) Impact of Preaching Ministry on Church....58
말씀사역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3) Preaching Ministry and Program....60
말씀사역 및 프로그램

4) Evaluation of Preaching Ministry....63
말씀사역 평가

3. Discipleship Training Course Led by Vision....64
비전이 이끄는 양육과정

1) General Background and Understanding....65
일반적인 배경과 이해

2) Impact of Training Course on Church....66
양육과정이 교회에 미친 영향

3) Training Course and Program....68
양육과정 및 프로그램

4) Evaluation of Training Course....72
양육과정 평가

4. Big Forest Movement Led by Vision....73
비전이 이끄는 큰숲운동

1) General Background and Understanding....74
일반적인 배경과 이해

2) Impact of Big-Forest Movement on Church....75
큰숲운동이 교회에 미친 영향

3) Big Forest Movement and Program....76
큰숲운동 및 프로그램

4) Evaluation of Big-Forest Movement....79
큰숲운동 평가

5. Sub-conclusion on the Case Studies....81
사례 연구에 대한 소결론

CHAPTER 4: Study on the Survey for Establishing the Church Vision....82
제 4 장: 교회비전 수립을 위한 설문 연구

1. Purpose and Procedures of the Survey....82
설문의 목적과 절차

1) Purpose of the Survey 82
설문의 목적

2) Participants.....82
참가자

3) Survey Methods 82
설문 절차와 방법

4) Survey Composition.....83
설문 구성

2. Survey Results 83
설문 결과

3. Results on the Frequency-Analysis.....97
빈도분석에 대한 결과

4. Results on the Cross-Analysis 98
교차분석에 대한 결과

1) Cross-Analysis between Gender and Church Awareness.....98
성별과 교회 인식도와의 교차 분석

2) Cross-Analysis between Church Office Bears and Church Awareness 99
교회직분과 교회 인식도와의 교차 분석

3) Cross-Analysis between Age and Vision Awareness 100
나이와 비전 인식도와의 교차 분석

4) Cross-Analysis between Church Office Bears and Vision Awareness.....102
교회직분과 비전 인식도와의 교차 분석

5. Sub-conclusion on the Survey Results.....103
설문 결과에 대한 소결론

CHAPTER 5: Plans for Establishing the Church Vision Centered on the Vision Room.....105
제 5 장: 비전의 방 중심의 교회비전 확립 방안

1. The Preparation Stage for Church Vision.....105
교회비전 준비단계

1) Pastoral Philosophy and Church Goal 106
목회철학 및 교회목적

2) Workshop for Members of Church Conference and Ministers.....107
당회원 및 교역자 워크숍

3) Organizing the Vision Committee 108
비전위원회 조직

4) Presenting the Establishment Plan for Vision through Preaching 111
설교를 통한 비전구상 제시

2. The Foundation Stage for Church Vision 112
교회비전 수립단계

1) Administration of the Vision Room 112
비전의 방 운영

2) Vision TFT of Ministers 118
교역자 비전 TFT

3) Vision Retreat for Whole Church Members 120
전교인 비전수련회

4) 2nd Workshop for Members of Church Conference and Ministers 122
2 차 당회원 및 교역자 워크숍

5) Systematization of Vision 122
비전 체계화

3. The Sharing Stage for Church Vision 123
교회비전 공유단계

1) Vision Briefing for the Main Officers in Church 124
중직자 비전 설명회

2) Declaration of the Vision 124
비전 선포식

3) Preaching Vision-Focused-Sermons 127
비전 집중설교

4) The Communication through Mass Media 128
매스미디어를 통한 나눔

5) An Executive Committee for the Vision 128
비전 실행위원회

4. Sub-Conclusion on the Vision Room Ministry 129
비전의 방 사역에 대한 소결론

5. A Developmental Proposal for Establishing Church Vision 131
교회 비전수립을 위한 발전적 제언

CHAPER 6: Conclusion 134
제 6 장: 결론

Appendix A 139
부록 A

Appendix B 141
부록 B

Appendix C 143
부록 C

Appendix D 146
부록 D

Bibliography 149
참고자료

IRB Approval 155
IRB 승인

TABLES
표

1. 인구사회학적 영역 83

2.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85

3. 교인들의 친밀도 86

4.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86

5. 새로운 50년을 위한 교회 변화의 필요성 87

6. 앞으로 교회의 성장 예측 87

7. 교인들의 교회비전 인식도 88

8. 교회 비전과 사역의 일관성 89

9. 교인들에 대한 비전공유 89

10. 교회 비전과 사역의 연관성 90

11.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필수사역 91

12. 비전의 방에 대한 만족도 91

13. 비전의 방 필요성 92

14. 비전의 방이 교인들에게 미친 영향력 92

15. 비전의 방이 교인들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 93

16. 비전의 방이 교회의 비전수립에 도움 93

17. 교인들의 지속적인 비전의 방 참여의사 94

18. 비전의 방 적절한 회수 95

19. 비전의 방 운영에 적절한 참여인원 95
20. 비전의 방 운영에 적절한 참여대상 96
21. 비전의 방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96
22. 비전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요소 97
23. 성별로 본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99
24. 직분별로 본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100
25. 연령으로 본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필수 사역 102
26. 직분별로 본 교회의 비전과 사역의 일관성 103
27. 비전 위원회를 통하여 제시한 연중 비전수립 로드맵 111
28. 비전의 방 진행 큐시트 117
29. 전교인 비전수련회 일정표 121
30. 비전 선포식 및 창립감사주일 예배 큐시트 126
31. 비전집중설교 목록 127

ABBREVIATIONS
약어

세뛰세	세대를 뛰어넘는 세미나
KJV	King James Version
MDIV	Master of Divinity (목회학석사)
PPT	PowerPoint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WOT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T F T	Task Force Team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The rapid growth of the Korean church which surprised the world has started to slow down. There can be many reasons for the stagnation but one cannot ignore the fact that the ministers who are in charge of churches and pastoring are at the center of this critical situation. Senior pastors need to be active in communicating with the church members in respecting the church's tradition, minimizing conflicts, and preparing the future to come.

This study will present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establishing visions through communicating with the church members by analyzing the 'Vision Room' which is a ministry being conducted at the church the researcher is serving, Shinkwang church, and its influence in vision establishment of the church. Additionally,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vision establishing system that promotes growth and maturity of the church which will be conduc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church members.

The researcher will analyze the survey of the church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Vision Room', books from Ansan Dongsan church which is a representative church of which vision leads its ministry, and research data that were studied and published through the 'Future Ministry Institute' of Ansan Dongsan church.

The researcher laid the theological basis on missiology, ecclesiology, and eschatology. This ground will show that the church should be missional in terms of fulfilling the Lord's command and should be a community with a dedication for the Lord's vision. Furthermore, the church should be a vision community that conducts the vision of the Kingdom of God with the

hope for the Lord's second coming. With these theological grounds, the researcher will present the necessity for establishing vision built on the Word of God and the vision system that Korean churches can apply.

CHAPTER 2

UNDERSTANDING VISION AND CHURCH

Chapter 2 will deal with the definition of vision, vision displayed in Christian history, and the definition and comprehension of the term ‘church.’ In Proverbs 29:18, it states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but he that keepeth the law, happy is he.”(KJV) Likewise, vision is something more than a mere dream or goal that people want to reach. Rather it has deep connection with the will of God that God entrusted to His people and the church. In the Hebrew Bible, the word for vision is stated as ראה(raah) or חָזָה(haza). The usage for raah in the Bible has much connection with the Word of God. In the Greek Bible, vision is ὅραμα. This word came from the word ὁράω which means ‘to see.’ In the Korean Bible, this term is often translated as illusion or dream. Likewise, vision in its original definition means the plan that God has shown to His people and His community.

A few passages in the Bible can be found to take notice regarding vision. First, in the Old Testament, Moses is a significant example as a model for vision. He received God’s vision of delivering the Israelites from Egypt to the promised land, Canaan(Exo. 2:9-10). Nehemiah received God’s vision to rebuild the broken wall of Jerusalem in order to establish the Israelite community(Neh.2:12). On the other hand, in the New Testament, Jesus is the most notable protagonist of vision. Jesus talked about the vision of the Kingdom of God through coming on this earth, preaching, and teaching His disciples to spread the gospel to discipline all the nations(Matt. 28:19-20). Paul lived out his life as a man of vision through preaching the Kingdom of God wherever he went and being oppressed for it until his end(Acts. 28:31). The researcher studied about these four men of vision: how the vision was entrusted to an individual

and how it influenced the whole community.

Mark Shaw, a professor in seminary and a missionary, expounded Christian philosophers who remarkably presented visions from the past 500 years of Christian history. He expounded how vision affected the Christian history through examining lives and writings of people such as reformers(Martin Luther and John Calvin), pastors and pioneers(William Perkins and Jeremiah Burroughs), and revivalists(John Wesley). Referring to Mark Shaw, the researcher studied the main themes he suggested as visions for each era and what changes and determinations there were in churches.

The definition of 'church' is a community with one faith in Jesus Christ and a community called to deliver the gospel to the world. One must not forget that the essence of church is to obey God's calling, listen to and share the will of God together, and live as soldiers who spread the gospel to the world according to God's will.

Edmund P. Clowney stated that "mission expresses its purpose of Christ having had come to this earth and the purpose of sending us to the world." There may be various methods for conducting the mission but churches need to focus on the following question with all the church members: "How should the church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on this earth?" On the other hand, David Beer stresses "unity of church in Christ." He asserts the importance of the church being one with common goal and purpose in the will of God. This shows that there can be no objections to the church being united in the common goal and vision God entrusted through His Word.

Likewise, the aspect of true church and community of God's people is thoroughly holding on to the vision that came from the Word of God. Growth and revival cannot be anticipated if not through seeking the will of God from His Word or not through the church

moving forward with one goal and vision of the will of God.

CHAPTER 3

CASE STUDY OF ANSAN DONGSAN CHURCH LED BY VISION

In chapter 3 the researcher conducted a case study of Ansan Dongsan church which carried on its vision centered ministry and continued in abiding growth and revival. Through this case study, the researcher will disclose the importance of vision that should be in churches and emphasize that sharing vision with all church members and focusing on vision is the principle that will establish a healthy church.

When hearing the name, Ansan Dongsan church, most ministers and church members think of evangelism or small groups. Injoong Kim recalled, “the conclusion that I had through adopting small group ministry in Ansan Dongsan church is that if I am not changed by nor practice the value of small church ministry, there is no good of applying the best programs.” In this context, Kim endeavored in dedication to small group ministry himself first and in sharing the vision to the church members.

Additionally, Kim shared his pastoral philosophy and vision through his preaching ministry. Yongkew Park showed that the church members of Ansan Dongsan church were able to have the same vision through the Word of God by stressing that “sermons of Injoong Kim are sermons preached by from heart from real experiences, based on the gospel, prepared by practice in life, driven by vision that is full of hope and dreams, and that are explicit in its essential message.”

On the other hand, Kim asserted that settling down the laymen discipleship that nurtures them to live out the Word of God is one of the most emergent ministries in the church by stressing that “the purpose of disciplining the church members is establishing the body of Christ:

Christ who is the head." Ansan Dongsan church pursues a healthy vision community through disciplining the church members with the Word of God and having the will of God flow through them from the early stage of when discipleship was adopted to the present time when small group ministry is being practiced.

Kim has been unceasingly agonizing over the essence of church since the transition to small group ministry. The result came out with the 'Big Forest Movement.' Kim said it is the essence of the church that he and the church should pursue by stating that "from now on, I will not only focus on the 'Big Tree Movement' which grew my church but devote myself on the 'Big Forest Movement' which all the churches move forward together for the local community." Ansan Dongsan church is expanding its influence over just one church to Korean churches through conducting 'Big Forest Movement' such as 'Seminars for Small Groups', 'Separation Church Planting', 'Big Forest Network' and 'Big Forest Platform.'

The researcher experienced through 9 years of serving at Ansan Dongsan church on how the lives of church members changed and how the church became healthy when focused on the vision that Kim unceasingly proclaimed. With this case study of Ansan Dongsan church on the basis, the researcher focused on establishing the church's vision from the Word of God with church members for the past one year.

CHAPTER 4

STUDY ON THE SURVEY FOR ESTABLISHING THE CHURCH VISION

This survey had its purpose on suggest a developmental process in establishing the church vision through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Vision Room’ that is being conducted at the church where the researcher is serving currently, Shinkwang church. The participants were male and female laypeople and ministers of Shinkwang church who participated in the ‘Vision Room.’ The survey was done in person and the purpose and process were explained to the participants. Each participant completed the survey for about 15 minutes which was printed on papers and data was collected. The survey was consisted with 25 questions.

The main group presented was people over 40 years old who attended Shinkwang church more than 21 years and participated in the ‘Vision Room.’ Most of the participants replied that the ‘Vision Room’ contributed to establishing the vision of the church. Substantial satisfaction was shown through the proportion of 95.6% of participants having relied that the ‘Vision Room’ ministry is imperative. Regarding the satisfaction of the ‘Vision Room’ administration, 62.2% replied ‘satisfied’ and 22.2% ‘very satisfied.’ Additionally, through the ‘Vision Room’, people who had not too much interest in the church vision had an increase in understanding the vision and interest in the church, and at the same time, are participating actively to the process of church vision establishment. These survey results showsthat the ‘Vision Room’ can contribute not only in having the church member participate in church vision establishment but also lead to practical changes in the church community such as mutual fellowship, communication, and unity.

The researcher conducted cross-tabulations and concluded that there were not much differences in gender in most of the questions. However, regarding existence of methods on

reflecting opinions of the church members in making important decisions in the church, male participants each showed the following rates: 4.4%(2 people) for ‘Very much’, 11.1%(5 people) for ‘Much’ and 8.9%(4 people) for ‘Moderate scale.’ On the other hand, female participants showed the following rates: 37.8%(17 people) for ‘Moderate scale’ and 15.6%(7 people) for ‘None.’ These results show that, despite of the female church members accounting for a substantial portion and serving in many church ministries, important church decisions and the procedure of meetings were made in a male-oriented way.

Additionally, although there were not too much differences according to duties, 20%(9 people) of deacons replied ‘Moderate scale’ for various ways in making church’s decision. 15.6%(7 people) of deaconesses also replied ‘Moderate scale’ which showed comparable results to other duties. These results show that it was hard for deacons and deaconess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establishing the church vision or its direction.

The researcher came up with a notable fact through conducting cross-tabulations regarding generations. For question on imperative elements for heathy church growth, participants who were in age group of 30-49 answered as following: 17.8% for education and 9.9% for vision. Age group of over 50 answered both elements in similar proportion: 17.3% for education and 15.6% for vis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elderly regard community value more important than individual value and the young generation vice versa: more attention in family and children’s education.

This survey has its value in detailed evaluation of past ministries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of Shinkwang church and of the ‘Vision Room’ that had been conducted for one year. The evaluation of the church from the participants was substantially objective and the analysis of the participants regarding the ‘Vision Room’ is very positive. Most of the participants

showed many changes in comprehending the church vision and practical participation through the ‘Vision Room.’ As the results shows, if participants of the ‘Vision Room’ have more interest in the church ministry and are able to conduct balanced spiritual life through understanding the community’s vision, the ‘Vision Room’ ministry should be expanded and developed in having more various groups participate and communicate with them.

CHAPTER 5

PLANS FOR ESTABLISHING THE CHURCH VISION CENTERED ON THE VISION ROOM

Chapter 5 puts its ground on the survey results from chapter 4 and presents that the 'Vision Room' brings practical changes of church members interest in the church and affects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vision in detail. Additionally, this chapter will reflect various church vitalization plans from the previous study on Ansan Dongsan church in chapter 3 to the process of establishing vision. Ministers have significant missions of sharing biblical vision based on the Word of God and lead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to have it live as salt and light in the world. In this context, the researcher will suggest a ministry plan for ministers who want to establish the church vision with church members and who pursue to administer the 'Vision Room' effectively, and thereby, propose a systematic process in establishing church vision.

Four important procedures were analyzed for the 'Preparation Stage for Church Vision.' First was the senior pastor's pastoral philosophy and the church's goal. The church vision must start from the unshakable, essential, and biblical direction and philosophy from the senior pastor. Second was workshop for members of the church conference and ministers. The researcher listened to the church history from the respectable elders who dedicated in the church for a long time and comprehended the aspects to be desired for development in Shinkwang church. Third was organizing the Vision Committee. The church organized the Vision Committee so that it could generally manag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hurch vision and make open chances for the church members to participate in it. Fourth was presenting the plan for vision through preaching. The researcher helped the church members to understand how to live and what to

focus through the following year by preaching vision-focused-sermons for the first three weeks in January.

Next stage was the ‘Foundation Stage for Church Vision’ and five procedures were suggested. First is the administration of the ‘Vision Room.’ The researcher adjusted in detail and conducted the ‘Vision Room’ ministry throughout the year and focused on it to make it an open discussion place for the church members to participate actively and voluntarily. Second was organizing Task Force Team(TFT) of ministers. The minsters, being the essential group in the whol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hurch vision, collected various opinions that were suggested from the ‘Vision Room’ and reflected ministry strategies that the church could apply. Third was the ‘Vision Retreat for Whole Church Members.’ Before standardizing and officially announcing the vision, times for all the church members to focus on the Word of God and to pray for the lead of the Holy Sprit was offered. Fourth was the second workshop for members of the church conference and ministers. Members of the church conference lastly got explained of the church vision system: all the contents and results from procedures for establishing the church vision. Fifth was the vision systemizing process. The Vision TFT consisted with the ministers, summarized the vision to be announced clearly in a pastoral view and the final church vision system was confirmed through the final policy church conference.

Final stage for establishing the vision was the ‘Sharing Stage for Church Vision.’ First was presenting the vision to the main officers in the church. After this, in the morning service, the practical and tangible vision system was shared to the church members through the ‘Declaration of the Vision.’ The researcher preached vision-focused-sermons for the following 10 weeks. Listening to and sympathizing with the biblical aspects of a healthy church and what kind of church God seeks and uses through the worship were critical elements in sharing the

vision. Additional methods were employed to share the vision such as website of the church, producing vision brochures, designing vision logo, and installing banners in front of the sanctuary.

The ‘Vision Room’ centered vision establishment process conducted for a year achieved unity among the church members, resolved the lack of communication in the church, succeeded the tradition of the church, and thereby, shared the correct vision that the church should move forward to.

CHAPTER 6

CONCLUSIO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s a part of an attempt to resolve many issues in Korean churches; especially in the areas of depression, division, and conflicts in leadership in churches. Assembling the hearts of the church members to the vision that has the church take off to a new future while succeeding the tradition of the church is critical for the church's growth. Vision displayed in the Bible is dealt with significance. The term 'vision' was used to mean 'the will of God shown to His people.' God spoke of his will to His people in various ways without ceasing and the people lived as a vision community that kept moving forward towards that vision.

One common principle one can find through observing the lives of reformers(Martin Luther and John Calvin), pastors and pioneers(William Perkins and Jeremiah Burroughs), and revivalists(John Wesley) is that they all led changes in Christians' lives through each vision they received from God. As seen in chapter 3, the characteristics of dynamic and influential churches are the unity of the church in God's vision and enthusiasm towards the vision and its direction. It was confirmed through chapter 4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church members in establishing the church vision practically brings positive change and vitalization. Through chapter 5, the researcher presented how the analyzed data were applied in establishing the church vision. These studies showed that the research for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hurch vision is imperative in order for the church to grow healthy.

Limitation in this study still exists where the study on establishing the church vision through the 'Vision Room' was conducted at a 50 years old mid-sized church. Despite of this limitation, the researcher anticipates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have churches

communicate between the church members without conflict for establishing visions for each church. The researcher hopes that people will have more interest in establishing the church vision in unity among the ministers and the church members and each church will grow to be a vision-led-church.

제 1 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그동안 한국교회는 수많은 선교사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괄목할만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였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요 전적인 은혜이지만, 복음에 헌신한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와 복음수호에 앞장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교회의 양적인 급성장은 선교 130년이 지난 현재 그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다양한 정체의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의 관심이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이 아닌 외적인 성장에 지나치게 집중된 나머지 교회가 한국사회에 주목할 만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으나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배출되지 못한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 리더십문제, 교회의 분열, 목회자 윤리문제,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 등 여러 당면한 문제들로 인하여 세간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비판적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급속도로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교회가 직면한 상황과 관련하여 미래학자인 최윤식은 교회의 성장 둔화를 다음과 같이 예견한다:

> 필자의 예측으로는, 만약 이대로 간다면 2050년경이면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는 300~400만으로 줄어든다. 현재 천주교가 527만 명이다. 2050년 한국교회는 천주교보다 줄어든다. 현재 기독교의 절반이 될 것이다. 교육 부서는 전체 기독교인의 5~10%대로 줄어들 것이다. 영유아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를 다 합친 교육부서의 총인구는 15~4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 6만 5천 교회로 나누어 보면 교육 부서 전체의 평균 숫자는 교회당 6~7명 정도다. 장년의 80~90%는 55세 이상의 은퇴자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주력 세대는 70~80대가 될 것이다. 실제로는 현재 있는 교회 중에서 절반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살아남은 절반의 교회 중 90%는 교육 부서가 전멸할 것이다. 이것이 35년 후인 2050년 한국교회의 모습이다.[1]

1)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68-9.

이런 최윤식의 분석은 한국교회의 어려운 상황이 이미 정체기를 지나 쇠퇴기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성장 방법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침체의 본질적 이유를 고민하고 부흥의 원동력을 다시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교회의 쇠퇴에 대하여 다양한 진단과 대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의 중심에는 앞서 언급한 교회의 리더십, 즉 교회를 책임지고 목양하는 담임목회자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일부 목회자의 성장 일변도의 목양방침과 교회를 돌보고 일을 처리할 때 교인들과 함께 소통하지 못하면서 오는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별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 원로목사와 후임목사와의 갈등이 교회 내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으로 양산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수십 년간 한 교회를 목양해 온 원로목사의 뒤를 이어 후임목사로 부임한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적 철학과 열정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시도가 자칫 교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일어난다.

연구자는 이러한 분위기가 목회자와 성도들 상호 간에 갈등을 더욱 부추겨 교회 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성도들과 융합하기 위하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고 그들과 함께 준비하는 교회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2] 무엇보다 담임목회자는 지나온 교회의 전통을 존중함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인들과 함께 다가올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인천 신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소속된 올해로 설립 51주년이 되는 교회이다. 신광교회는 1968년 당시 철거민들이 세웠던 신기촌(新紀村)에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광(新光)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교회는 작년 2018년 6월 30일 39년간 시무했던 최인모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본 연구자를 새로운 담임목사로 청빙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부임할 당시 교회는 최근 정체되어 있는 교회의 분위기를 다시 새롭게 하며, 더욱

2) 신도배, “공동 목회를 꿈꾸다(1),” 「목회와 신학」, 2019년 9월, 98.

도약하는 교회가 되고자 원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3] 그러나 한편으로 교인들은 비교적 젊은 담임목사가 원로목사의 사역을 잘 이어가고 교회가 혼란과 갈등없이 세대교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전통교회의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난 5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교회비전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비전 구축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교회는 단순히 구원의 길만 제시하거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의 장을 마련해 주는 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말씀의 은혜대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그들이 살아갈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도록 훈련하고 파송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자로 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교인들에게 전도에 대하여 동기부여를 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들이 교회에 찾아오도록 하여 교회를 성장시키라는 명령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교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또다시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영혼구원할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 방법 중의 하나는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회비전을 확립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꾸준히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시작한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가르치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훈련과 사역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전은 교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열정을 불러 일으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여

3) 본 연구자는 교회에 부임하여 최근 10년 간 교인들의 예배 출석 현황을 정리하고 통계를 내었다. 그 결과 2000년 대 초반 교회는 가장 부흥한 시점을 지나 2008년 이후 점차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최근 3년 동안에는 눈에 띄게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헌신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한 비전은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너무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익숙한 과거 신앙생활로부터 이질감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역동성을 부여한다.[4]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교회 본연의 비전에 교인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하며, 세상 속에서 비전을 충실히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때 더이상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이 사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지속적인 교회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내어놓고 있다. 체계적인 양육시스템, 전도 훈련방법, 소그룹 운영안, 다음세대 교육 등 교회 사역의 한 축으로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목회자들이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방법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비전 안에 담아서 교인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단편적인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아닌 체계적인 교회비전을 목회현장에 도입하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가는 비전확립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사역하는 신광교회에서 교인들의 의견수립을 위해 운영 중인 '비전의 방'을 분석하여 교회비전수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비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편으로 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확립체계를 제시함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본 연구의 초점은 인천 신광교회에서 지난 1년간 실시한 비전의 방을 분석하여 교인들의 비전참여를 확대하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비전체계 확립과정을 위한 연구에 있다. 연구자는 50년 전통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세우기 위하여 교인들의 생각이 반드시 공유되고, 교회의 지난

4) Andy Stanley, 「비저니어링」, 정연석 역 (서울: 디모데, 2001), 14-8.

역사와 사역을 함께 살펴볼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필요를 이룰 방법으로 교회 내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8개의 '비전의 방'을 조직하여 운영함으로 성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비전의 방'에 함께 동참한 교인들의 설문자료, 비전이 이끄는 대표적 교회인 안산동산교회의 각종 서적, 안산동산교회 미래목회연구소에서 연구하여 발행한 연구자료들을 종합하여 비교 분석하고 교인들과 함께 세우고 교회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회비전 확립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안산동산교회는 연구자가 9년 동안 사역한 교회로써 한국교회 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루고 매년 교인들과 공감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을 연구함에 있어 한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비전체계의 모든 과정에 대한 논의를 담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비전의 방'에서 교인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여 얻어진 모든 내용들을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게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다. 뿐만 아니라, 신광교회 교역자들이 비전을 확정하고 실행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연구하고 토론한 모든 회의 내용을 상세히 담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교회 내 비전수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전을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인 '비전의 방' 운영을 각 교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달하고자 한다. 교회 내 소통하는 비전수립의 당위성, 또한 비전체계 수립을 위한 구체적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개 교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교회비전 확립과정을 담는 것이 이 논문이 규정하는 한계이다.

3. 성경 및 신학적 근거

하용조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5]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비전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성경

5) 하용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서울: 두란노, 2007), 123.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구약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느 2:12)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앞으로 완수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성벽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 시작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자신만의 사명으로 간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게 함께 공유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성벽재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느 2:16-18).

신약에는 예수님과 사도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나간 이야기도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하여 밤낮으로 바쁘셨다(마 9:35).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은 3년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교회를 세웠다(행 19:8).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28장 31절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말하며 바울은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전도하고 목회 했음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 같은 성경적 근거 위에 비전의 어원과 정의를 살펴보고, 구약에서 나온 느헤미야의 사역과 신약에서 소개된 예수님과 사도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하여 비전의 중요성과 교회와 비전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한편 연구자는 신학적 근거로 선교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등 이 세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모으려고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훈련하셨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셨다. 이와 관련하여 에드먼드 클라우니(Edmund P. Clowney)는 “선교를 위해서는 교회의 정체성이 필요하다”[6]고 말하며 교회는 선교적 비전으로 명확히 세워질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울은 그의 서신

6) Edmund P. Clowney,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F, 1995), 183.

에베소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고 언급한다. 바울은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되어 서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빌 도냐휴(Bill Donahue)와 러스 로빈슨(Russ Robinson)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워 가는 교회들은 전 성도가 하나의 비전을 함께 실천한다”[7]고 강조한다. 하나된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건강한 교회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교회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곳이다. 양용의는 하나님 나라는 장차 다가오고 도래할 천상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현재 이 땅에 우리가 세워 나갈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8] 교회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신학적 근거 위에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비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하고 한국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비전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전의 중요성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 연구자가 9년 동안 사역한 안산동산교회와 관련된 각종 문헌을 분석하여 교인들과 소통을 중심으로 비전을 세워가는 실제적인 운영 방안과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더욱이 연구자가 신광교회에서 현재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비전의 방’ 사역과 설문조사를 분석 평가하여 더 발전된 비전체계 확립과정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서론으로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또한 연구의 한계와 연구의 방법 등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비전과 교회에 관련된 사전적 정의와

---

7)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77.

8)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48.

성경적 근거,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할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참여하는 비전수립을 통해 성장한 대표적 교회인 안산동산교회의 사례를 종합하여 분석할 것이며, 4장에서는 8번의 '비전의 방'에 함께 한 교인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서 정리한 4장의 내용을 근거로 '비전의 방' 운영을 통한 더 발전된 비전체계확립 모델을 제시할 것이며, 교회 전체의 비전확장과 개 교회에서의 활용 방법도 함께 담을 것이다.

5. 문헌 및 성경구절 검토

연구자는 연구를 위한 문헌 검토를 네 가지로 분류하여 진행할 것이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의 성장에 관한 문헌들을 찾아 조사하는 일이다. 이들 문헌들은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로 비전과 교회에 관련한 문헌들을 살펴봄으로 본 논문의 이론적 근거들을 조사하고 연구할 것이다. 세 번째로 비전체계가 잘 세워진 안산동산교회의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고 종합하는데 도움을 받은 문헌들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관련된 문헌들을 찾아 연구하는 것이다. 이 책들은 비전체계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문헌들이다.

첫 번째 분류의 시작은 박찬식, 이우성의 공동 편저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이다. 본서는 미래 한국교회가 맞이하게 될 여러가지 상황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 특별히 본서는 미국과 영국교회의 앞선 상황을 담고 있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교회 쇠퇴의 원인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본서는 교회의 급격한 세속화와 인본주의를 강조한다.[9]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방법과 원리들을 받아들인 영국교회가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한국교회뿐 아니라 영국교회와 미국교회의 시대적 상황을 조사함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다음세대를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9) 박찬식, 이우성 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383.

미래학자 최윤식의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는 한국교회의 현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본서는 한국교회의 위기사항을 냉철한 분석으로 기술되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까지도 제시해주고 있다. 저자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는 정체, 둘째는 재정위기, 마지막 세번째로 교회 파산이나 분열을 이야기한다.[10] 본서는 이러한 예측된 상황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성경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저자는 7장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고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로 다시 리빌딩 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서를 통해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비전으로 세워질 때 회복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찾아낼 것이다.

두 번째 분류의 문헌은 앤디 스탠리(Andy Stanly)의 「비저니어링」[11]이다. 본서는 유명 목회자이며 저술가인 저자가 느헤미야의 성벽재건 이야기를 교회비전과 연결하여 저술한 책이다. 성경해석과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비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성경적 비전을 정의하고 이해하는데 유익한 책이다. 또한 본서는 교회가 어떻게 비전을 세울 것인지 그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느헤미야의 성벽재건의 과정을 성경에서 일목요연하게 찾아내어 교회비전과 연결하여 정리한 것이다. 때문에 연구자는 본서를 교회가 비전을 토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중요성과 그 비전의 정의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데이비드 비어(David Beer)가 저술한 「비전과 목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는 연구자가 교회에 적용한 교인들 상호간의 소통 공간인 '비전의 방'의 필요성에 대한 신학적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저자는 생명력 있는 유기적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이런 건강한 교회들의 많은 사례를 연구함으로 도출한 여러 방안을 통하여 교회성장을 위한 비전확립의 실제적 지침과 원리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자는 "교회의 다른

10)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 39.

11) Andy Stanley, 「비저니어링」, 정연석 역 (서울: 디모데, 2001).

지도자들과 비전을 공유하라. 당신이 지나온 과정을 통해 공유하라"[12]고 권하며 비전은 교인들과 함께 소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본서는 교회성장의 여러 측면을 복잡하게 다루기 보다는 목적과 비전이라는 교회의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주제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물론 연구자는 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체계의 정립과정들을 논문에 모두 적용하거나 상세하게 반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회의 목적과 비전이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한다는 저자의 의도와 방법을 본 논문에 전반적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에드먼드 클라우니(Edmund P. Clowney)의「교회」[13]는 저자의 풍성한 목회 경험을 토대로 저술한 교회론 책이다. 저자는 거룩성, 성령의 은사, 교회의 표지, 예배 등 교회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구체적이며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특별히 저자는 본서의 중반부에 선교, 문화, 하나님 나라 등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교회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그들을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기까지의 본질적 교회사명을 다루고 있다. 비록 본서는 선교적 교회론을 표방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할 다양한 분야를 역동적으로 다루며 소개하고 있다. 본서는 헬라어 원문의 해석을 충실하게 다루고 있으며 원어와 문맥에 근거한 저자의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주해가 강점이다. 따라서 신학적 해석이 풍부한 주석으로서 교회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고 어원에 대한 신학적 이론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빌 도냐휴(Bill Donahue)와 러스 로빈슨(Russ Robinson)이 공동으로 저술한 「소그룹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공동체의 관계와 소통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제공하는 책이다.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되었던 분열과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적 개념인 소그룹을 이해하고 교회의 성숙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엮어져 있다. 저자는 개인의 신앙이나 소속된 모임, 교회 사역의 영적 성장은 공동체의 관계를 떠나 일어날 수

12) David Beer, 「비전과 목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천슬기 역 (서울: 서로사랑, 2008), 82.

13) Edmund P. Clowney,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F, 1995).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14] 따라서 교인들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어나는 소통이 갈등의 최소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연구자는 본서를 통해 성도들이 관계 안에서 교회의 비전을 어떻게 소통하는지, 소그룹과 교회 비전이 어떻게 연결되어 흘러갈 수 있는지 등 소그룹의 중요성을 성경적 배경 안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양용의가 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저자는 책에서 마태와 마가가 기술하고 있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하나님 나라로 정의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 입각한 교회론에 담아 다양한 주제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특별히 저자는 본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 이론을 정립하는 것만을 추구하지는 않으며,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확고하게 세워지고 이 비전과 가치가 교인들의 삶에 뿌리를 굳게 내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15] 따라서 연구자는 본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학적 바탕에 입각한 성경적인 교회론을 명확히 살펴봄으로써 본 논문의 이론적 근거의 타당성을 제시할 것이다.

두번째 분류의 마지막 책은 선교사이자 신학교 교수인 마크 쇼(Mark Shaw)가 쓴「비전」[16]이다. 본서는 지난 세계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10명의 영적 거장들의 사상과 비전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였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루터, 칼빈, 예레미야 버로우스 등 리더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그 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본서는 교회사적으로 지도자가 가지는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본 연구의 교회사 부분에 비전의 영향력을 시대별로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귀한 자료이다.

세 번째는 교인들과 함께 하는 비전으로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안산동산교회의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고 종합하는데 도움을 받은 문헌들이다. 박용규의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는 현재 한국교회 내 매우 건강한 교회로 평가받고 있는 안산동산교회를

14)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91.

15)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3.

16) Mark Shaw, 「비전」, 조정규, 임종원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5), 14-5.

신학교 교수인 저자가 비전이라는 관점으로 교회가 30년 동안 어떤 방향과 모습으로 세워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정리하고 있다. 저자는 동산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김인중 목사의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비전제시에 있다고 강조한다.[17] 박용규는 교회역사의 전문가로서 안산동산교회 부흥과 성장의 이야기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 성장과정의 전체적인 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서를 통해 안산동산교회의 성장원리를 이해하고, 교회는 비전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조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은 안산동산교회 원로목사인 김인중의 대표적인 저서로서 안산동산교회의 성장 DNA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 저자는 교회의 성장 동력으로 공동체, 상호책임, 리더십, 번식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공동체이기에 단순한 조직이나 시스템에 의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연합할 때 성숙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18] 본서는 저자가 수십년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생생한 부흥의 이야기와 실제로 적용하여 증명한 교회 성장이론을 담고 있는 교회비전을 위한 모범서 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본서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있어야 함을 깨달았으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상호 소통하는 비전의 필요성을 접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김인중의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는 동산교회를 이해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 김인중은 한 사람 평신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소그룹이 핵심임을 깨닫고, 이를 위해 자신을 먼저 셀목회의 가치로 생각을 변화하고 일생을 셀정착을 위해 헌신하였다. 본서는 이런 저자의 목회철학과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셀목회의 8가지 실제적인 가치를 일목요연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목회자들이 프로그램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이며 신앙적인 목회관을 재정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토대로 한 셀목회를 교회에 함께 접목해 나가자고 도전한다.[19] 연구자는 본서를 통하여 안산동산교회의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그 핵심가치를

17)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안산: 큰숲, 2009), 349.

18) 김인중,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13), 16-23.

19)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8), 18.

교인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여여 할지, 그리고 교회에 적용해 나가야 하는지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송창근의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20]는 안산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분립개척을 한 저자가 동산교회 셀사역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셀목회의 기초가 되는 책이다. 특별히 저자는 본서를 통하여 동산교회가 어떻게 셀목회로 전환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뿐 아니라 주일학교 부서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양육체계 안에서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서를 통해 안산동산교회의 셀목회 비전을 이해하고, 한편 개 교회가 어떻게 쉽게 셀을 접목할 수 있을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네번째 분류의 시작은 저명한 교회 성장학의 전문가이자 목회자인 명성훈의「교회성장 마인드」[21]이다. 본서는 교회 성장학의 이론과 실제를 총망라한 것으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교회 성장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 연구자는 본서에 나오는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5장 교회성장의 원리와 11장 교회성장과 조직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분석할 것이다. 본서를 통하여 연구자는 교회성장에 있어서 비전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함에 목적을 둔다.

권성수의「생명사역」[22]은 교수인 저자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적용한 비전에 관한 이야기다. 본서는 저자가 17년 동안 연구한 새로운 미래교회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교회에 접목하면서 얻은 다양한 실제적 경험들을 집대성한 책이다. 본서는 저자가 교인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전달한 비전과 사역의 방향을 책으로 재구성하였다. 저자는 사명, 비전, 핵심가치, 전략 등에 대하여 핵심개념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교회에 직접 적용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목회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본서에 나오는 다양한 내용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전을 쉽게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20)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서울: 두란노, 2009).

21) 명성훈, 「교회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22) 권성수, 「생명사역」 (대구: 생명사역훈련원, 2017).

배종석, 양혁승, 류지성 등 세 명의 경영학자가 공동으로 집필한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23]이다. 본서는 한국교회 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9교회의 생생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국교회의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원리와 이론적 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비전, 전략, 조직구조, 운영시스템 등은 본 논문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교회 비전을 세우는데 중요한 뼈대가 되어 주었다. 물론 저자가 말하고 있는 모든 교회 성장의 전략들을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다. 하지만 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략들은 교회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모델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논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비전체계의 남은 과제를 제시할 때 본서를 활용하여 구성할 것이다.

마이클 밀톤(Michael A. Milton)의 「교회 비전 바로 세우기」는 교회가 비전이 바로 세워져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저자는 교회가 단순히 시스템적이고 조직적인 비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비전을 세워야 함을 강조한다. 특별히 저자는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세울 때 과거 교회 안에 존재했던 강력한 성장의 동역과 비전을 놓치면 안된다고 설명한다.[24] 이것은 교회의 비전이란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과제임을 말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본서를 통하여 단순히 새로운 양육체계의 과정만을 나열하는 논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지나온 교회 역사를 이을 수 있는 비전체계를 제시할 수 있는 논문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문서 외에도 연구자는 리처드 코킨(Richard Coekin)의「교회 성장 DNA」[25]와 진 게츠(Gene A. Gets)와 조 월(Joe L. Wall)의 공동저서「효과적인 교회성장적략」[26]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하여 비전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성경적 근거를 찾기 위한 자료로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여러 성경구절을 참고하여 논문을 진행하였다. 성경에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전을 세워 건강하게 성장해야 함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

23) 배종석, 양현석, 류지성,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서울: IVP, 2008).

24) Micheal A. Milton, 「교회 비전 바로 세우기」, 이호우 역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6), 36.

25) Richard Coekin, 「교회성장 DNA」, 김성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6) Gene A. Gets and Joe Wall, 「효과적인 교회성장전략」, 김현희 역 (서울: 디모데, 2000).

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느 2:12)이라고 언급하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재건의 사명을 완수 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고 말씀하신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다(행 19:8).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사명이나 초대교회 내에서 바울이나 사도들이 수행한 사명 역시 동일한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이었으며, 그 비전으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확장했던 것이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 성경구절을 통하여 말씀에 근거한 비전의 필요성을 정의할 때 구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논문의 성경적 근거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이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고 강조한다.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함께 그 몸을 세워 가야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때문에 연구자는 에베소서 2:19-22, 3:10-11, 3:20-21 등 에베소서의 다양한 말씀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리더들의 사역의 핵심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교인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실행할 때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조사하고 찾아내려고 한다.

더불어 바울은 에베소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리더들을 훈련하며 체계적으로 교회를 세워 나갔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빌 1:5)라고 말하며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지난 헌신을 중요하게 다루며 그 과거의 역사 위에 새로운 미래를 세울 것을 강조한다. 때문에 연구자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함께 성경적 비전을 체계적으로 세울 때 교회는 갈등 없이 내일을 향한 새로운 사역을 활발히 펼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비전과 교회에 대한 이해

1. 비전에 대한 이해

교회가 비전에 집중하여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교인들이 함께 다음세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침체된 한국교회가 새로운 활력을 회복하고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비전이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것이다. 비전과 관련하여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 사실상 적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연구자는 성경에서 언급된 비전의 어원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용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고, 성경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비전이 교회 사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다루어진 내용들을 통해 비전의 간략한 특징들을 찾아내어 비전 수립과정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1) 비전에 대한 정의

한글 개역개정성경 잠언 29장 18절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영문 King James Version(KJV)에서는 ‘묵시’라는 단어를 ‘Vision’으로 사용하였는데, KJV은 “비전이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강하게 표현했다. 또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이라고 번역한다. 이렇게 비전은 단순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나 도달하고 싶은 이상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 더욱이 KJV나 현대인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은 올바른 삶의 기준 제시를 넘어 교회와 교인들에게 균형과 생명력 있는 삶을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27]

일반적으로 비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한다.[28] '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에는 ראה(라아)와 חָזָה(하자) 두 용례가 사용된다. '라아'는 외형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일반적인 '봄'을 나타내며, 반면에 '하자'는 눈을 통해 보는 보편적인 '봄'을 넘어 내적인 어떤 상태까지도 인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천무엽은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라아'(ראה)동사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에서부터(창 12:14; 출 2:2; 32:25; 사 22:9), 경험적으로 보는 것(신 33:9; 1:19, 31; 욥 11:11; 렘 5:12; 14:3), 시각을 통해 감지하는 것(출 3:4; 8:11; 시 49:11; 전 3:16; 렘 7:17; 애 2:20), 의지적으로 보는 것(창 9:22, 23; 42:9, 12; 신 4:19; 욥 31:26), 정신적으로 관찰하는 것(창 31:50; 신 1:8; 삼하 24:22; 렘 2:31; 대하 10:16; 왕하 10:23; 말 3:18)까지 여러 용도로 사용도 한다. 이에 비해 '하자'(חָזָה) 동사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신체적 상태(시 58:8, 10; 잠 22:29; 29:20; 사 33:2; 57:8)에서, 신현현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출 24:11), 사후에 하나님을 뵙는 것(욥 19:26, 27),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는 것(시 11:4; 17:2), 강렬한 인상(기쁨)으로 보는 것(사 1:1; 겔 12:27; 13:16; 민 24:4, 16; 겔 13:7; 사 13:1; 욥 1:1; 슥 10:2; 사 30:10; 암 1:1; 미 1:1; 사 30:10; 애 2:14), 그리고 지적(욥 34:32; 잠 24:32; 사 48:6; 시 63:3; 욥 23:9; 시 46:9; 사 26:11), 경험적(욥 27:12; 15:17; 24:1), 혹은 정보 제공을 위해 (출 18:20) 보는 것을 의미한다.[29]

천무엽이 열거한 '라아'의 여러 가지 용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비전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하나님은 선지자나 특별히 선택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뜻을 다양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과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된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비전은 헬라어로 ὅραμα(호라마)가 사용된다. 이 단어는 '보다'를 뜻하는 ὁράω(호라오)에서 파생한 것으로 비전이란 뜻 외에 '눈에 보인 것', '광경', '모양'을 뜻한다. 한글

---

27) 한글 개역개정성경과 KJV에서 나오는 'Vision'과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본을 통하여 비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28) 하용조 편, 「비전성경사전」 (서울: 두란노, 2002), 391.

29) 천무엽, 「현대교회의 비전과 그 중요성에 대한 연구」, 9-10.

개역개정성경에서는 주로 '환상'으로 번역된다.[30] 천무엽은 '호라마'를 영어성경에서 'vision'으로 번역한 이유는 환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개념의 한계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비전은 일상적인 '봄'과는 다른 방법으로 보는 것, '잠' 또는 엑스타시 속에서 보게 되는 형상적, 초자연적, 예언적 광경, 특히 계시를 전달하는 광경으로 웹스터 사전에서 정의한다"[31]고 말한다. 칠십인역에서는 '호라마'가 '비전'을 의미하는 용례로 43회 사용이 되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1회)과 사도행전(10회)에서만 11회 사용되었는데,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하고 본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10개의 사례를 통해(9:10, 12; 10:3, 17, 19; 11:5; 12:9; 16:9-10; 18:9) 비전을 의미하는 용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32]

교회성장 학자이며 리더십 전문가로 알려진 존 맥스웰(John Maxwell)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가능성이다.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선물은 그 가능성으로 무엇을 하느냐이다. 나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한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그분의 소원을 아는 것이다"[33]고 하였는데, 이는 그가 비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설명했기보다 비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원은 성경적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미는 학교나 병원이 존재하는 그 이유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바울 사도의 말대로 교회는 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기대하는 어떤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교회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세상의 소망이라고 확신합니다"[34]고 주장하였다. 이동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

30) 강병훈 편, 「쉐마 주제별 종합자료 사전」 (서울: 성서연구사, 1990), 578.

31) 천무엽, 「현대교회의 비전과 그 중요성에 대한 연구」, 12.

32) 강병훈 편, 「쉐마 주제별 종합자료 사전」, 579.

33) John Maxwell, 「당신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 강준민 역 (서울: 두란노, 2000), 234.

34) 이동원, 「비전의 신을 신고 내일로 간다」 (서울: 두란노, 2010), 77.

죤 E. 하가이(John E. Haggai)는 비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일을 통치하신다. 그 분은 비전과 명철을 주신다. 가치 있는 비전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비전이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리더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의존해야 함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분명해질 때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35]

하가이는 비전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해하고, 교회가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지게 되는 통찰력으로 주변을 바라볼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바르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하가이의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하용조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이 비록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영적 탁월성과 영적 비전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다. 그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믿음으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나누고, 역사를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36]고 강조하였다. 그는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것으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 움직여야 함을 설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은 사람의 논리적인 말과 조직적인 구상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인다는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줌으로써 연구자가 교인들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찾도록 도움을 주었다.

윌로우크릭 교회의 사역철학을 보면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조직체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과 그것을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분의 우선순위들을 반영하고자 한다"[37]고 설명한다. 윌로우크릭 교회의 사역매뉴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회의 비전이란 바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며, 그 뜻에 부합하는 교회와 교인들을 세우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잘 알 수 있다.

---

35) John E. Haggai, 「미래는 진정한 리더를 요구한다」, 임하나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7), 46.

36) 하용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서울: 두란노, 2007), 123.

37) Paul Braoudakis 편, 「윌로우크릭 지도자핸드북」, 김양석 역 (서울: 두란노, 1997), 128.

결론적으로 원어적 의미에서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들의 상황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기반한 비전을 찾는 교회야말로 지속적이고 건강한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성경에 나타난 비전

데이비드 비어(David Beer)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만의 독특한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성경에 근거한 교회가 되기 위해 기초로 세워야 하는 성경적 원칙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38]고 말한다. 그의 주장은 성경적인 비전을 세우고자 한다면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보여주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찾고 반영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 안에는 비전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구약에서 관심있게 연구해야 할 중요한 비전의 모델로 모세를 말할 수 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된다. 이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을 비전으로 받게 된다(출 2:9-10).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비전의 사람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느헤미야가 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형제 하나니로부터 듣자 하나님께 울부짖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울 것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셨다(느 2:12).

한편 신약에서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비전의 사람은 단연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세워 나갈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말씀하셨다(마 28:19-20). 그런가 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가장 잘 이어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38) David Beer, 「비전과 목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43.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핍박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았다(행 28:31). 연구자는 위에서 언급한 네 명의 비전의 사람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개인에게 비전으로 주어졌으며, 그 비전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포괄적으로 다루어 볼 것이다.

(1) 모세의 비전

스펄전(Charles H. Spurgeon)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부르셨다고 강조한다. 그는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셔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신고로 모세를 일으키시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구출되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39]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 살인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40년의 세월 동안 양을 치며 살았었다. 어느 날 양을 치던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보였고, 불에 타지 않는 나무를 보고 이상히 여긴 그는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나무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세우셨고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후에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다. 소명의 주요 내용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 3:10)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또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되돌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모세는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출 4:10)라고 말하며 자신의 무능을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렇게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은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말을 잘하는 형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모세의 길에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더욱 많은 장애물들이 생기게 된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39) Charles H. Spurgeon, 「스펄전 설교전집 출애굽기」, 보문번역위원회 역 (대구: 보문출판사, 2003), 19.

애굽왕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출 5:2)며 강하게 거절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앞에 바로 역시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된다.

출애굽기 32장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극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주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아 섬기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한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주변 지역까지 인도해 간다. 스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희생적인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모세는 중보에서 절정에 달하는 자기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출 32:10)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을 멸망케 하시고 모세의 가족으로 한 부족을 만드시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코자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얼마나 좋은 전망이 있습니까? 모세의 자녀들이 자라서는 한 택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영광을 제쳐 놓고 오직 주 앞에 나아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 32:32)라고 간절히 중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백성들 대신 자기 이름이 기록되기 보다는 차라리 자기의 희생으로 그들의 이름이 보존되기를 간구했습니다.[40]

모세는 개인의 욕심과 야망보다는 하나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수행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 모세는 어떤 방해와 고난,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비전의 사람이었다. 신명기 34장 1-12절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 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세운다(신 34:9). 그는 120세의 나이로

40) Ibid., 446.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비전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였으며,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는 마지막 사명까지 잊지 않았다.

(2) 느헤미야의 비전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한 명인 하나니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처참한 형편을 이야기함으로 시작된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안타까운 마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느 1:4).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이동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역사적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도 자기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이 아무리 열악하고 참담해도 이 백성을 축복하고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41]

이동원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기도임을 강조함으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도록 간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스포인트 교회 담임목사인 앤디 스탠리(Andy Stanley)는 “느헤미야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확실히 알았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 없이는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다”[42]고 말한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비전을 구했던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마음 속에 부어 주셨다(느 2:12).

느헤미야 2-6장까지는 성벽 재건이 52일 동안 어떤 과정을 통하여 완공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41) 이동원, 「역경에 무릎 꿇지 마라」 (서울: PLI, 2013), 20.

42) Andy Stanley, 「비전니어링」, 35.

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처음 3일 동안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서 불탄 예루살렘 성을 구석 구석 돌아보고 살펴본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한다(느 2:17).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혼자 완수하려고 하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함께 공유하여 그들의 비전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도와주었다. 앤디 스탠리(Andy Stanley)는 비전공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비전은 공유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혼자서 이룰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강력한 말로 그림을 그려주신다. 그 그림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 과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는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와 우리의 비전을 나눌 필요가 있다. 그 비전을 강단에서 선포할 수도 있고 저녁식사 테이블에서 전할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을 하도록 하셨는지 공개적으로 표현할 날이 올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에 대해 그림을 그려 주셨다면 우리는 그 그림을 말로 표현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다.[43]

스탠리의 이러한 주장은 비전은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소통되어야 함을 잘 설명해 준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밀하게 조사한 후에 비로소 성벽재건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다. 물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에 어떤 반응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역을 완성하고 비전을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았다. 그래서 그는 주저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았고 예루살렘 재건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모두 함께 동참하기를 촉구하였던 것이다.

느헤미야 4장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변의 많은 적들로부터 협박과 다양한 방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고

43) Ibid., 115.

말하며 심각하게 조롱을 하였다(느 4:3).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적들의 공격에 대하여 낙담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동원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여러 방해물에 대해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도 비판이 지나치면 그리고 비판이 계속되면 곧 좌절하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44]라고 강조한다. 비전의 사람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취할 수 있었다.

(3)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이다. 양용의는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 나라’라는 표현은 113회나 나타나고 있는데(겹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60여회에 달한다) 그 중 72회는 예수 자신의 말씀 가운데서 사용된 경우들이다”고 말한다.[45]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후에 공생애 기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다(막 1:15).

마태복음 5-9장은 예수님의 복음전파 사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마태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5-7장에 기술하고 있고, 나머지 8-9장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면서 “그 시작과 끝 부분을 복음 선포의 주제로 하나님 나라”로 밝히고 있다.[46] 이렇게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하나님 나라)을 전파하셨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이다(마 4:23; 9:35).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사역을 하셨다. 그들은 예수님과

---

44) 이동원, 「역경에 무릎 꿇지 마라」, 109.

45)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6.

46) Ibid., 15.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비전을 들으며 배울 수 있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비전이며 주님의 위대한 명령으로 유명하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열한 제자를 산으로 불러 모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영혼구원의 사명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제자들에게 위임된 것이다.

누가는 본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기술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힌다(행 1:8). 또한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행 1:3).

하용조는 예수님은 십자가, 교회, 성령 등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 비전, 성령님이 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하시는 이 비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성령님의 비전, 교회의 비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47]고 하였다. 그의 주장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나라와 족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것이다.

(4) 바울의 비전

홍인규는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바울은 실로 독보적인 존재이다"라고 소개하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바울은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으며, 신학적 중요한 토대를 놓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48] 사도행전 9장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바울의 회심이야기가

47) 하용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128.

48) 홍인규, 「바울신학 사색」 (서울: 킹덤북스, 2010), 469.

중요하게 기술되어 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에 앞장섰던 청년 사울을 선택하셨고, 오히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 주셨다(행 9:15).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후 십자가와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의 한결 같은 사역의 중심이 되었다. 그가 경험한 예수님은 그가 목숨을 걸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주가 되셨고(행 20:24), 예수님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는 그의 가르침의 핵심과 사역의 중심이 되었다. 바울은 에베소교회에서 세달 동안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을 하였다(행 19:8). 또한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에베소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장로들에게 고별설교를 하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다. 그 고별설교에서 바울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는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고 사역의 중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49]

사도행전 28장 23-31절은 바울의 로마 가택연금에 처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바울은 비록 집안에 갇혀 지내는 형편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하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증언하였다(행 28:23).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는데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는 복음 때문에 수 없는 매를 맞아야 했고, 강도를 만나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으며,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넘겼으며, 배가 파선하여 내일을 알 수 없는 시간들을 바다 한 가운데서 보내기도 하였다(고전 11:24-26). 하지만 이런 수 많은 위험과 장애물들이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을 결코 꺾을 수는 없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음에 분명히 헌신된 사람이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전파 명령에 기꺼이 충성스럽게 참여한 복음의 수호자였다. 이동원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선교의 열매가 컸던 때가 에베소 3년 사역과 로마의 가택 연금 2년의 기간이었다" [50]고 평가하고 있다. 비록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

49)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7.

50) 이동원, 「하나님 나라 비전 매핑」 (서울: 두란노, 2012), 286.

고난과 핍박을 겪게 되었지만 결코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사명의 완수자가 되었다. 바울의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이 땅에 교회가 확장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초석이 된 것이다.

3) 교회사에 나타난 비전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 낸 사람들은 가장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다."[51] 릭 워렌(Rick Warren)은 교회사에서 나타난 여러 변화와 부흥의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들의 '비전의 영향력'이었다고 강조한다. 신학교 교수이자 선교사인 마크 쇼(Mark Shaw)는 과거 500년 교회사에서 현저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결과를 도출해낸 기독교 사상가들을 구체적으로 나누었는데, 종교 개혁자(마틴 루터와 죤 칼빈), 목사와 개척가(윌리엄 퍼킨스과 예레미야 버로우스), 신앙 부흥 운동가(죤 웨슬리) 등 그들의 생애와 저서를 통하여 각각의 인물을 중심으로 교회사에 미친 비전의 영향력을 설명하였다.[52] 연구자는 마크 쇼의 분류 내용을 참조하여 그가 서술하고 있는 핵심주제를 탐구하고 그들이 각 시대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였는지, 그러한 비전을 통하여 어떠한 교회적 변화와 결단이 있었는지 등을 연구할 것이다.

(1) 루터의 십자가 신학

16세기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일 것이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역사신학 교수인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의 저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Luther's Theology of the Cross)을 번역한 정진오는 루터 신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루터는 중세 후기의 학문적 토대의 변화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신학적 정리에 직면하였다. 특별히 정립되지 않은 혼동스러운 칭의론의 문제에 직면하여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찰하기 시작하였으며,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

51) 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삼 역 (서울: 디모데, 2007), 42.

52) Mark Shaw, 「비전」, 14-5.

> 연구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루터는 중세 후기의 일반적인 “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의 개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루터의 새로운 발견 가운데에는 이미 십자가의 신학의 전조와 분위기가 담겨 있다.[53]

성경의 중심적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이며,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길이 사람들에게 놓여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신칭의의 십자가 복음은 루터의 생각을 한순간에 바꾸었으며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마크 쇼는 중세 말엽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시기에 루터가 촉발시킨 종교개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루터는 불안해하는 유럽의 나머지 그리스도인들과 이 놀라운 발견을 나누기 위해 재빨리 행동했다. 1517년 대성당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항의문(면죄부를 거래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가 진리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는 것이었다)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을 촉발시켰다.[54]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앙과 신학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병들어가고 있었던 당시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하고 싶어 했다. 물론 루터의 이러한 노력이 한순간에 중세 교회를 새롭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루터가 죽은 후에도 그의 노력은 전 유럽을 넘어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한 사람의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에게 미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전의 힘이다.

(2) 칼빈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오늘 날 교회개혁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인 칼빈에 대하여 송삼용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개혁신학과 신앙의 원리이다. 칼뱅은 개혁신학을 주창한 사람답게 오직 하나님과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다”[55]고 말한다.

---

53) Alister E. McGrath, 「루터의 십자가 신학」, 정진오 역 (서울: 컨콜디아사, 2012), 12.

54) Mark Shaw, 「비전」, 28.

55) 송삼용, 「장 칼뱅」 (서울: 넥세스CROSS, 2009), 95.

칼빈은 신앙과 삶은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다. 그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직접 찾아가 돌보며 위로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56] 이런 칼빈이 보여준 경건한 삶은 영적 암흑기의 독일을 넘어 스위스와 프랑스, 전 유럽의 종교개혁운동을 이끌었던 힘이 되었다. 마크 쇼는 개혁을 위한 칼빈의 노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칼빈은 1541년부터 1564년에 죽을 때까지, 개인적인 니느웨 성읍이 되었던 그 도시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공을 거두게 해 주셨다. 10년이 흐른뒤 제네바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곳을 방문한 존 녹스가 "사도 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일컬을 정도였다. 칼빈의 영향력은 전 유럽으로 확대되었다. 말년에 그는 국제적인 종교개혁 지도가 되었고 근대 세계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57]

칼빈의 가장 주된 관심은 경건한 삶이였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긴 이러한 칼빈의 신학은 진정한 영성의 본질을 교회에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정완기는 이런 삶 중심적인 칼빈의 실천적 신학을 "목회적 교회의 신학"[58]이라고 평가하며 다음과 설명하였다:

> 머리가 아니라 마음, 차가운 사변이 아니라 실천, 말이 아니라 삶,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 귀하고 중요시되는 신학, 하나님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신학, 귀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에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신학,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에 확신과 평안을 주는 신학,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책임없이 지껄이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한 것 만을 가르치는 신학, 이것이 칼빈이 생각하는 신학이었다.[59]

스위스 제네바의 부흥과 개혁은 한 사람 칼빈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적 삶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시작되었고, 한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려는 칼빈의 노력과 훈련은 자신이 속한 도시와 온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렇기에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비전을 통해 시작되고,

---

56) **Ibid.**, 111.

57) **Mark Shaw**, 「비전」, 65.

58) 정완기, 「칼빈신학과 기독교강요」 (서울: 도서출판씨토스, 1995), 49.

59) **Ibid.**, 48.

전해지며, 진행하게 된다.

(3) 예레미야 버로우스와 교회

17세기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 중의 한 사람인 예레미야 버로우스는 그 명성에 비하여 그를 연구할 만한 많은 서적이 남아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는 '평화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만큼 화합과 온유를 강조한 인물이다. 마크 쇼는 "버로우스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르는 두 가지 성격, 즉 교리와 예배의 순수성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기독교의 일치를 염원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온화한 정신을 조화롭게 겸비한 일물이었다"[60]고 평가한다.

예레미야 버로우스(Jeremiah Burroughs)는 그의 저서 '세상에 속하지 말라'(*A Treatise of Earthly-Mindedness*)에서 다음과 같이 저술하고 설명한다:

> 성경은 한 가지만 필요하다고 가르치지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이 필요하고, 하늘의 것은 죽은 이후에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과의 화목, 죄의 용서, 양심의 평화 같은 것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단지 세상을 떠날 때나 소용이 있다고 믿는다.[61]

버로우스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그들이 믿는 바를 세상 속에서 살아 내야하는 영적 삶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살아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삶은 단연 십자가의 복음이며, 그것은 화해와 평화의 삶인 것이다.

버로우스는 비록 교리적 차이로 인하여 교단이 나누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다. 마크 쇼는 영국 내 각 교단의 정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초석을 놓은 버로우스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교회의 일치를 위한 버로수의 열정은 그의 죽음 직후에 *Irenicum: To the Loves of Tuth and Press Concerning the Causes and Evils of Heart Divisions*(1416)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에 담겨졌다. 이 책에서 버로우스는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치를 간절히 호소했으며, 비교적 사소한 차이점들을 엄격한 분열의 원인으로 만든 것은 옳지 못한

60) Mark Shaw, 「비전」, 93.

61) Jeremiah Burroughs, 「세상에 속하지 말라」,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7), 146.

정신과 옳지 못한 동기라고 주장했다.[62]

버로우스의 교회와 복음의 순수성에 대한 열정은 영국에서 교단주의의 큰 획을 그었으며, 교파를 초월한 교회 연합운동의 새로운 길을 여는 좋은 예를 보여주었다. 그의 교회내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 교회의 독립성은 인정하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즉 교회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대의가 당시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4) 윌리엄 퍼킨스의 회심과 확신의 모델

영국의 청교도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으로 깨우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많았으며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였다.[63] 이와 관련하여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는 영국내 교인들의 명목주의를 일깨우기 위하여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회개는 성화로부터 나온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영혼으로부터 죄를 미워하고,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이 중생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참된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회개 중에서 한 부분이라도 이루기를 원하거나 성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번 돌이키는 자들에게서 회개가 첫 번째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의 질서라는 측면에서는 믿음과 성화 다음에 온다. 여기에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법적인 회개가 회심의 참된 기회와 준비를 할 때, 복음의 설교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64]

퍼킨스는 참된 회개가 없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삶에 온전한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토마스 브룩스(Thomas Brooks)도 같은 맥락에서 “얼굴에 수심이 차게 만드는 것, 손이 힘없이 늘어지게 만드는 것, 무릎이 연약해지도록 만드는 것, 마음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은 바로 확신의

---

62) Mark Shaw, 「비전」, 96.

63) 박순용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추천사에서 “매튜 미드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회중을 깨우려고 했을 때의 영국의 영적 현실은 영국 내의 종교 개혁 이후 가장 극심한 핍박기를 지나 최고의 영적 부흥기를 맞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국은 걸출한 청교도 목사들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에 눈을 뜨고 있었고,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이곳 저곳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외쳐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설교와 강론들은 출판되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무르익은 영국의 교회 현실 속에서 매튜 미드는 ‘유사 그리스도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진단한은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고 언급하며 청교도들의 신학과 사역의 중심을 설명하였다. Matthew Mead, 「유사 그리스도인」, 장호익 역 (서울: 지평서원, 2002), 8.

64) William Perkins, 「황금사슬: 신학의 개요」, 김지훈 역 (용인: 킹덤북스, 2016), 337.

결핍이다"[65]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퍼킨스의 많은 영향을 받은 토마스 굿윈은 시편 51편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결국 다윗이 그가 저지른 살인과 간음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는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말한다.[66] 이렇게 참된 회심을 통하여 얻은 확신은 교인들의 신앙을 생명력 있게 만들어 주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건강하게 자라게 해줄 뿐 아니라, 교회 내의 불안과 무관심을 극복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67]

교인의 회심과 구원,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청교도들의 설교와 책들은 청교도운동의 영향을 넓혀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의 개혁운동에도 뚜렷한 도움이 되었다. 마크 쇼는 교인들의 회심과 확신을 위한 퍼킨스의 긍정적인 노력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퍼킨스는 대중의 회심을 촉진시키는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썼다. 그의 책들은 세 범주로 구분되는데, 각각은 퍼킨스가 회심에 필요하다고 보던 주요 영역들을 설명하고 있다. 첫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그는 *A Golden Chain*과 *the Reformed Catholic*과 같은 책에서 단순화한 칼빈주의를 가르침으로써 신학의 개혁(theological renewal)이 일어나도록 애썼다. 회심의 두 번째 영역은 목사들이었다. 그는 다음 세대에게 주석(그는 영어로 된 설교에 관한 최초의 책인 *The Art of Prophesying*을 썼다)과 목회 상담을 훈련시킴으로써 성직자의 개혁(ministerial renewal)에 힘썼다. 마지막으로 퍼킨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교재들을 저술함으로써 도덕성의 회복(moral renewal)을 위해 헌신하였다.[68]

"회개의 열매는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회심)인데, 회개한 자들이 생활 방식에서 가치 있는 행위를 내는 것이다"[69]는 퍼킨스의 사상은 그로 하여금 당시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구원을 살펴볼 기회가 되기도 하였지만 개인적 삶의 관심을 교회 내로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 개인이 가진 복음에 대한 이해와 비전은 교회를 넘어 교회역사에 훌륭한 전환점을 두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

65) Thomas Brooks,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 이태복 역 (서울: 지평서원, 2001), 256.

66) Thomas Goodwin,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들」, 박현덕 역 (서울: 지평서원, 2001), 168.

67) Mark Shaw, 「비전」, 109.

68) Ibid., 113-4.

69) William Perkins, 「황금사슬: 신학의 개요」, 338.

(5) 존 웨슬리의 제자도 개념

조지 휫필드 및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18세기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는 회심한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제자삼는 사역의 기초를 놓은 설교자로 유명하다. 웨슬리(John Wesley)의 말씀 사역에 대한 헌신과 열정에 대하여 사역 초기 그가 기록한 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우리는 이제 약간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평상시의 우리의 생활은 이랬다. 새벽 4시에서 5시까지는 우리 각자의 개인기도 시간으로 했고 5시에서 7시까지는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우리 자신의 이해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초대 교회의 문헌들과 세심하게 비교하면서 연구하였다. 점심시간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은 우리 각자가 맡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글을 읽어 주거나 이야기해주었다. 4시가 되면 늘 오후 기도회를 가졌는데(아침에 항상 기도회를 가졌기 때문에) 두 번째 공과를 설명하든가 회중 앞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교리 학습을 시키거나 그 밖의 것을 가르쳤다. 5시에서 6시 사이에 우리는 다시 개인기도 시간을 가졌다(우리가 탄 배에는 약 80명의 영국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우리는 6시부터 7시 사이에는 그들 중 두세 명에게 내 선실에서 글을 읽어 주었으며 내 형제들도 각기 그들의 선실에서 몇 사람씩 앉혀 놓고 글을 읽어 주었다.[70]

웨슬리는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삶에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회심자들을 제자삼는 사역에 온 힘을 기울여 헌신한 것이다. 마크 쇼는 웨슬리의 제자삼는 사역의 핵심과 대각성운동에 미친 영향력을 이렇게 설명한다:

> 웨슬리의 위대한 사상은 사실 간단한 것이었다. 교회는 단순히 회심자를 양산함으로써가 아니라 제자를 만듦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킨다. 부흥의 열매를 보존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단순히 회심자를 얻는 것을 넘어서서 그 회심자를 성숙에 이르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제자도에 관한 웨슬리의 개념은 교회의 사역을 새롭게 하였고, 부흥의 열매를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종교개혁 운동, 재침례교 운동, 청교도 운동의 원리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탄생하였다. 이것은 교회사에서 위대한 사상들 중의 하나이다.[71]

권성수는 "훈련은 100%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단지 말씀 정보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

70) John Wesley, 「존 웨슬리의 일기」, 김영운 역 (파주: CH북스, 2019), 39-40.

71) Mark Shaw, 「비전」, 96.

훈련시켰습니다"[72]며 제자훈련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그는 현재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고치고, 전파하는 생명사역을 교회비전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73] 이렇게 회심자들을 '속회(Classes)'와 '밴드(bands)'그리고 '특별모임(select societies)'으로 모으고 그들을 제자훈련 한 웨슬리의 헌신과 사역모델은 당시 지역교회에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으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전세계 많은 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74]

2. 교회에 대한 이해

1) 교회의 정의

교회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에디레오(Eddy Leo)는 현대교회의 쇠태가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이해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 건물, 신앙 프로그램, 조직, 교단 등 교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대답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뜻하신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모습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충격에 빠질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주장한다.[75]

보편적으로 성경에서는 헬라어 에클레시아(εκκλησια)라는 단어가 교회로 번역되어 있다. 에디레오(Eddy Leo)에 의하면 "에클레시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무려 400여 년 전에도 쓰인 단어이다. 헬라어를 문자대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 모은 자들'이라는 의미이다"라고 말한다.[76] 한편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윌리엄 커닝함(William Cuningham)은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며

---

72) 권성수, 「생명사역」, 95.

73) Ibid., 202.

74) Mark Shaw, 「비전」, 202-3.

75) Eddy Leo, 「ECCLESIA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세일 역 (안산: 큰숲출판사, 2018), 27.

76) 특별히 Eddy Leo에 의하며 "에클레시아는 고대 아테네의 황기 시절(주전 480~404)에 민주적 의회를 의미했다. 남자들로 이뤄진 열린 의회의 형태였으며, 군 복무를 2년 이상 마친 남성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Ibid., 32.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나 사회로 묘사되면서 특별하고 제한된 것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77]고 하였다. 커닝함은 교회를 정의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 믿는 자들, 또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몸,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도록 선택받은 자들”[78]이라고 개념을 정리하였다.

교회의 기원과 의미를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그 뿌리를 찾아보지만, 조직신학자 최홍석은 교회의 개념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분석한다.[79] 이와 연관하여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구약에 나타난 교회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구약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두가지 단어를 사용한다. 하나는 카할인데, 이 단어는 사어의 어근 칼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다. 다른 하나는 야다에서 유래한 에다인데, 이 단어는 ‘지정된 장소에서 모인다’는 뜻이다. 이 두단어는 빈번히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원래는 엄격히 말해서 서로 동의어는 아니었다. 에다는 약속에 따라 모이는 모임을 말한다. 이 단어가 이스라엘에 적용될 때에는 소집이 되든 되지 않았든 이스라엘의 자녀들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 머리들로 형성된 사회 그 자체를 지칭한다. 반면에 카할은 백성들이 실제로 모인 모임을 말한다. 그 결과 종종 ‘케할 에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회중의 모임’을 말한다(출 12:6; 민 14:5; 렘 26:17). 이스라엘에 있어서 실제로는 백성의 대표들이 모였던 것 같다(신 4:10; 18:16; 비교. 5:22, 23; 왕상 8:1, 2, 3, 5; 대하 5:2-6).[80]

최홍석은 그의 저서 교회론에서 벌코프의 분석과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카할과 에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카할은 ‘모임 혹은 회중’을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되며 이스라엘의 총회(신명기 31:30), 여호와의 총회(민수가 16:3; 20:4), 하나님의 총회(느헤미야 13:1)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에 적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에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카할과 같이 ‘모임 혹은 회중’을 의미하지만, 지정된 장소나 혹은 지정된 시간에 모이는 예배를 위한 특별한 모임에 사용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81]

신약성경에 교회를 나타내는 에클레시아는 총 114회 나오는데 바울서신에 62회, 그 밖에

---

77) William Cuningham, 「역사신학(상)」, 라은성 역 (서울: 도서출판그리심, 2004), 64.

78) Ibid., 65.

79) 최홍석, 「교회론」 (서울: 도서출판솔로몬, 2001), 47.

80) Louis Berkhof, 「벌코프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811.

81) 최홍석, 「교회론」, 51.

사도행전(23회)과 요한계시록(20회)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제임스 던(James D. G. Dunn)은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자들의 집단을 지칭하는데 바울이 가장 자주 사용한 용어이다. 그는 서신들에서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교회, 고린도교회, 갈라디아교회라고 부른다. 그는 통상적으로 교회들,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교회들'을 언급한다. 그러므로 분명히 바울은 이방 선교에서 개종한 자들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개념화 한 용어로 '교회'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82]고 강조한다. 루이스 벌코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개념'을 신약에서 찾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신약 성경에도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된다. 이 두 단어는 모두 70인 역에서 유래했다. 하나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인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다른 하나는 수나고게로서 '오다' 또는 '함께 모이다'라는 뜻을 가진다. 수나고게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회합 또는 그들이 공적 예배를 위하여 모인 거물을 지칭했다(마 4:23; 행 13:43; 계 2:9; 3:9). 그러나 에클레시아는 두서너 곳에서 민회를 지칭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리킨다. 에클레시아의 접두어 에크는 동사 에크칼레오에서 유래했으며 종종 '백성들의 집단으로부터'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 접두어가 에클레시아의 성경적 용법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에는 교회가 인류로부터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되기도 한다.[83]

반면 성경적 교회의 본질은 '잘 흩어짐'에 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교회로 불러모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인 에클레시아(교회)는 그들만을 위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이 부름받은 세상으로 다시 파송되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진정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다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크 드리스콜(Mark Driscoll)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참된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지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듭난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그들은 성경에 순종하여 자격 있는 리더십 아래 교회를 조직하고, 설교와 예배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이며,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경적 성례를 준수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며, 거룩함을 위해 훈련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 흩어진다.[84]

---

82) James D. G. Dunn, 「바울신학」,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3), 717-8.

83) Louis Berkhof, 「벌코프 조직신학」, 812.

84) Mark Driscoll and Gerry Breshears, 「기독교 교리」,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408.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같은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만든 세상의 친목단체와 같지 않다.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지고 친히 피로 값 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부름받은 세상으로 파송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듣고 공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공동체

에드먼드 클라우니(Edmund P. Clowney)는 "선교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목적을 표현한다"[85]고 말한다. 선교는 곧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교회마다 선교사역의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에 펼쳐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비전을 향하여 온 교인들이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클라우니는 교회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뿐만 아니라 성부의 자녀로서 선교의 부르심을 받는다. 천국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월해야만 한다(마 5:20). 율법을 준수하는 데는 그렇게 꼼꼼하지 않을지라도, 죄 있는 자와 자격 없는 원수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성부를 향한 불타는 사랑 속에서 율법의 핵심을 표현해야 한다(마 5:44-48). 복음의 핵심은 교회로 하여금 선교와 자비를 행하게 한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기독교 선교의 일부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시는 사랑을 맛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제시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내가 누구에게 이웃입니까?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친구가 되셨는데, 나의 긍휼, 갈보리 사랑을 반영하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86]

클라우니는 교회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며, 이러한 고민이 오늘 날 우리 교회들에게 너무나

85) Edmund P. Clowney, 「교회」, 182.

86) Ibid., 182.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에 대한 교회의 생각과 고민의 결과가 비전이 될 수 있다. 신약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캇 맥나이트(Scot Mcknight)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백성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렇다면 교회는 현재 성취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87]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성관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훈련받아,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삶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자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의 사명은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창 1:26-28)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출 19:6)의 연장선에서 살펴봐야 한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많은 제자훈련 방식은 구약과 신약의 연장선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살펴보지 못하고 단지 신약성경의 단편적인 성경구절들을 통해 삶의 지침을 주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제자훈련을 받았다 해도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한 채 원리 없는 삶의 지침만 주입받는 것이다.[88]

신성관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교인들을 그리스도께 헌신한 제자들로 세워, 말씀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삶 속에서 살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찰스 도나휴(Charles H. Dunahoo)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발휘하도록 의도하셨다”[89]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가 소유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큰틀 안에 있는 그 무엇과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양용의는 그가 저술한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백성의 기준이 민족적 혈통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과 그 믿음에

87) Scot Mcknight, 「하나님 나라의 비밀」, 김광남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63.

88) 신성관, 「Simple Bible Plus」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164.

89) Charles H. Dunahoo, 「하나님 나라의 제자」, 이현민, 김양숙, 김종훈 공동역 (인천: 템북, 2019), 114.

걸맞은 열매를 맺는 것임"[90]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조한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된 이유는 예수와 그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백성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원리,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마 21:43; 참조. 마 7:15-27).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처럼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참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요청하신다(마 19:16-29// 막 10:23-30// 눅 18:18-30).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은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제자들'이라 부른다(참조. 마 4:17-22; 5:1). 이 제자들은 예수를 여러 이유로 따라다니던 '무리'와는 구별된다(마 5:1; 막 3:7; 눅 6:17-20). 그들은 또한 예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자신의 사역에 언제나 동참하도록 부르신 열두 사도들/제자들과도 구별된다(눅 6:13; 참조. 막 3:14-15; 마 10:1-2). 그들은 숫자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순히 예수를 따라다니기만 하던 무리와도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일치되는 대상을 지칭한다(마 5:1, 3, 10; 눅 6:20-23).[91]

양용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구주요 메시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공동체인 것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개인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도들과 함께 소망하고 펼쳐 나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되는 것이다.

3) 그리스도의 몸인 연합공동체

교회는 유기적 연합공동체이다. 데이비드 비어(David Beer)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된 교회'를 강조하면서 "목적이 없는 교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지 상태에 머문다. 더 심각하게는 쉽게 분열될 수도 있다. 목적의 결여는 좌절케 하고, 좌절은 혼란과

90)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17.

91) Ibid., 319.

불일치를 일으킨다"[92]고 말한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되는 것이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밝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각 교회마다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과 관점은 차이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여받은 공동의 목적과 비전으로 연합하고 일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달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빌 도나휴(Bill Donahue)는 "교회가 한 몸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대로 기능할 수 없다"[93]라고 말하며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교회가 갈등을 극복하고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서로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에베소서 4장 16절을 배경으로 이상적이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 수많은 교회 조직의 모습을 보아 오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열기 넘치는 예배나 멋진 사역 프로그램, 또는 새로운 교육 과정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교회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워 가는 교회들은 전 성도가 하나의 비전을 함께 실천한다. 그런 교회의 리더들(담임목사, 교역자, 장로, 핵심봉사자 등)은 참으로 담대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교회가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으며, 소그룹을 통해 그들의 비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으로 옮긴다.[94]

빌 도나휴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야 함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안희묵은 "공동체에서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길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사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즐겁게 여긴다"[95]고 강조한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

92) David Beer, 「비전과 목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46.

93)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라」, 76.

94) Ibid., 77.

95) 안희묵, 「교회, 다시 꿈꾸다」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5), 108.

은사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되고, 그 비전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인 문병호는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진리가 함께 역사하듯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 가운데서 그분을 한 주로 섬기고(엡 4:5) 그 분을 머리로 한 연합체를 이룬다"[96]고 주장한다. 문병호도 성도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경을 통하여 발견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열쇠임을 설명하였다. 달라스 신학교 교수이자 목회자인 진 게츠(Gene A. Gets)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은, 건강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 은유는 따뜻함, 부드러움, 관심, 그리고 충성 등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정서와 헌신이라는 차원을 더 보여준다. 바울은 몸의 은유를 사용하면서 모든 지체가 교회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가족의 은유를 사용하면서 관계적 기독교의 정서적 측면을 설명한다.[97]

진 게츠의 주장은 다분히 실제적이다. 그렇기에 현재 많은 교회들이 '확장된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그들의 교회사역에 주요한 철학으로 반영하고 있다. 진 게츠는 교회성장의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로 하나님 비전을 위한 '모든 교인들의 참여'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명성훈이 하였는데, 그는 교회성장의 원리로 '연합과 일치'로 설명하였다:

> 거룩과 순결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연합과 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를 가지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연합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둘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피차' 혹은 '서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했습니다.[98]

---

96) 문병호,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1), 276.

97) Gene A. Gets and Joe Wall, 「효과적인 교회성장전략」, 112.

98) 명성훈, 「교회성장 마인드」, 232-3.

교회는 '연합'이라는 개념을 놓치면 교회 본질적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아마 없을 것이다. 때문에 교회만큼 하나되고 한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간다는 것이 어려운 공동체도 없다. 하지만 명성훈은 교회성장을 위하여 성도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성도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치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상적인 일치가 교회에 존재한다"고 말하며, "성도들의 다양한 부르심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사역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에 이르게 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였다.[99] 그는 성도들이 각자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됨을 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교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실제적인 적용모델(사역팀과 소그룹, 새신자를 사랑하라, 말을 조심하라, 소그룹에 참여하라 등)을 제시함으로 교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3. 비전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소결론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을 고백하며, 같은 신앙 아래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 나가는 꿈꾸는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다. 필립 얀시(Philip Yancey)는 오늘 날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복지 사무소다. 시각장애인을 고쳐 주고, 포로를 풀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본래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다"[100]고 강조하였고, 옥한흠도 교회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할 것을 촉구하며, "지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보냄 받은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99) Ibid., 233.

100) Philip Yancey,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윤종석 역 (서울: IVP, 2010), 75.

순종해야 진정한 교회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101]

트로이 머피(Troy Murphy)는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사역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저선이다. 우리가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의 사역을 정체될 것이고 목적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이 되고 말 것이다"[102]라고 설명하였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 안에서 찾는 노력은 단순히 교회의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구해야 한다. 데이비드 비어(David Beer)는 교회와 비전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를 통해 제자를 삼아야 한다. 만약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이해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새신자들을 제자훈련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분열되어 있거나 그들만의 성향을 따른다면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103]

데이비드 비어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경적 공동체를 알리고자 하는데, 교회는 성도들 개인적 성향과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야 함을 강조한다.[104] 릭 워렌(Rick Warren)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사명으로 국한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펼쳐 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과제를 우리는 사명(mission)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사역과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둘 다를 감당하기 원하신다.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섬김이고(골 1:25, 고전 12:5), 사명은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우리의 삶의 사명은 공유되며 또한 구체적이다. 한

---

101)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8), 75.

102) Troy Murphy, 「성장하는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이상준 역 (서울: 두란노, 2004), 53.

103) David Beer, 「비전과 목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55.

104) Ibid., 54.

> 부분은 다른 크리스천들과 나누어야 하는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만 주어진 과제다.[105]

비전을 단순히 교회 성장방법이나 부흥의 비결로 보는 시각은 지양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대한 열정은 건강한 교회성장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성경과 교회사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와 참 교회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비전을 붙잡는 교회였다. 현재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고, 복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삶의 현장 속에서 펼쳐 감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비전으로 삼아 온 교회가 일치된 목적을 향해 나가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3장에서 교회비전에 집중하며 놀라운 교회성장을 이룬 안산동산교회 사례를 분석, 종합함으로 비전이 교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과 교회성장의 직접적인 요인임을 밝힐 것이다.

105) 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삶」, 367.

제 3 장

비전이 이끄는 안산동산교회 사례 연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성경적 비전에 가치를 두고 모든 성도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 만약 이런 비전이 없다면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며, 한편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역할과 헌신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개인 신앙생활에만 몰두하여 살 수밖에 없다. 데이비드 비어(David Beer)는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비전과 사명에 대하여 강조하며, 건강한 교회야 말로 비전 위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를 접목하여 증명한다:

> 하나님 역시 계획자이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계획'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신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막 1:37-39). 그렇게 예수님은 그의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106]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명 공동체이다.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며,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진 비전을 굳게 붙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연구자는 '안산 성시화와 민족 복음화'의 비전으로 가득했던 김인중과 함께 안산동산교회에서 9년동안 사역을 하였다. 그 기간은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고 사역하는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지를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때문에 연구자는 3장에서 비전 중심적으로 사역하면서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어온 안산동산교회의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회가 깨달아야 할 비전의 중요성을 밝히고, 한편 그 비전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며 굳게 붙드는 것이야 말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원리임을 강조할 것이다.

106) David Beer, 「비전과 목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58.

1. 비전이 이끄는 셀사역

안산동산교회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의 목회자나 성도들은 '전도'나 '셀'을 연상시킨다. 연구자도 안산동산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셀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과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내가 처음 셀을 접했을 때 그 전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은(물론 신학적으로 알고 있고, 설교도 수없이 했지만) 나의 목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107]고 말할 정도로 김인중에게 셀은 목회의 본질이요 사역의 중요한 가치였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분주하게 모임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의 삶과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다. 김인중은 "안산동산교회에서 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내 삶과 목회가 먼저 온전히 셀 목회의 가치로 변화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108]고 회고할 정도로 자신이 먼저 셀 목회에 헌신했고, 그 비전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안산동산교회의 셀 사역의 비전이 개인과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반적인 배경과 이해

안산동산교회는 31살의 김인중이 안산으로 이사를 와서 전도한 1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1979년 6월 10일에 원곡동 지하예배당에서 개척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교회는 그해 1979년 7월 17일에 '반월동산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예배를 드린 후에 개척 1년 만에 출석교인이 140여명에 이르도록 부흥하였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 온 교회는 1980년 10월 개척한지 1년 3개월 만에 지하 예배당에서 1층 48평, 2층 22평, 지하 17평의 신축교회로 이전을 하였으며, 창립 2주년 기념예배에 290명의 교인 규모로, 창립 3주년 기념예배에 370명의 교인들이 참석하는 폭발적인

107) 김인중,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 45.

108)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15.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109] 이후 장년 출석성도가 6000명을 넘게 되면서 교회는 새로운 교회방향에 대하여 고민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안산동산교회의 역사를 연구한 총신대학교 역사학교수 박용규는 동산교회의 셀 도입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안산동산교회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셀 목회를 도입했다. 교회가 셀 목회를 도입하게된 주된 이유는 "공동체성과 성령에 의한 역동성이 약한 제자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이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주일예배 출석이 6천여명에 이르러 교회는 거대해졌지만 말씀의 실천과 양육과 전도, 다락방 공동체가 활력 속에 전진하지 못하고 "오직 소수의 오래된 교인 또는 훈련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는 일종의 정체 현상"이 발생했다. IMF가 발생해 교회에서 제자훈련과 전도훈련을 등을 받는 사람들도 삶이 어려워지니까 돈을 벌러 나가고 소그룹 모임 등에서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김인중이 셀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만난 것이 그 즈음이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목회의 틀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과감하게 도입한 것이 셀 목회였다. 김인중은 셀 목회를 접하고는 "그것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새로운 목회 철학이자 틀"이라는 확신이 들었다.[110]

2) 셀사역이 교회에 미친 영향

김인중은 이평강의 책 '만점짜리 셀리더로 서기'에서 추천사를 통하여 "지난 10년 동안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셀'이라는 가치를 붙잡고 한 길을 달려온 결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산동산교회를 '한국 최대의 셀교회'라고 부릅니다"라고 회고한다.[111] 이것은 김인중이 교회에 적용한 셀 사역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부교역자 시절 김인중과 함께 사역하며 셀이 동산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접목하고 도운 송창근은 안산동산교회가 셀 사역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안산동산교회 30주년사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하여 "안산동산교회가 셀로 전환을 시작한 2001년에 주일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9,766명으로 대학생 이상 장년이 6,136명, 청소년 이하의 주일학교 3,630명이었는데, 7년 뒤 2008년에는 주일 출석 성도의 수가 15,005명으로 대학생 이상의 장년이 10,097명, 청소년 이하의 주일학교가 4,908명으로 성장했다"[112]고 분석한다.

---

109)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98-101.

110) Ibid., 263.

111) 이평강, 「만점짜리 셀리더로 서기」, (서울: 두란노, 2012), 10.

112)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231.

하지만 송창근은 안산동산교회가 단지 셀을 통하여 양적인 성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동산교회가 셀교회로 전환하면서 경험한 질적인의 변화에 주목하며 그 열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셀교회가 아니더라도 성장할 수 있다. 안산동산교회가 셀교회로 전환하면서 질적으로 변화된 가장 중요한 것은 셀 정신이 모든 교회 사역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구역 예배나 성경공부의 성격으로 흘러가던 소그룹들이 8년간의 셀 전환을 통해 셀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하나 됨을 경험하는 셀 사역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교구와 양육 단계, 소그룹에서 관계전도를 통한 불신자들과의 접촉으로 보다 쉽게 불신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셀 안에서 형성될 수 있었다. 양육 단계 안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각종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의 치유와 회복, 간증의 역사가 교회 안에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113]

송창근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안산동산교회는 셀을 통하여 단순히 교회가 외형적으로만 커져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김인중의 셀 비전을 자신과 교회의 비전으로 함께 공유하며, 다양한 셀 모임에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셀 가치를 실천하며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김인중은 셀교회의 핵심가치를 8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둘째, 우리는 섬기는 종입니다. 셋째, 우리는 동등한 인격입니다. 넷째,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여섯째, 우리는 세계 선교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일곱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여덟째,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114] 김인중은 이러한 셀의 가치를 자신의 사역과 목회철학에 담았는데, 그는 안산동산교회가 이 사역철학에 따라 잘 세워지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안산동산교회는 사도행전에서처럼 몇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복음이 역사하여 살아 꿈틀거리던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따라 가고자 갈망한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셀교회 목회를 시작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셀교회는 떨어져 있어도 교회이고 함께 있어도 교회이다. 그러므로 셀교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자가 될 수 있다. 특히 한 가정의 가장, 한 다락방의 순장, 한 지역의 지역장이 가장 작은 교회를 맡은 목자의 사명을 받은 것이다. 안산동산교회는 셀교회에는 다음 여덟 가지의 중요한 핵심가치가 있다. 핵심 가치는 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113) Ibid., 233.

114)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25.

실천하고 섬기는 데 바탕이 되는 신념들로 구성되어 있다.[115]

3) 셀사역 및 프로그램

송창근은 안산동산교회 셀사역에 대하여 “담임목사와 팀장 목사의 셀 모임에서 대교구별 교역자 모임, 지역장 모임, 셀 리더 모임, 셀 모임에 이르기까지 셀 모임 중심의 리더십 시스템이 정착되었고, 각 리더십 모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구와 지역에서 셀 중심의 사역들로 문화가 형성되었다”[116]며 셀사역의 효과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안산동산교회는 다양한 셀 모임과 프로그램이 교회 전체적으로 접목되어 공동체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안산동산교회의 사역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주중 셀모임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회에도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모임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성장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연구자가 안산동산교회에 부임했을 당시 놀랐던 것은 다수의 성도들이 각자 연결된 셀모임(남자셀, 여자셀, 부부셀 등)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안산동산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모든 성도가 셀모임을 필수적으로 참석하고, 큐티를 생활화하며, 한 주간 말씀과 큐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셀 모임에서 서로 나누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셀은 금요일 오전과 저녁에 모이게 되는데, 2시간 정도 진행되는 모임은 ‘Welcome(아이스 브레이크)’, ‘Worship(찬양과 경배)’, ‘Word(말씀나눔)’, ‘Work(기도사역)’의 순으로 4W형식으로 진행된다.

모임의 내용은 안산동산교회 큰숲출판사에서 매월 발행되는「큰숲맑은샘」을 활용하여 진행된다. 성도들은 큐티를 통하여 개인의 경건생활 힘쓰고, 말씀묵상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한다. 이후 주중 또는 주일 셀모임에 모여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온 한 주간의

115) Ibid., 24.

116)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115-125.

삶을 나누며 성령의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비전이 담긴 큐티집을 온 성도들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셀모임 안에는 담임목회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같은 비전과 마음이 흘러 갈 수 있는 것이다.[117] 송창근은 큐티를 중심으로 한 셀모임에 대하여 "안산동산교회에서 편집한 교재를 통하여 1년 동안 수요예배에서 설교하고, 그것으로 셀 모임을 했다. 수요예배에서 듣고, 지역장 모임과 순장 모임에서 나누고, 이렇게 셀모임에서 1년 동안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셀 모임의 역동성을 경험하고, 셀의 정신이 새롭게 회복되고 흘러갈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118]

(2) 셀리더 교육 및 훈련

ⅰ) 주중 셀리더 모임

안산동산교회에 셀모임의 핵심은 경험이다. 김인중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며 또 그 아버지 마음을 본받아 다른 지체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다락방 셀모임이다"[119]라고 말한다. 이러한 목회철학 때문에 안산동산교회는 모든 사역과 모임에서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한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들에게 단순히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강의하거나 전달하기보다는 리더 셀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비전이 젖어 들고 흘러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안산동산교회는 리더모임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한 주간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통일성있게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매주 금요일 새벽시간에 담임목사와 팀장목사들이 '대교구리더모임'이란 이름으로 셀모임을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눈 말씀묵상과 사역내용을 가지고 팀장목사들은 각 대교구별로 연결된 교역자들과 '대교구 셀모임'(매주 토요일)을 진행한다. 이후 교구 목사들은 지역장들과 매주 화요일에 지역장 셀모임을 가지며, 지역장들은 교구 목사와 함께 나눈 말씀과 사역내용을 바탕으로 셀리더모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셀리더는 각자 맡은 셀원들과 셀모임을

117) 안산동산교회, "셀과 양육"〔온라인자료〕 http://www.d21.org/02cell_training/dschurch_cell.aspx. 2020년 2월 6일 접속.

118)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119.

119)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32.

주중에 모이게 된다.

앞서 언급한 모든 모임들의 내용은 큐티를 활용한 말씀과 삶의 나눔을 기본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리더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여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각자가 연결된 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기 때문에 셀정신과 교회비전, 담임목사의 중요한 목회 가치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 흘러갈 수 있는 것이다. 송창근은 안산동산교회 리더모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셀교에서 셀 리더에게 전달해야 할 가치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담임목사의 셀에 대한비전 나누기이고, 두 번째는 셀모임을 통한 셀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셀 리더 모임은 담임목사의 비전 나누기에다 셀을 인도할 수 있는 교안을 가르쳐 주는 정도로 끝낸다. 그러다 보니 셀의 파워를 경험시켜 줄 수가 없다. 셀교회는 셀 리더들에게 셀의 역동성을 강의가 아니라 셀 모임 안에서 경험시켜 주어야 한다.[120]

ii) 연중 셀리더 교육

셀리더들의 영적성숙과 책임있는 헌신을 위하여 연중 2회 셀리더 교육이 실시되는데, 전반기에는 건강하고 성숙한 셀을 만들기 위하여 셀리더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제공을 목표로 강의중심으로 진행되지만, 후반기에 실시되는 셀리더 교육은 셀리더들이 스스로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도록 자연경관을 돌아볼 수 있는 쉼의 시간을 함께 가진다. 셀교회로 유명한 지구촌교회 이동원은 셀리더 훈련에 대하여 “협력과 동역을 통해 그리고 어렵더라도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의 간증을 통해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며, ‘healing’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121]고 말한다. 이처럼 동산교회의 셀리더 집중훈련은 담임목사의 강의를 통하여 주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공동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셀리더 상호간의 돌봄과 섬김으로 인하여 서로 하나 됨을 느끼고 셀을 돌보며 경험한 여러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사역의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

120)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116.

121) 이동원 외, 「지구촌교회의 목장이야기」 (서울: 요단, 2015), 151.

(3) 셀 행복파티

안희묵은 셀을 통한 관계전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목장을 통한 증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증거는 교회 전도 프로그램과 관계 중심 전도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전략이라도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전도의 기본은 관계입니다”[122]라고 강조한다. 안산동산교회는 이러한 관계전도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모든 셀 마다 매년 셀 행복파티를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컨셉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그룹중심의 불신자초청 전도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 전체적으로 기도, 만남, 초청이라는 통일된 세가지 컨셉의 시나리오가 일괄적으로 교구목사에게 전달은 되지만, 지역장, 셀리더 훈련을 통하여 셀 자체적으로 충분히 행복파티를 계획하여 전도대상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소 안산동산교회 성도들은 지역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이웃초청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기도 하고, 이미용 봉사 및 반찬나눔, 소외된 이웃과 노인,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도 소그룹인 행복파티와 교구 전도축제인 행복페스티벌에 전도대상자들을 연결하여 ‘관계와 섬김을 통한 전도’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123] 송창근은 행복파티의 효과에 대하여 “교구별 행복파티는 교구목사와 교구 식구에게 전도에 대항 자발성을 심어주고, 초청하는 셀마다 전도의 방법과 불신자들을 대하는 부분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되었다. 이런 것이 쌓이면 전도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셀이 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124]고 주장한다. 이렇게 셀 행복파티는 안산동산교회의 셀비전을 성취하고, 교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 기타 프로그램

안산동산교회에서는 다양한 셀 중심의 모임들이 연중 진행이 되는데, 가정행복학교, 어머니학교,

122) 안희묵, 「교회, 다시 꿈꾸다」, 184.

123) 안산동산교회, “교회비전”〔온라인자료〕 http://www.d21.org/01intro/vision.aspx. 2020년 2월 7일 접속.

124)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122.

행복한부부세미나, 시장학교 등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125] 이러한 과정은 성도들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시켜주며,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소그룹 안에서 배워 나가고,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만난 또 다른 영적 가족들을 통해서 가족의 중요성과 가정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4) 셀사역 평가

안산동산교회 원로목사 김인중은 안산동산교회가 셀 교회로 전환한 2000년대 초창기를 회고하며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회 부흥의 비결에 대하여 '셀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셀 사역의 긍정적인 열매와 평가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99년 약 870개의 소그룹이 있었다. 장년 5000명이 출석하던 시기다. 근데 셀 리더 200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더라. IMF 구제 금융 이후 여자 순장 200명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맞벌이 전선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경제적 어려움이 제자의 길을 막는구나' 깨닫게 됐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치고 쓰러지는 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성경 공부만 하는 자리였다. 그러다 보니 1년을 모여도 공동체 안에서 고백이 없었던 것이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서로 통하게 돼 있다. 바로 그것이 비결이다. 사람들은 종류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억울함과 아픔이 있다. 가족 같은 셀에서 아픔을 나누고 마음을 합해 기도할 때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다. 가족은 끝까지 상호 책임을 진다. 아버지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상호책임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셀의 역동성이 나타난다.[126]

또한 안산동산교회의 부교역자로 십여 년을 사역하며 김인중과 함께 청년부에 가장 먼저 셀을 도입하고, 미래목회연구소 소장으로 셀 사역에 집중한 송창근은 동산교회 셀사역의 전반적인 평가를 교회 외적인 성장을 넘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안산동산교회 성도 안에 내 교회를 넘어 형제 교회, 지역의 교회, 한국 교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가치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했을 때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복음의 가치는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쟁취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안산동산교회를 통해 셀과 큰숲운동의 정신이 수많은 한국 교회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 한 그루의 큰 나무가

125) 안산동산교회, "동산상담소"〔온라인자료〕 http://mentor.d21.org/Web/Edu/Edu_happyFamillySchool. 2020년 2월 7일 접속.

126) 국민일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 〔온라인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1679176. 2020년 2월 7일 접속.

아니라 수많은 작은 나무들이 큰숲을 이루는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다.[127]

박용규는 “김인중이 2007년 기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셀교회로 전환하면서 외적인 성장을 했지만 무엇보다 예배의 변화, 성도의 변화가 가장 큰 성과였다. 다락방(셀 그룹)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비전을 세우고,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128]고 평가하였고,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기쁨의 동산교회 담임 김광이는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할 초기, ‘이빨’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주도형 목회를 펼쳤지만, 셀은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동체적 목회를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였다.[129]

현재 안산동산교회는 37년동안 사역한 김인중 목사의 은퇴로 후임 김성겸 담임목사가 부임하여 3년째 목양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 내 일부 교회들이 세대교체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안산동산교회에 대한 교계의 긍정적 평가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며, 셀을 생활 속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안산동산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를 흔들림 없이 섬기고 지켜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셀의 본질과 시스템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하여 안산동산교회를 찾아오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비전이고 교회의 본질이기에 안산동산교회의 셀사역을 꾸준히 연구하고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2. 비전이 이끄는 말씀사역

연구자가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당시 담임목사였던 김인중은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울리든지, 웃기든지, 손을 불끈 쥐게 만들든지 이렇게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127)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313.

128)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279.

129) 기독신문, “우리 시대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13)기쁨의동산교회” 〔온라인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45, 2020년 2월 13일 접속.

부교역자들을 가르쳤는데, 김인중은 이런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회철학과 비전을 말씀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흘려보낸 것이다. 박용규는 "김인중의 설교는 체험에서 나온 가슴으로 외치는 설교, 복음적 신앙에 기초한 설교, 삶과 실천으로 준비한 설교, 희망과 꿈이 가득한 비전이 이끄는 설교,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내용이 분명한 설교다"[130]라고 강조하며 말씀을 통하여 안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비전을 가질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안산동산교회의 말씀사역을 통하여 비전이 교회와 각 개인에게 어떻게 공유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반적인 배경과 이해

김인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열정과 비전의 목회자이다. 오랫동안 김인중과 함께 한국교회의 리더로 섬겨온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이동원은 김인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김인중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두 단어는 "열정과 비전"입니다. 안산동산고등학교와 안산동산교회는 바로 이런 열정과 비전의 산물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력함 속에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안산동산교회의 스토리는 한국교회를 열정과 비전으로 기름붓는 한 동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131]

김인중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면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힘을 다해 외쳤다"[132]고 말할 정도로 그는 주로 설교강단을 통해 전도에 대한 목회철학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한 것이다. 특별히 셀을 교회에 도입한 이후부터는 셀 목회에 대한 자신의 확신과 철학을 매 주일 설교강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셀 교회로서의 체계와 교회 모습을 공동체 속에서 갖추어 가고자 말씀사역에 초점을 두었다.[133] 이렇게 김인중은 교회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130)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408.

131) 크리스천투데이, "불모지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 안산동산교회 30주년" [온라인자료]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02813. 2020년 2월 8일 접속.

132) 김인중,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 (서울: 규장, 2011), 161.

133)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390.

붙잡고 달려가야 할 비전이 있다면 주일예배 강단, 리더교육훈련, 당회원 및 교역자 워크숍, 제자훈련 및 양육, 세미나 등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의 비전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한 것이다. 현재 안산동산교회는 김인중을 원로로 추대하고, 김성겸이 제2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담임목사의 철학과 비전이 설교와 말씀사역을 통하여 이어져가고 있다.

2) 말씀사역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안산동산교회의 3가지 비전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둘째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마지막 세번째로 미래를 열어가는 것”[134] 이다. 김인중은 그의 설교에서 이러한 교회의 목적과 비전이 모든 성도들에게 각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선포하였고, 성도들을 하나님나라를 펼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양육하고 세우기 위하여 복음의 열정으로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어디서든지 비전으로 가득한 말씀을 전하였다. 김인중은 “내가 이렇게 강단에서 전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외치자 나타난 반응 중 하나는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도설교를 듣는 중에 그들의 마음이 전도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불타게 된 것이다”[135]라고 회고하며 지금처럼 안산동산교회가 전도에 열정적이며 부흥하고 성장한 원동력은 바로 ‘비전이 이끄는 설교’ 였음을 주저없이 강조한다.

이렇게 김인중의 목회 철학과 비전은 자신의 설교와 안산동산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광범위하게 반영되었다. 연구자가 9년 가까운 기간 동안 김인중과 함께 사역하면서 때때로 그는 과하다 싶을 만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지속, 반복적으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이런 집요한 비전집중설교는 안산동산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신선한 도전을 주었는데, 특히 그는 셀 목회, 교회 개척운동, 학원 사역 등 인재와 성도들을 복음으로 키우는 일을 강조하였다. 박용규는 이러한 김인중의 노력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134) 안산동산교회, “교회비전”〔온라인자료〕 http://www.d21.org/01intro/vision.aspx, 2020년 2월 9일 접속.

135) 김인중,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 170.

> 처음부터 그의 비전이 하나의 구형화된 틀로 다듬어진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하나씩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개척교회, 전통교회, 제자훈련교회, 셀 교회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가졌던 비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교회 비전으로 다듬어졌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비전은 그런 과정을 통해 태동된 산물이었다. 그는 비전에 따라 설교했고, 목회했고, 교회를 이끌어왔다. 동산고 설립, 큰숲운동, 네 차례의 교회분립, 셀 목회 그리고 최근의 복지문화센터는 그의 비전이 만들어낸 걸작들이다.[136]

안산동산교회는 셀로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이다. 특별히 앞서 여러 번 언급하였던 교회의 3대 비전이 성도들의 생각과 삶에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히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사역들이 비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송창근은 안산동산교회가 셀로 전환하는 과정을 회고하면서 김인중이 제직수련회에서 한 비전집중설교가 성도들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 2005년 말, 제직 수련회를 통해 담임목사가 교회 전체에 공식적으로 '셀교회를 선포' 하였다. 4년 동안의 전환 과정을 거쳐서 온 교회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열매와 변화를 경험한 후에 선포한 것이기에 모든 성도들이 셀교회 비전과 가치에 동참할 수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비전과 가치가 어떻게 모든 성도와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다.[137]

안산동산교회는 셀 교회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한 후에, 김인중의 강력한 비전 중심의 설교를 통하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셀 사역의 비전을 은혜롭게 선포하고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김인중의 설교와 강의는 열정적이고, 소탈하며, 경험적이며, 비전 중심적이다. 그렇기에 성도들에게 너무나 잘 들리는 설교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고 그는 단순히 성도들이 외칠 수 있는 구호나 표어를 비전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김인중의 설교와 안산동산교회의 사역에는 모든 성도들이 실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할 비전이 스피릿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전략과 다양한 방법들이 끊임없이 말씀과 강의로 성도들에게 제시되었던 것이다.

---

136)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410.

137)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149.

3) 말씀사역 및 프로그램

안산동산교회의 부흥의 핵심 중 하나는 김인중의 비전 중심적 설교와 강의에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 감동과 영향을 받은 많은 부교역자들이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교구와 사역팀에서 같은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성도들의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동산교회의 말씀사역의 영역은 참으로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눌 수 있다.

(1) 비전집중설교

김인중에게 있어서 주일 강단은 하나님이 자신과 교회에 주신 비전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성도들에게 비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였다. 특별히 그는 매년 초가 되면 교회 표어와 목표에 부합한 비전집중설교를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이 기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안산동산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시해 준다. 김인중의 목회사역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한 박용규는 김인중의 비전집중설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며 설명한다:

> 김인중은 개척 이후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주일 강단을 통해 동산교회의 이상과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1994년 7월 17일 아가서 4장 12-16절의 본문을 가지고 "21세기를 준비하는 동산교회"라는 설교를 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동산교회의 꿈', '동산교회의 비전', '동산교회 교인들이여 꿈을 가져라'는 설교를 반복적으로 강단에서 외쳤다. 처음에는 자주하다 그 다음에는 1년에 한 차례씩 하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2년 혹은 3년에 한 번식 비전 설교를 했다.[138]

김인중의 비전집중설교는 매년 안산동산교회의 사역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모든 교회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또한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삶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올려 참 신자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져온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의 설교는 다분히 실제적이고 도전적이다. 그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된다. 김인중이 2013년도에 실시한 비전집중설교를 책으로 엮은

138)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386.

「김인중 목사의 희망도시 선포」를 보면 김인중 목사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성도들에게 촉구하며 설교를 통하여 대사회적인 성도들의 삶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우리는 지난 35년간 '나눔과 섬김으로 세상을 살리자'는 사명으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무한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사명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일을 행하고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최후 승리는 여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저 멀리에 있습니다. 특히 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 성시로 만드는 일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우리는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139]

(2) 비전의 방

송창근은 "비전이라는 것은 모든 사역과 중 장기적인 목회 방향뿐 아니라 매년 수립되는 계획에도 전략이 되어 흘러가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비전이 될 수 있다"[140]고 강조한다. 안산동산교회는 이렇게 매년 수립되는 계획과 전략을 그 어떤 교인들보다 먼저 교회와 셀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셀리더들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설명한다. 특별히 매년 초에 진행되는 '비전의 방'은 담임목사가 어떤 목회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이끌어 갈 것인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리더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안산동산교회 담임목사는 매주 교구수요기도회에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한 교구씩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적인 진행은 담임목사가 직접 사회를 보고 인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셀리더들은 담임목사의 비전설교를 들으며 교회의 중요한 정책과 담임목사의 사역방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셀리더들은 담임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또 다른 격려와 위로,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이후 진행되는 기도회는 셀리더들이 지속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함께 섬기는 리더들과 교회의 비전에

---

139) 김인중, 「김인중목사의 희망도시 선포」 (시흥: 가나북스, 2014), 11.

140)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94.

동참하고자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 연구자는 당시 부교역자로 비전의 방을 준비하고 참석하면서 담임목사 김인중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부교역자로서 셀리더들과 함께 교구를 어떻게 섬기고 이끌어 가야 할지 깨닫고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3) 리더십 워크숍

연구자가 생각하는 안산동산교회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리더십의 소통'이다. 안산동산교회는 당회원 및 교역자 워크숍, 전체 교역자 워크숍, 전체 교구지역장 워크숍 등 다양한 리더십그룹의 모임을 통하여 교회의 명확한 비전과 목회철학이 함께 공유되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다. 송창근은 안산동산교회의 리더십 워크숍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운영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증언해주고 있다:

> 과거 GE의 CEO였던 젝 웰치가 기업에서 조직과 조직,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 사용했던 커뮤니케이션 기법인 WORK-OUT(사원을 정리하는 work-out과 다름)을 도입하여 비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갔다. 미래목회연구소에 '비전 구체화' 팀을 만들어 WORK-OUT 전문 강사인 박원호 장로가 담당했다. 매년 봄과 겨울에 핵심기관의 부서장, 당회원, 목회자, 여러 부서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비전에 따라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고, 잘 진행되는지를 피드백한다. 그리고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지 WORK-OUT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해결하도록 계속 지원한다.[141]

현재 안산동산교회에는 대부분의 부서와 기관이 사역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소통의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었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반 위에 교회 비전이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이 교회의 다양한 워크숍 그룹에 참석하여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강의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각 그룹별로 주제토론을 자유롭게 하며, 각 그룹에서 나온 대화들은 발표를 통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발표된 여러 내용들은 서로 비슷하거나 일치된 내용들로 다시 분류하여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도출된 여러 정책과 방향들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 교회의 실행목표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리더십들이 먼저 담임목사의 말씀을 청취함으로 비전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141) Ibid., 95.

대화로 함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기 위하여 여러 방법들을 찾아가는 절차들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회의 변화를 시도한다.

(4) 기타

안산동산교회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담임목사의 비전설교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직 세미나, 셀리더 세미나, 새가족 수양회, 전도 수양회, 큰숲 회복수양회(내적치유 수양회), 큰숲 비전수양회(생수의 강) 등이 바로 그것이다.[142] 안산동산교회는 이같은 세미나와 수양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담임목사가 특별히 강조하는 비전과 목회철학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공동체적 신앙훈련을 시키고 있다.

4) 말씀사역 평가

김인중은 탁월한 주해를 한다거나 성경을 세밀하게 설명하는 강해설교가는 아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뛴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말씀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박용규는 김인중의 개척초기부터 설교와 특별히 셀전환 이후의 설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연구에 의하면 '김인중 설교'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강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그에게 주일강단은 거룩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때로는 특정성경(복음서, 사도행전, 시편)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향이라던가, 때로는 시간이 길고 짜임새가 부족해 느슨하고 엉클어지고 흐트러지고 산만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의 설교의 약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가 지난 30년 동안 비전이 있는 설교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2002년 이후 그는 식상할 정도로 교회 비전을 강단에서 반복적으로 전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그의 목회는 비전이 이끄는 목회였고, 그의 교회는 비전이 이끄는 교회였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비전이 이끄는 설교라고 할 수 있다.[143]

김인중의 설교는 특별하지 않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142)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85.

143)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410.

헌신하게 하는 힘이 있고, 강력한 주님의 제자로 무장하여 세상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주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강하게 해준다. 특별히 김인중의 설교와 강의는 함께 사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 매우 큰 감동을 주어 비전에 동참하게 하고 사역을 보다 자발적이며 진취적으로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연구자도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부교역자들이 김인중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비전을 향해 최선을 다해 즐겁게 헌신하고 사역하는 모습에 진한 감동을 받았다. 부교역자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철학이나 사역의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와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러한 안산동산교회 교역자들의 모습은 부흥과 성장을 사모하는 많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송창근은 김인중에게 훈련받은 안산동산교회 부교역자들의 비전중심적인 사역에 대해서 “교역자실 안에서 셀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셀에 관련된 책과 강의 테이프를 듣고, 셀 세미나도 참석하고, 「제2의 종교개혁」, 「셀교회 지침서」와 같은 책을 읽고 토론했다. 셀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교역자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그룹별로 셀 전화 교재인 「신병 훈련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교재로 삼아 나눔도 가졌다”[144]고 회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담임목사의 비전과 목회철학에 함께 공감하고, 부교역자들이 그 비전과 목회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드러내며, 교회안에 비전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는 사역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3. 비전이 이끄는 양육과정

김인중은 “성도를 훈련하는 목적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움에 있다”[145]고 강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리더를 세우는 평신도 제자훈련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사역이야 말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역임을 주장하였다. 특별히 김인중은

144)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49.

145) 김인중,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 200.

“작은 변화와 열매가 있을 때 계속 내달려야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며 교회 전체적으로 셀이 긍정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셀리더들을 더욱 영적으로 키울 수 있는 양육훈련과정을 신설하여 셀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146] 이렇게 안산동산교회는 제자훈련이 도입되었던 초기부터 셀 양육과정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이 잘 흘러가는 건강한 비전공동체를 지향해 나가고 있다.

1) 일반적인 배경과 이해

안산동산교회는 창립이후 급속도로 부흥하였는데, 김인중이 “교회에 찾아온 부흥은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소그룹 체제와 평신도 훈련의 시작이 그것이다”[147]라고 강조한 것처럼 안산동산교회의 부흥에는 양육훈련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안산동산교회는 새롭게 찾아온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연결하고, 그들을 양육 훈련하여 리더로 세우는데 많은 헌신을 하였던 것이다. 이 때의 상황을 박용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교회의 급속한 양적 성장은 새로운 패턴의 목회를 요구했다. 그 동안 김인중 목사와 이재순 사모가 주도하던 복음전도운동이 평신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했고, 교회에 영입된 이들과 평신도들을 훈련시킬 체계적인 신앙훈련이 요청되었으며, 가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사역 훈련이 필요했다. 늘어나는 가중된 사역 속에서 설교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이 요구되었다. 이런 일련의 요청은 고잔동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더욱 강하게 일어났다. 이런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도와 양육을 병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래서 적용한 것이 다락방 체제였다. 먼저 전도하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되, 특정한 개인이나 전도대에 전도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인 다락방을 중심으로 연결해 주었다. 이렇게 새신자가 다락방 모임과 바로 연결되고, 빠른 시기에 양육과 세례를 받게 하고, 이후 다락방의 순장으로 세웠다.[148]

박용규의 말처럼 안산동산교회는 교회의 성장의 시기마다 그 단계에 맞는 양육과정을 시행함으로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려 주었으며,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갔다. 한편 안산동산교회는 셀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대대적인

146) Ibid., 90.

147)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9.

148)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138-9.

양육훈련과정을 본격적으로 다듬게 되었는데, 당시 접목하고 있던 사랑의 교회 옥한흠 목사가 했던 제자훈련을 셀 교회의 원리와 조직, 체계를 적용한 안산동산교회에 맞는 양육체계로 변환한 것이다. 송창근은 안산동산교회의 셀 양육과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말한다:

> 셀교회에는 필수적인 셀 양육 과정이 있다. 안산동산교회의 셀 양육 과정은 2002년 말에 처음 만들어져 전체적으로 3번정도 수정, 보완했다. 처음 만들 때는 주로 외국의 여러 셀 교재들을 참고해서 셀 사역의 핵심적인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 아바러브교회의 담임목사인 에디 목사의 충고처럼 동양인의 사고와 안산동산교회에 맞는 패턴을 찾는 것이었다.[149]

안산동산교회의 양육과정은 철저하게 셀의 비전이 반영되어 구체적인 제자훈련 과정으로 나타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영적 리더의 삶을 살아가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도 전문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

2) 양육과정이 교회에 미친 영향

안산동산교회의 양육과정은 새가족 등록, 셀 기초과정, 셀 성장과정, 셀 후원과정, 셀 리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수양회를 통해 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안산동산교회는 이런 양육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고 있다.[150] 김인중은 “양육 단계만으로 리더를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각종 훈련을 이수한 성도가 리더의 기본을 갖춘 것은 사실이지만, 이론으로 얻은 지식과 정보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151]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김인중은 양육이란 단순한 지식의 배움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로서 소양을 갖추어 공동체 속에서 어린 신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성숙한 리더로 세우는 목양사역에 직접 동참하는 것이라는 양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김인중은 그의 책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에서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149)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144.

150) 안산동산교회, “양육소개”〔온라인자료〕 http://www.d21.org/02cell_training/celltraining_intro.aspx. 2020년 2월 11일 접속.

151) 김인중,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 207.

안산동산교회 장로의 한 일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우리 교회 장로들은 대부분 지역장 혹은 셀 리더 출신이다(제자훈련 때부터 사역했던). 그래서 현장 감각이 뛰어나다. 우리 교회의 젊은 장로 그룹에 해당하는 한 분이 "목사님, 장로 되고 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요즘도 매주 교구에서 셀 순회를 하지만, 제가 지역장이었을 때는 아무 문제없었는데 장로가 셀 순회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눈치만 봐서 영 불편합니다"라고 했다.[152]

안산동산교회는 제자훈련으로부터 현재 셀 양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이다. 많은 교회들이 양육과정을 단순히 성도들의 신앙훈련을 위한 성경공부과정으로 활용하는 반면, 안산동산교회는 개인의 신앙의 지식과 삶을 넘어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성숙한 신자로 섬기도록 도울지 고민하며, 특별히 셀 공동체 안에서 영적 아비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하며 훈련하고 있다. 송창근은 안산동산교회의 셀 양육과정을 소개하면서 현장성 있는 리더로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확고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셀 양육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다. 셀의 본질과 정신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리더를 만드는 것이다. 양육과정이 완벽하다고 모든 셀 모임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장의 셀 모임이 건강할 때 비로소 양육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양육과정은 하나의 훈련소와 같다.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아도 자대에서 훈련받은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안산동산교회도 처음에는 양육 과정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다. 그러나 양육 과정이 훌륭하다고 셀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시간이 갈수록 현장의 헬 모임과 교구사역을 발전시키는데 더 집중했다.[153]

송창근의 평가처럼 안산동산교회는 양육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한 성도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훈련받은 성도들을 셀과 교회의 다양한 봉사부서에 연결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받은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 구석 구석 균형잡힌 사역을 하다 보니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역동성이 가득한 활기찬 교회가 되고 있다. 김인중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 간의 '상호책임'을 강조하는데, 양육과정을 통하여 세워진 성숙한 셀리더의 가치를 다음과

152) **Ibid.**, 208.

153)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146-7.

같은 미담으로 소개하고 있다:

> 우리교회 이 집사님은 20여 년 동안 헌신하며 눈물로 성장시킨 사업장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분 가정에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곧 대학에 들어갈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이런 가족들을 생각하니 그저 답답하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정형편을 셀 리더인 박 집사님과 셀원들이 알게 되었고, 셀원들은 힘을 합쳐 그 가족들이 당장 살만한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셀원들 중 학원 운영을 하던 최집사님은 고3 수험생 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셀원들이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안타까워하며 이 집사님의 가정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셀원들도 그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담임목사로서 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154]

이처럼 안산동산교회의 양육과정에는 김인중이 항상 강조하는 '책임지는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목회 철학이 충분히 담겨 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 양육과정 및 프로그램

(1) 신앙 기초과정

안산동산교회 양육과정은 크게 신앙 기초과정, 셀 양육과정, 교육과정으로 나뉜다. 신앙 기초과정은 교인들의 필수과정으로 새가족 교육을 통해 신앙의 기초과정을 배우고, 성경학교와 기도학교를 통해 신앙생활의 기본인 기도와 말씀 묵상에 대하여 훈련받게 된다.[155] 교육은 총 16주간 진행되며, '새가족모임 (4주)', '성경학교 (4주), '기도학교 (4주)'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156] 안산동산교회 교인들에게 이 과정은 필수이며, 신앙기초과정을 이수한 성도들에 한해서 셀 양육과정에 신청하여 리더로 훈련 받을 수 있게 된다.

---

154) 김인중,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 102.

155)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189.

156) 안산동산교회, "신앙기초과정"〔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300/A00/cellbasic_newfamily.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ⅰ) 새가족모임

새가족모임은 안산동산교회를 등록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며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필수 단계이다. 새가족은 4주 동안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구원의 확신과 성도로서 가져야 할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여 나가는 훈련을 받게 된다.[157]

ⅱ) 성경학교

성경학교는 새가족모임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는데, 교육은 성경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성경의 전체적인 개관을 통해 성경에 대한 관심과 묵상을 훈련할 수 있도록 총 4주 동안 진행된다.[158]

ⅲ) 기도학교

기도학교는 성경학교처럼 안산동산교회 성도들이 참석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양육과정이다. 새가족모임을 마친 성도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도의 본질',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생활화' 등 기도의 첫걸음부터 세밀하게 4주 동안 교육한다.[159]

(2) 셀 양육과정

김인중은 모든 성도들이 동등한 사역자임을 강조하며 "평신도, 교사,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은 더 중요하고 어떤 사역은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160]고 말하였다. 셀 양육과정은 이런 김인중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총 4단계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은 리더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157) 안산동산교회, "새가족모임"〔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300/A00/cellbasic_newfamily.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158) 안산동산교회, "성경학교"〔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300/A00/cellbasic_bibleschool.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159) 안산동산교회, "기도학교"〔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300/A00/cellbasic_prayerschool.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160)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91.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마친 사람은 실제로 셀 안에서 리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양육의 가치로 생각한다. 따라서 훈련생들에게 양육을 받는 동안 셀 경험과 현장 실습의 기회가 제공된다.[161]

ⅰ) 1단계: 셀 기초과정

셀 기초과정은 신앙의 기초반을 마친 사람들에게 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진리를 가르친다. 후원자와의 인격적인 5주간의 만남을 통하여 깊은 나눔과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62] 이와 더불어 5주의 훈련이 끝나면 1 박 2일 동안 후원자와 피후원자가 큰숲회복수양회(내적치유수양회)를 함께 참석하게 된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 용서, 승리, 그리고 능력을 사모하여 강의를 들으며 기도하게 된다.[163]

ⅱ) 2단계: 셀 성장과정

셀 성장과정은 '그리스도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신앙의 기본생활', '그리스도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소통-DISC',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소통-대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덕목',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이루어져 있다.[164]

ⅲ) 3단계: 셀 전도과정

셀 전도과정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양육과정이다. 3단계 양육생들은 1단계와 동일한 강의 내용을 듣게 되지만, 이번에는 피후원자가 아닌 후원자로

161) 안산동산교회, "셀양육과정"〔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300/B00/bringingup_step1.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162) 안산동산교회, "셀기초과정"〔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300/B00/bringingup_step1.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163)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189.

164) 안산동산교회, "셀성장과정"〔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300/B00/bringingup_step2.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참석을 하여 한 영혼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영적 아비의 마음을 함양하게 된다.[165]

ⅳ) 4단계: 셀 리더과정

셀 리더과정은 셀 리더로서의 소명과 비전을 함양하고, 셀 리더의 자질과 역할을 훈련한다. 셀을 은혜롭게 잘 인도하고 돌볼 수 있도록 셀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이론과 나눔을 통해 셀을 경험하도록 한다.[166]

ⅴ) 생수의 강

송창근은 안산동산교회의 생수의 강에 대하여 "셀 양육가정에서는 리더십 수양회 단계이면서, 3박 4일의 빠른 시간에 셀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경험시켜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로 적셔서 셀에서 깊은 문제까지 나눌 수 있는 셀의 전도사격이 되는 수양회다"[167]라고 소개한다. 양육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훈련생들은 이 생수의 강 프로그램을 통하여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먼저 섬김을 받음으로 깨닫게 되고,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섬김을 각자가 연결된 셀이나 사역의 영역에서 받은 데로 흘려 보내게 된다.[168]

(3) 바이블칼리지 교육과정

바이블칼리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개설이 되며,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며, 성경 각 권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셀 안에서 성경적인 셀을 세워나가기 위한

165) 안산동산교회, "셀전도과정"〔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300/B00/bringingup_step3.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166)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189.

167) Ibid., 86.

168) 안산동산교회, "생수의강"〔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200/D00/stone_water_about.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과정이다.[169] 안산동산교회의 바이블칼리지에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현재 구약 탐구, 신약 탐구, 사무엘하, 로마서, 교리대학 등이 개설된다.[170]

4) 양육과정 평가

김인중은 한 세미나에서 안산동산교회가 셀을 도입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영어 단어 셀(CELL)은 우리말로 세포다. 몸의 세포가 분열하면서 사람이 성장하듯 소그룹(CELL)이 마치 세포분열을 하듯이 건강하게 나눠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셀의 가치를 성숙한 공동체로 평가하며, "셀의 본질은 관계회복을 통한 성숙이며, 부흥이라고 포장된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171] 연구자가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김인중은 오직 영혼구령에 대한 열정과 셀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한 영혼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세우는데 관심이 많은 목회자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김인중이 말하는 것처럼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어 셀이 성장해 성숙하면 양적인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172] 이다. 박용규는 안산동산교회가 말씀 훈련에 집중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지 제자훈련의 열매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안산동산교회는 제자훈련을 도입하던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안정과 성장을 병행할 수 있었다. 제자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기간에는 동산교회가 과거처럼 전도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교세는 1988년 1,416명에서 1994년 3,391명으로 2배가 성장했고 다시 1997년 4,618명으로 성장했다. 제자훈련을 실시하여 교회가 건강한 체질로 바뀌는 동시에 대각성전도집회를 통해 꾸준하게 새신자들이 교회에 영입되어 안정과 교세 증가를 동시에 이루 수 있었다. 제자훈련으로의 체질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안산동산교회는 그 거대한 자금과 막대한 에너지가 요청되는 동산고등학교 설립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돌이켜 볼 때 제자훈련의 도입과 대각성전도집회의 실시 등 교회 전반을 제자훈련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했다. 온 교우들은 김인중의 비전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안산지역과 한국교회, 더 나아가 한국민족을 위해 동산교회가 감당해야 할

169) 안산동산교회, "교육과정"〔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300/C00/education_biblecollege.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170) Ibid.

171) 기독공보, "교회 성장만이 목표는 아니다" 〔온라인자료〕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5819342933, 2020년 2월 8일 접속.

172) Ibid.

> 일종의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고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했다.[173]

박용규의 평가처럼 안산동산교회는 꾸준히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했을 때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괄목할만한 외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자훈련을 통한 말씀교육이 안산동산교회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유익은 담임목사의 비전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안산동산교회가 초기에 집중했던 제자훈련은 김인중의 중반기 사역 이후의 가장 큰 목회가치였던 셀 교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송창근은 제자훈련이 안산동산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제자훈련을 받는 2년 동안 아프지도 말고, 애 낳을 계획도 세우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헌신을 강조했다. 이때 제자훈련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순장으로, 교회의 봉사자로 세워졌다. 제자훈련과 함께 QT, 베델, 크로스웨이, 인간 이해와 다양한 상담은 온전하고 통합적인 성도로 자라가게 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김인중 목사는 강해설교에 도전을 받고, 매 주일마다 성경을 권별로 강해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은 안산동산교회가 중소 도시의 교회를 넘어 대형교회, 그리고 셀교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174]

김인중은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 성숙을 도모하는 사역에 집중하였고, 안산동산교회는 양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가면서 성도들의 개인의 성숙뿐 아니라 김인중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우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비전이 이끄는 양육과정은 바로 안산동산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이다.

4. 비전이 이끄는 큰숲운동

김인중은 셀 목회로 전환하면서 끊임없이 교회 본질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고민의

---

173)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169-70.

174)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23.

결과가 바로 ‘큰숲운동’이다. 안산동산교회는 단순히 대형교회를 목표로 성장 일변도의 사역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한 시대적 부르심’[175]에 집중했고, 지역교회와 더불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다. 김인중은 “지금까지는 내 교회만 성장시키는 큰나무운동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역 사회를 위해 모든 교회가 함께 가는 큰숲운동에 주력할 것입니다”[176]고 말하며 큰숲운동이 자신과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본질임을 강조했다. 연구자는 본 장에서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 한 목회자의 비전이 교회를 넘어 이제는 한국 교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려 한다.

1) 일반적인 배경과 이해

아무리 크고 무성한 나무라도 그 나무는 끊임없이 계속 자랄 수는 없다. 그래서 “한 나무만 집중적으로 키우는 전략보다는 여러 나무들이 숲을 이룰 수 있는 전략”[177]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큰숲운동이다. 김인중은 안산동산교회를 셀교회로 전환하면서 끊임없이 셀의 본질을 추구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그에게 아바러브교회의 에디레오 목사와 홍콩 목자교회의 벤웡 목사는 중요한 셀의 가치를 깨닫게 해 준 목회자들이다. 김인중에게 미친 이들의 결정적 영향에 대해 송창근은 이렇게 증언한다:

> 안산동산교회에서 두 교회를 지속적으로 탐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몇 번의 기회를 통해 두 지도자는 안산동산교회에서 강의와 컨설팅, 담임목사 부부와 교제하면서 “셀의 우선순위는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위한 것이다. 또한 셀의 진정한 열매는 숫자가 아니라 셀이 또 다른 셀을 개척하고,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교회와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함께 섬기는 것이다”라는 셀의 본질을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교회가 셀을 통해 성장과 부흥은 강조하지만, 셀의 본질이 취약한 것을 늘 가슴 아파했다. 두 지도자는 말과 함께 그들의 목회를 삶으로 보여주었다.[178]

김인중은 에디레오와 벤웡 두 목사가 말한 교회와 셀의 본질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그는 더

175)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211.

176) 국민일보, “안산동산교회 올해 창립 30주년 목회 노하우 지원 큰숲운동 펼쳐” 〔온라인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1310171. 2020년 2월 12일 접속.

177)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218.

178) Ibid., 215.

이상개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목회자가 아닌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는 목회자가 되었다. 연구자가 김인중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로부터 들었던 가장 많은 말은 '한국 교회, 안산의 변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등 민족과 지역을 변화시킬 교인들이 가져야 할 삶에 대한 고민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교회의 선한 영향력에 대하여 김인중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책을 읽었다. 김인중이 이런 그의 생각들을 큰숲운동을 통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갔는지 박용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더불어 만들어 가는 '큰숲운동'은 좁게는 안산지역의 교회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지만 넓게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셀 목회'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동산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한국민족과 인류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역교회와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교회에 안산동산교회의 셀 목회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안산동산교회가 복음전파, 복음의 순수성계승, 복음의 대사회적 민족적 세계적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런 이상을 가진 건강한 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워 나간다는 것이다.[179]

김인중은 안산동산교회 성도들의 역량을 개인의 영적성장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역과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큰숲운동'을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공유하고 교회 비전으로 함께 실천하도록 하였다.

2) 큰숲운동이 교회에 미친 영향

송창근은 안산동산교회가 큰숲운동을 펼쳐나갈 때 재정적인 문제, 성도들의 헌신을 동참시키는 문제, 교회 전체적으로 함께 뜻을 모으는 문제 등 다양한 갈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라고 고백한다. 하지만 그의 회고에 의하면 김인중은 "나는 성장이 아니라 셀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붙잡을 것이다. 가치라는 것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계속되어야 한다. 나는 남은 목회 10년을 셀과 큰숲운동에 헌신하겠다. 이것은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안산동산교회의 변함없는 가치이다"[180]라고 말하며 결코 큰숲운동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김인중의

179)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282.

180)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219.

비전을 향한 집요한 열정은 안산동산교회 당회원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의 생각을 큰숲 가치에 집중하도록 바꿀 수 있었고, 교회의 사역과 체질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용규는 안산동산교회가 본격적으로 큰숲운동을 실천하게 된 전환점을 안산동산고등학교 설립으로 보고 있는데 교회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995년 동산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교회의 대사회적 민족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설립 이후 고잔동 예배당과 안산동산고등학교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설교를 부목사와 분담하는 시대를 열었다. 부목사를 담임으로 세울 수 있도록 훈련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런 것들이 축척되어 결국 성공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교회를 분립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이와 같은 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은 셀 목회를 도입하면서 '큰숲운동', 셀 목회, 교회분립이 하나의 유기적 연계를 지니며 동산교회를 여느 교회와 차별화시키는 목회비전으로 자리 잡았다.[181]

박용규의 주장처럼 김인중은 성도들의 시선과 생각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돌리도록 노력하였고, 부목사들을 셀정신으로 교육하고 무장시켜 전국 곳곳에서 큰숲운동을 함께 이어나가도록 도와주었다. 안산동산교회 큰숲운동으로 분립개척을 한 기쁨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김광이는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많은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패밀리(가족)의 진정한 열매는 패밀리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패밀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한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182]라고 고백한다. 안산동산교회가 교회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역의 방향을 개 교회를 넘어 지역과 대한민국 전체 교회에 건강한 셀 정신을 흘려 보내는 것에 집중했을 때 '큰숲운동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3) 큰숲운동 및 프로그램

(1) 셀 세미나 및 컨퍼런스

안산동산교회에 셀 목회가 잘 정착하고 다양한 긍정적인 열매가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하자 셀

181)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283.

182) 기독신문, "우리 시대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13) 기쁨의 동산교회" [온라인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45, 2020년 2월 13일 접속.

목회의 경험과 노하우들을 많은 목회자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있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에 안산동산교회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교회가 그동안 경험한 다양한 사역과 가치들을 더불어 공유하고 다른 교회들과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셀이 살아나는 세미나, 교회 리빌딩세미나, 셀리더 세미나, 셀 컨퍼런스 등을 '셀사역훈련원'[183]의 지도하에 개최하고 있다.[184]

특별히 셀 세미나는 현재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셀의 정신과 비전을 흘려 보내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시작 초기에는 2단계로 나누어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 1단계는 셀 사역을 위한 가치전환 단계로서 참석자들이 셀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와 나눔을 듣고 각자 배정받은 소그룹에서 직접 셀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또한 2단계는 셀 양육과정으로 안산동산교회의 셀 양육과정을 직접 배우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85] 하지만 현재 오랜 회차를 거듭한 세미나는 바쁜 목회자들의 사역 일정을 고려하여 3박 4일간의 단회적 세미나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강 3회, 셀 경험강의 10회, 셀 나눔 10회를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셀이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86]

(2) 교회 분립개척

안산동산교회의 큰숲운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할 사역이 있다면 단연 교회의 분립과 개척운동이다. 송창근은 "셀 교회의 목표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건강한 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셀이 셀을 개척하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여 큰 숲을 이루어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187]라고 하였다. 셀의 번식이 교회 내적 열매라면 교회의 번식은 지역과 조국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외적 열매가 아닐 수 없다.

---

183) 안산동산교회 원로목사인 김인중이 사역을 할때는 미래목회연구소를 중심으로 각종 세미나와 큰숲운동이 진행되었지만 현재 안산동산교회 담임목사 김성겸이 취임한 이후에 셀사역훈련원이 신설되어 이곳에서 다양한 셀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진행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184) 안산동산교회, "셀컨퍼런스"〔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200/C00/conference_about.aspx, 2020년 2월 13일 접속.

185)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222.

186) 안산동산교회, "셀세미나"〔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200/A00/cell_experience_about.aspx, 2020년 2월 13일 접속.

187)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234.

이제는 대형교회 한 두 교회가 지역을 감당하고 변화시키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안산동산교회는 이 한계를 빨리 깨닫고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 큰 숲을 이루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감당하자”는 큰숲운동을 현재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188] 이 운동으로 현재까지 안산동산교회는 시화동산교회, 은혜의동산교회, 기쁨의동산교회, 블루라이트교회, 더불어숲동산교회, 회복의동산교회, 복음의빛동산교회, 그린시티교회, 더행복한교회, 동탄동산교회, 날마다교회, 배곧동산교회 등 12개의 교회를 분립개척하여 거룩한 숲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있다.[189]

(3) 큰숲 네트워크

연구자가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보았던 여러 다양한 모임 중에 가장 참석하고 싶었던 모임이 큰숲 네트워크 모임이다. ‘큰숲형제모임’이라고 불리는 셀모임은 처음에는 김인중을 중심으로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하여 나간 목사들로 이루어진 비전공유 모임으로 시작하였다. 송창근은 큰숲 네트워크가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 셀 네트워크의 비전은 큰숲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담임목사와 셀 1세대 목사들 가운데 공유되었던 비전이었고, 큰숲을 이룬 형제 교회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하여 매주 설교도 함께 준비하고, 사역도 나누고, 교역자 간에 교류도 하고, 필요한 세미나와 연합 사역도 함께 하고, 교회 개척과 선교도 함께 하면서 지역과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큰숲운동을 통해 형제 교회를 개척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190]

이후 큰숲 네트워크는 현재 다양한 그룹으로 발전되어 모이고 있는데, 안산동산교회 출신 담임목회자모임, 셀 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모임, 셀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지역교회 목회자모임 등 다양한 그룹이 김인중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셀 비전과 큰숲운동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다. 큰숲형제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안양석수교회 담임목사 김찬곤은 “자기고백과 우정 어린 만남을 통해

188) 기독신문, “건강한 교회 대안, 교회 분립개척 주목받는다”〔온라인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68594, 2020년 2월 13일 접속.

189) 안산동산교회, “큰숲”〔온라인자료〕 http://www.d21.org/02cell_training/big_Forest.aspx, 2020년 2월 13일 접속.

190)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240.

힘을 얻고 있으며 동료 목사들과 만나 자존감을 되찾고 목회 본질을 추구하게 됐다"[191]며 큰숲 네트워크 모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4) 큰숲 플랫폼

최근 김인중은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교회와 단체들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함께 연합하는 새로운 사역의 플랫폼을 만들어보자"[192]며 교회 연합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현재 김인중은 안산동산교회에서 개척한 블루라이트 강남교회 목사 송창근과 함께 '세대를 뛰어넘는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신학, 목양,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며 세대의 벽을 넘어서 교회와 지역사회가 소통하는 건강한 사역 모델"[193]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한국교회 목회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기획한 세미나는 많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세미나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김인중은 세뛰세 세미나를 다양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연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그는 세뛰세를 통해 "진리와 죄 문제가 아니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다.

4) 큰숲운동 평가

김인중은 안산동산교회를 외형적으로 가장 큰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없었다. 그는 끊임없이 교회 본질을 고민하였고, 셀의 정신을 잊지 않고 교회에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헌신하였다. 결국 그 고민과 노력의 결과로 그는 큰숲운동을 통하여 "교회 분립과 개척운동, 한국 교회에 안산동산교회의 노하우를 알리는 일,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 셀 정신과 큰숲운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194] 등 지역과

191) 국민일보, "목회 현장서 지친 목회자들 '셀모임' 통해 힘 얻는다"〔온라인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60343&code=23111111&cp=nv. 2020년 2월 13일 접속.

192) 국민일보, "세대, 이념, 지역 넘어선 새 사역 플랫폼 만들자"〔온라인자료〕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83306. 2020년 2월 14일 접속.

193) 안산동산교회, "세대를뛰어넘는세미나"〔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200/F00/Elder_experience_select.aspx. 2020년 2월 14일 접속.

194)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218.

민족을 영적으로 살리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냈다.

2009년 박용규가 안산동산교회를 연구하고 집필한 「안산동산교회 이야기」를 펴낼 때만 해도 안산동산교회가 큰숲운동을 시작한지 만 4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때문에 박용규는 "21세기를 향한 동산교회 실험 셀 목회, '큰숲운동', 분립개척은 분명 이제 시작이다. 이것들이 안산동산교회의 실천과 결실을 통해 지역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교회의 운동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195]고 우려 썩인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큰숲운동은 박용규의 우려와 달리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괄목할만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은혜의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는 "큰숲운동이 있었기에 안정적인 개척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큰숲운동으로 인하여 김인중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자신의 비전을 은혜의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비전으로 함께 공유하고 집중할 수 있었다"며 평가한다.[196] 그는 큰숲운동이야 말로 교회 부흥의 비결이었으며 성도들이 한 비전으로 하나될 수 있는 구심점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큰숲운동은 안산동산교회 성도들의 역량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비전에 집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으며, 안산동산교회에서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셀정신으로 비전이 이끄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인중은 2005년 큰숲운동을 시작하며 "아버지의 관점에서 자식 된 모든 교회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지요. 공동체 된 형제교회들이 서로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이 불신자 전도와 버금가는 복음화 효과가 있다고 확신한다"[197]고 말한바 있다. 김인중의 비전은 안산동산교회가 아니었다. 그는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자 꿈을 꾸고 지역과 조국 대한민국 곳곳에 셀정신과 큰숲운동에 연합하여 함께 할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 힘을 쏟았다.

---

195)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174.

196) 기독신문, "건강한 교회 대안, 교회 분립개척 주목받는다"〔온라인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68594, 2020년 2월 13일 접속.

197) 교갱뉴스, "안산동산교회 셀 컨퍼런스 '큰숲비전축제'"〔온라인자료〕 http://www.church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30, 2020년 2월 14일 접속.

5. 사례 연구에 대한 소결론

이사야 64장 1-2절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섶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과 사명을 가지게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교회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전을 찾고, 그 비전에 집중하는 교회는 당연히 은혜가 충만하며 모든 성도들이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안산동산교회의 셀사역, 말씀사역, 양육과정, 큰숲운동의 사례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세우고 모든 사역은 그 비전이 흘러가도록 구성되어 있을 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다. 안산동산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다양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었다. 김인중이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그 비전을 지속적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에 접목함으로 교회는 성장을 이루었다.

연구자는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김인중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에 집중하였을 때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였다. 연구자 역시 이러한 안산동산교회의 사례들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교회의 비전을 세우기 위하여, 1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수립하고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였다. 교회의 전통적인 역사와 새로운 비전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함께 동참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교회는 은혜롭게 새로운 교회비전으로 관심을 이양할 수 있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교회는 단순히 일을 하는 공동체는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다. 때문에 교회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찾고 지속적으로 그 비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제 4 장

교회비전 수립을 위한 설문 연구

1. 설문의 목적과 절차

1)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연구자가 시무하고 있는 신광교회에서 실시한 '비전의 방'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회 비전을 세우는데 더욱 발전적인 과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난 1년간 신광교회에서 시행된 '비전의 방'의 효과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유용한 내용을 더욱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수립과정을 만드는데 적용할 것이다. 더 나아가 '비전의 방'을 도입하여 비전을 확립하기 원하는 교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운영방안과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이 설문의 주요한 목적이 된다.

2) 참가자

본 설문에는 참여한 응답자는 '비전의 방'에 참석한 250명 중에 참여의사를 보여준 총 47명이 참가하였다. 조사된 설문지 중 각 문항에 대한 대답을 여러 개 표기한 2건을 제외하고 최종 45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신광교회에서 시행한 '비전의 방' 사역에 참석한 남녀 평신도 및 교역자들이다.

3) 설문 절차와 방법

연구자는 설문에 앞서 리버티 대학교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고(IRB Exemption 4075.012320) 검정된 설문동의서를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고, 참가자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에 설문을 시작하였다. 설문은 직접적인 만남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에게 설문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인쇄된 설문지에 무기명으로 기술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진행하고 약 15분 이내의 시간을 소요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설문 구성

설문은 총 25개 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형식은 1가지 답만을 선택하는 객관식과 2가지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객관식(14번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설문 내용에 따라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으며, 설문 참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1-4번, 교회 인식도에 관한 질문은 5-9번, 비전 인식도에 대한 질문은 10-14번, '비전의 방' 사역에 대한 질문은 15-20번, '비전의 방' 운영에 대한 질문은 21-25번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의 형식은 모든 문항이 5지선다형으로 해당 사항에 자신의 생각을 기입하는 객관식으로 되어 있다.

2. 설문 결과

연구자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5 버전을 통하여 얻은 설문 결과를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카이스퀘어(X^2))으로 진행하여 표로 표기하였다. 또한 유의미한 결과가 예상되는 10개의 항목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아래 각 해당 항목에 표로 표기하였다.

<표 1> 인구사회학적 영역

사례수		전체	백분율
		45	100%
성별	남성	13	28.9%
	여성	32	71.1%
	소계	45	100.0%
나이	20-29세	3	6.7%
	30-39세	8	17.8%
	40-49세	9	20.0%

	50-59세	10	22.2%
	60세이상	15	33.3%
	소계	45	100.0%
교회 출석 기간	1-3년	1	2.2%
	4-10년	6	13.3%
	11~15년	5	11.1%
	16~20년	2	4.4%
	21년이상	31	68.9%
	소계	45	100.0%
직분	장로	3	6.7%
	안수집사	2	4.4%
	권사	13	28.9%
	서리집사	17	37.8%
	기타	10	22.2%
	소계	45	100.0%

설문의 결과를 보면 참가자의 28.9%(13명)는 남자, 71.1%(32명)는 여자이다. 현재 신광교회의 장년 등록교인의 75% 이상이 여성 교인임을 고려할 때에 보편적인 남녀 참가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참가자 중 60세 이상이 33.3%(1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 6.7%(3명), 30대 17.8%(8명), 40대 20%(9명), 50대 22.2%(10명)로 20대를 제외한 고른 연령대의 참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참가자들은 구역장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설문에 응하였고, 다양한 사역과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비전의 방에 참여하도록 하였기에 기획 의도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참가자의 68.9%(31명)는 교회를 다닌 지 21년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4~10년 이상은 13.3%(6명)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인천 신광교회는 설립 50년이 넘은 전통이 깊은 교회이다. 설문에 참가한 84.4%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신앙의 연수가 11년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신앙의 연수가 높은 교인들이 교회 내 다양한 곳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역량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지만, 신앙의 연수가 짧은 교인들을 교회에 애착심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또 다른 교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참가자의 37.8%(17명)가 서리집사의 직분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권사 28.9%(13명), 장로 6.7%(3명), 안수집사 4.4%(2명)를 차지하였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교회 내에서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어 '비전의 방'의 효과와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구성원들이다.

<표 2>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활기차다	4	8.9%
활기차다	18	40.0%
보통이다	15	33.3%
정체되어있다	8	17.8%
매우 정체되어 있다	0	0.0%
합계	45	100.0%

현재 신광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참가자의 40%(18명)가 활기차다, 8.9%(4명)가 매우 활기차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신광교회에 새로운 담임목사 부임하면서 교인들의 기대감 상승의 효과이기도 하며, 비전의 방을 시행한 이후 교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교인들의 친밀도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친밀하다	0	0.0%
친밀하다	19	42.2%
보통이다	20	44.4%
폐쇄적이다	6	13.3%
매우 폐쇄적이다	0	0.0%
합계	45	100.0%

참가자의 42.2%(19명)는 교회 안에서 서로 친밀하게 성도들과 사역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교인들 상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앞으로 신광교회가 비전에 집중하여 사역할 때 중요한 소통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50%가 넘는 참석자들이 교회 친밀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어 교인들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많다	2	4.4%
많다	13	28.9%
보통이다	21	46.7%
없다	8	17.8%
기타	1	2.2%
합계	45	100.0%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참가자들의 46.7%(21명)는 보통이라고 대답하였다. 많다고 대답한 사람이 28.9%(13명)인 반면 없다고 대답한 참가자도 17.8%(8명)나 되었다. 이는 교회 활성화를 위해 교회 중요한 현안을 결정할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는 참가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5> 새로운 50년을 위한 교회 변화의 필요성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0	0.0%
필요하다	15	33.3%
보통이다	29	64.4%
필요없다	1	2.2%
전혀 필요없다	0	0.0%
합계	45	100.0%

새로운 50년을 출발하는 교회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참가자들의 97.7%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어놓았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특별히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6> 앞으로 교회의 성장 예측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성장할 것이다	20	44.4%
성장할 것이다	25	55.6%
지금과 같은 것이다	0	0.0%
침체될 것이다	0	0.0%
매우 침체될 것이다	0	0.0%
합계	45	100.0%

교회 성장에 관한 질문에는 참가자의 56.6%가 성장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44.4%가 매우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응답자의 100%가 신광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답함으로써 교회를 생각하는 교인들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교인들의 교회비전 인식도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잘알고 있었다	1	2.2%
알고 있었다	17	37.8%
알 것 같다	7	15.6%
잘 몰랐다	19	42.2%
전혀 몰랐다	1	2.2%
합계	45	100.0%

참가자 37.8%(17명)는 그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신광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신광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대답한 참가자도 42.2%(19명)나 되어 '알고 있다'고 말한 교인의 비율보다 '알지 못한다'고 말한 비율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물론 개인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설문결과는 전반적으로 교인들이 교회의 방향을 잘 모른 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 있다. 오랜 기간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 내 다양한 부분에서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 체 헌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표 8> 교회 비전과 사역의 일관성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0	0.0
그렇다	2	4.4
보통이다	19	42.2
그렇지 못하다	23	51.1
전혀 그렇지 못하다	1	2.2
합계	45	100.0%

그동안 신광교회는 교회의 비전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이 잘 연결되어 사역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참가자들의 51.1(23명)%, 42.2%(19명)가 각각 그렇지 못하다, 보통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교인들의 교회비전 인식도와 교회사역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잘 반영된 결과이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교회에서 한다고 해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인들이 교회의 방향과 비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교회 프로그램과 사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때문에 교회는 사역의 현장에 교인들을 참여시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정책과 방향을 성도들에게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도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표 9> 교인들에 대한 비전공유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0	0.0%
그렇다	2	4.4%
보통이다	15	33.3%
그렇지 못하다	22	48.9%
매우 그렇지 못하다	6	13.3%
합계	45	100.0%

비전 공유에 대한 질문에 참가자들은 48.9%(22명)가 비전이 잘 공유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33.3%(15명)는 보통이라고 대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못하다라고 응답한 참가자도 13.3%(6명)나 되었다. 이 조사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교회 비전에 대한 인식이 잘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교회비전에 대한 인식부족이 사역과 교회 전체적인 활력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0> 교회 비전과 사역의 연관성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1	2.2
그렇다	7	15.6
보통이다	12	26.7
그렇지 못하다	22	48.9
매우 그렇지 못하다	3	6.7
합계	45	100.0%

그 동안 신광교회의 모든 사역이 교회의 비전에 잘 부합되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만족도에 그렇지 못하다고 답한 참가자가 48.9%(22명)로 가장 높았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참가자는 26.7%(12명), 그렇다고 대답한 참가자가 15.6%(7명)로 나타났다. 교회 프로그램이 비전과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6.7%(3명)나 된다. 연구자가 실질적으로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교회의 영구표어나 영구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었다.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교회 사역을 연결하여 생각하는 교인들의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만큼 교회가 비전을 성도들에게 소통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교회 내 다양한 사역들 속에서 그 동안 비전이 교인들의 관심분야가 아니었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11>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필수사역

항목	인원	백분율
교육	33	36.7%
비전	25	27.8%
봉사	4	4.4%
전도	5	5.5%
교제	23	25.6%
합계	90	100.0%

14번 문항은 참가자들이 2개의 답을 중복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광교회가 앞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을 36.7%(33명)가 교육으로 꼽았으며, 27.8%(25명)는 비전, 25.6%(23)가 교제, 5.5%(5)는 전도, 4.4%(4명)가 봉사 순으로 나타났다. 전도와 봉사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이며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이지만, 좀 더 교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참가자들의 바램이 높은 선택을 받은 교육과 비전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봉사와 전도, 교육과 비전으로 현저히 구분되는 참가자들의 선택에는 성도 개개인의 삶에 대한 헌신보다는 조금 더 교회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인 준비와 공급을 해 줄 것 대한 기대도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결과이다.

<표 12> 비전의 방에 대한 만족도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만족한다	10	22.2%
만족한다	28	62.2%
보통이다	7	15.6%
불만이다	0	0.0%
매우 불만이다	0	0.0%
합계	45	100.0%

비전의 방은 참석자들에게 얼마나 높은 만족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62.2%(28명)이 만족한다고 대답하였다. 참석자의 22.2%(10명)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15.6%(7명)의 참가자만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부정적인 응답을 표한 참석자가 단 한 명도 없이 대체로 긍정적인 수치가 나온 이러한 통계 결과는, 비전의 방이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도록 하는데 유익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게 하는 결과이다.

<표 13> 비전의 방 필요성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13	28.9
필요하다	30	66.7
보통이다	2	4.4
필요없다	0	0.0
전혀 필요없다	0	0.0
합계	45	100.0%

참가자 대부분은 '비전의 방' 사역이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이번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다. 이는 비전의 방이 교회 비전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표 14> 비전의 방이 교인들에게 미친 영향력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11	24.4%
그렇다	27	60.0%
보통이다	6	13.3%
그렇지 않다	1	2.2%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45	100.0%

참석자들은 비전의 방과 관련한 질문 문항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동안 교회 비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참석자들이 비전을 방을 통하여 60%(27명)가 교회 비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표하였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24.4%(11명), 보통이라고 대답한 참가자가 13.3%(6명) 등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비전의 방을 통하여 교회 비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음을 나타낸다. 비전의 방이 참가자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 같은 결과는 비전의 방에 참여를 권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표 15> 비전의 방이 교인들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

항목	인원	백분율
교인들과의 교제	3	6.7%
교회 비전의 소통	28	62.2%
교회 비전에 참여	13	28.9%
교회 프로그램 참여	1	2.2%
합계	0	100.0%

참가자의 62.2%(28명)는 비전의 방이 교회 비전의 소통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의견을 나타낸다. 지난 1년간 신광교회가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비전을 방을 운영하면서 테이블별로 토론과 나눔, 조별 발표를 주된 사역의 방향으로 적용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표 16> 비전의 방이 교회의 비전수립에 도움

항목	인원	백분율
매우 그렇다	10	22.2
그렇다	28	62.2
보통이다	7	15.6
그렇지 않다	0	0.0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45	100.0%

비전의 방은 신광교회의 사역방향과 비전을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참가자의 62.2%(28명)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2.2%(10명)는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대부분의 비전의 방 참석자들은 비전의 방이 교회의 비전확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비전의 방에 참석하면서 우선적으로 교회 비전에 조금이라도 더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본인이 교회 비전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줄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낸 것이다.

<표 17> 교인들의 지속적인 비전의 방 참여의사

항목	인원	백분율
적극 참여하겠다	18	40.0
참여하겠다	25	55.6
보통이다	2	4.4
참여하지 않겠다	0	0.0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0	0.0
합계	45	100.0%

20번 문항은 비전의 방 참석의사에 관한 질문으로 55.6%(25명)의 참석자들이 앞으로 교회가 비전의 방을 운영한다면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나타내었다. 또한 참여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한 명도 없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40%(18명)나 되었다. 이는 비전의 방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참가자들의 생각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18> 비전의 방 적절한 회수

항목	인원	백분율
1회	3	6.7
2회	24	53.3
3회	6	13.3
4회	9	20.0
많을수록 좋다	3	6.7
합계	45	100.0%

비전의 방 운영을 1년에 2회 이상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참가자들 중 53%(24명)의 높은 응답이 나타났다. 4회 이상이 20%(9명), 3회가 13.3%(6명), 1회가 6.7%(3명) 순으로 답을 한다. 또한 참가자들 중 6.7%(3명)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도 나타내었다.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 1회 실시한 비전의 방 사역이 앞으로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보다 자주 운영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표 19> 비전의 방 운영에 적절한 참여인원

항목	인원	백분율
10명 이하	1	2.2%
11~30명	26	57.8%
31-50명	11	24.4%
51~100명	5	11.1%
100명 이상	2	4.4%
합계	45	100.0%

비전의 방을 운영하는데 있어 적절한 참여 인원을 참가자들 중 57.8%(26명)가 11~30명 이하로 운영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1-50명을 24.4%(11명)가 그 다음으로 원한다. 이 통계의 수치는 참가자들은 너무 많은 인원보다는 30명 전후의 소그룹을 통하여 충분히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싶은 소통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표 20> 비전의 방 운영에 적절한 참여대상

항목	인원	백분율
장로 및 교역자	0	0.0%
중직자	1	2.2%
중직자 및 청년	13	28.9%
모든 교인	30	66.7%
기타	1	2.2%
합계	45	100.0%

참가자들은 비전의 방 운영 시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교인들의 참여를 66.7%(30명)가 원했고, 중직자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선택이 28.9%(13명)가 되었다. 한편 장로 및 교역자만 참석하는 비전의 방은 단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비전의 방 사역의 핵심은 성도들의 참여이다. 비전의 방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잘 이해하고 몇몇 사람들의 생각으로 정해지는 교회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교회비전을 대부분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이다.

<표 21> 비전의 방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항목	인원	백분율
주제강의	6	13.3%
토론 및 나눔시간	30	66.7%
발표시간	2	4.4%
질의응답시간	3	6.7%
기도회	4	8.9%
합계	45	100.0%

참가자들은 비전의 방이 더욱 발전된 사역과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토론 및 나눔(66.7%), 주제강의(13.3%), 기도회(8.9%), 질의응답(6.7%), 발표(4.4%) 순으로 의사를 표하였다. 이는 비전의 방을 통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 수치를 통하여 단순히 교회의 정책과 방향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교인들이 아니라 그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간과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22> 비전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요소

항목	인원	백분율
비전설교	7	15.6%
소통을 위한 모임	30	66.7%
사역팀 구성	4	8.9%
모델교회 탐방	3	6.7%
기타	1	2.2%
합계	45	100.0%

참가자들은 비전이 이끄는 건강한 신광교회가 되기 위해 소통을 위한 모임(48.5%)이 교회 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비전설교가 15.6%(7명), 사역팀 구성이 8.9%(4명), 모델교회 탐방이 6.7%(3명)를 차지하였다. 이는 신광교회가 새로운 50년을 출발하고 앞으로 영적인 성장을 도약하는데 있어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참여자들의 마음이 잘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성숙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도 잘 드러난 결과이다.

3. 빈도분석에 대한 결과

설문 참가자 중 주요 응답 대상으로 나오는 그룹은 40세 이상으로, 신광교회에 출석 21년 이상의 비전의 방에 참여한 교인이다. 참가자 대부분은 비전의 방이 교회 비전확립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하였고, 95.6%의 사람이 비전의 방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한 만족감을 보여준다. 참석자들 중 비전의 방 운영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2.2%, 매우

만족한다고 선택한 사람이 22.2%나 되었다. 또한 그동안 교회 비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없이 신앙생활을 하던 참석자들이, 비전의 방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관심과 비전에 대한 이해가 향상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교회 비전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비전의 방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가자들이 무려 84.4%나 되었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비전의 방이 교회 방향수립에 개인의 참여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상호간의 친목, 소통, 연합 등 실제적인 교회 공동체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전의 방은 전통교회에 부임한 담임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집중해야 할 필요한 사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설문결과를 보면 비전의 방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토론 및 나눔시간 즉, 소통으로 나타났다. 일방적인 목회자의 비전선포나 강의가 아니라 성도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가 비전의 방에 참여한 교인들의 호감을 이끌 수 있으며, 교회 비전수립을 위하여 형식적인 절차를 탈피하고 실제적인 도움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교차분석에 대한 결과

연구자는 21개의 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10가지 문항을 선별하고 성별, 나이, 출석기간, 직분 등 4가지 범주로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항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Pearson의 카이제곱으로 확인하였다.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게 되면 보고자 하는 가설, 즉 질문 문항이 “성별, 나이, 출석기간, 직분 등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을 기각하게 되어 기존 상식이 맞는 것으로 채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 성별과 교회 인식도와의 교차 분석

교차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7번 문항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확률이 0.0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가자의 28.9%는 남자,

71.1%는 여자이다.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대부분 문항에서 성별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은 참여자들이 느끼는 교회 인식에 대한 생각이다.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남자는 4.4%(2명)가 매우 많다, 11.1%(5명)가 많다, 8.9%(4명)가 보통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반면에 여자는 37.8%(17명)가 보통이다를, 15.6%(7명)가 없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비록 여자들이 교회 구성원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남자 위주의 교회정책 결정과 회의진행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전의 방과 같은 소통의 창구를 활용하여 남녀노소 다양한 그룹의 의견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소그룹 중심의 진행이 더욱 고려되어야 함을 통계의 수치가 뒷받침한다.

<표 23> 성별로 본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성별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매우많다	많다	보통이다	없다	기타	전체
남자	빈도	2	5	4	1	1	13
	전체 %	4.4%	11.1%	8.9%	2.2%	2.2%	28.9%
여자	빈도	0	8	17	7	0	32
	전체 %	0.0%	17.8%	37.8%	15.6%	0.0%	71.1%
전체	빈도	2	13	21	8	1	45
	전체 %	4.4%	28.9%	46.7%	17.8%	2.2%	100.0%

X^2= 10.001, p-value= 0.040

2) 교회직분과 교회 인식도와의 교차 분석

참가자 중에는 다양한 분포의 직분자 그룹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장로 3명(6.7%), 안수집사 2명(4.4%), 권사 13명(28.9%), 서리집사 17명(37.8%), 기타 교역자, 청년, 성도가 10명(22.2%)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차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7번 문항에서 교회직분에 따른 유의확률이 0.02로 교인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직분에 따른 인식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도출되었다.

직분별로 결과의 차이를 크게 보여준 대답은 많지 않았지만, 다만 서리집사의 20%(9)가 교회의 의사결정의 다양성에 대하여 보통이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였다. 또한 참가자 중 권사 15.6%(7명)가 역시 보통이라는 의견을 표시하여 다른 직분과 다소 비교할만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다른 직분자들에 비하여 서리집사와 권사 그룹이 교회 비전이나 방향에 능동적 참여가 어려웠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비전의 방의 대상을 모든 다양한 직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서리집사 그룹이 함께함으로 그동안 그들의 소외된 마음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4> 직분별로 본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직분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매우많다	많다	보통이다	없다	기타	전체
장로	빈도	0	1	1	0	1	3
	전체 %	0.0%	2.2%	2.2%	0.0%	2.2%	6.7%
안수집사	빈도	0	0	1	1	0	2
	전체 %	0.0%	0.0%	2.2%	2.2%	0.0%	4.4%
권사	빈도	0	4	7	2	0	13
	전체 %	0.0%	8.9%	15.6%	4.4%	0.0%	28.9%
서리집사	빈도	0	3	9	5	0	17
	전체 %	0.0%	6.7%	20.0%	11.1%	0.0%	37.8%
기타	빈도	2	5	3	0	0	10
	전체 %	4.4%	11.1%	6.7%	0.0%	0.0%	22.2%
전체	빈도	2	13	21	8	1	45
	전체 %	4.4%	28.9%	46.7%	17.8%	2.2%	100.0%

X^2= 29.717, p-value= 0.020

3) 나이와 비전 인식도와의 교차 분석

참가자 중에는 50세 이상이 25명(55.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30~49세까지 3040세대가 17명으로 37.8%를 나타나고 있다. 신광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묻는 14번 항목에 대하여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교육(36.7%), 비전(27.8%),

교제(25.6%)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14번은 중복선택 경우를 각각 문항응답으로 설정하고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세대별로 중복 응답경우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유의확률 0.05 기준의 양측검증으로 검증한 결과 카이제곱통계량이 28.9, 유의확률이 0.624로써 양측검정 유의확률 0.05를 넘지 않아 세대별로 건강한 교회를 위한 주요사역 응답경향성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자는 세대별 교차분석 표를 통해 주목할만한 한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통계수치를 확인하기 전에는 당연히 교회 비전을 선택할 가장 높은 그룹으로 30대 40대 그룹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30~49세 참여자들은 교육을 17.8%가 선택하였고, 비전은 9.9%가 응답하였다. 반면에 50세 이상의 그룹에서는 교육이 17.8%, 비전이 15.6%로 서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나이가 높은 교인들의 경우 개인적 가치보다는 공동체적 가치가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젊은 세대일수록 공동체적 가치보다는 가정과 자녀 교육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3040세대들의 교회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교회의 본질과 명확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5> 연령으로 본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필수 사역

연령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필수 사역					
		교육	비전	봉사	전도	교제	전체
20~29세	빈도	1	2	0	0	3	6
	전체 %	1.1%	2.2%	0.0%	0.0%	3.3%	6.7%
30~39세	빈도	7	3	2	0	4	16
	전체 %	7.8%	3.3%	2.2%	0.0%	4.4%	17.8%
40~49세	빈도	9	6	1	0	2	18
	전체 %	10.0%	6.7%	1.1%	0.0%	2.2%	20.0%
50~59세	빈도	7	5	0	2	6	20
	전체 %	7.8%	5.6%	0.0%	2.2%	6.7%	22.2%
60세이상	빈도	9	9	1	3	8	30
	전체 %	10.0%	10.0%	1.1%	3.3%	8.9%	33.3%
전체	빈도	33	25	4	5	23	90
	전체 %	36.7%	27.8%	4.4%	5.6%	25.6%	100.0%

X^2= 28.900, p-value= 0.624

4) 교회직분과 비전 인식도와의 교차 분석

교회비전과 사역의 연관성에 대한 11번 문항을 교차분석 하였을 때 유의확률이 0.026으로 교회비전에 따른 사역수립은 교회직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설문조사 참가자의 51.1%가 교회사역과 교회비전이 잘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2.2%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분별로 분석한 결과 참가자 중 제일 많은 분포를 나타내는 서리집사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2.2%(10명)이며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은 15.6%(7명)로 나타났다. 권사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혹은 '보통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각각 13.3%(6명)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장로, 안수집사, 기타 그룹에 있어서도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혹은 '보통이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신광교회의 모든 직분자 그룹이 교회의 사역과 비전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거나 크게 상관없어 보인다고 응답한 것은 충격적인 통계가 아닐 수 없다.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직분을 가지고 많은 곳에서 섬겨도 교회비전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광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지 잘 모르고 사역했다는 것은 앞으로 비전의 방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비전의 방에 참여한 그룹은 대부분은 교회를 오랜 기간 다니거나 서리집사와 권사 직분자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참여 대상자들을 다양한 직분자 그룹에서 균등하게 참여를 확대시키고 그들에게 교회비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표 26> 직분별로 본 교회의 비전과 사역의 일관성

직분		교회의 비전과 사역의 일관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못하다	매우그렇지 못하다	전체
장로	빈도	0	1	0	1	1	3
	전체 %	0.0%	2.2%	0.0%	2.2%	2.2%	6.7%
안수집사	빈도	0	0	1	1	0	2
	전체 %	0.0%	0.0%	2.2%	2.2%	0.0%	4.4%
권사	빈도	0	1	6	6	0	13
	전체 %	0.0%	2.2%	13.3%	13.3%	0.0%	28.9%
서리집사	빈도	0	0	7	10	0	17
	전체 %	0.0%	0.0%	15.6%	22.2%	0.0%	37.8%
기타	빈도	0	0	5	5	0	10
	전체 %	0.0%	0.0%	11.1%	11.1%	0.0%	22.2%
전체	빈도	0	2	19	23	1	45
	전체 %	0.0%	4.4%	42.2%	51.1%	2.2%	100.0%

X^2= 23.170, p-value= 0.026

5. 설문 결과에 대한 소결론

본 설문은 신광교회의 지나온 과거 사역들과 공동체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1년 동안 진행된 비전의 방에 대한 세부적 평가의 의미를 가진다. 설문의 대상이 비전의 방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하다 보니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의견을 담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설문에 참가한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객관적이며, 특별히 참가자들의 비전의 방에 대한 분석은 매우 긍정적이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비전의 방을 통하여 교회 비전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인 교회 참여도에 많은 변화를 나타내었고, 84.4%의 참석자들이 비전의 방에 대하여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95.6%의 사람들이 앞으로 비전의 방을 교회가 계속 운영한다면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하였고, 역시 같은 95.6%의 참석자들이 비전의 방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특별히 비전의 방에 참석한 주된 계층으로 여성(71.1%), 50대 이상(55.5%), 21년 이상의 신앙연수(68.9%), 권사직분(28.9%)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교회의 전체 구성원 비율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비전의 방에 참여한 모든 그룹들에 있어서 비전의 방 운영과 관련된 모든 항목에 긍정적인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비전의 방의 영향이 분명히 그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가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교제 할 수 있는 모임이나 방법이 많지 않았다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참석자들이 64.5%나 되었다. 때문에 참석자의 66.7%가 앞으로 교회가 비전위에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소통하는 모임이 많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이런 성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다양한 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비전의 방에 참여한 교인들이 교회 사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공동체 비전에 대한 이해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비전의 방은 더 다양한 그룹의 대상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5 장

비전의 방 중심의 교회비전 확립 방안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비전의 방 사역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내 사역에 참여를 확대시키고, 교회 비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극대화 시켜주며, 아울러 몇몇 사람들이 주도하여 결정하는 교회방향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는 교회비전을 구축하는데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설문결과를 분석해 볼 때에 전통적 교회가 보다 더 역동적인 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교회의 방향과 비전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잘 소통이 되고 흘러가고 있는가이다. 때문에 체계적인 비전 수립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의 실질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고, 비전의 방 운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성도들에게 보다 더 깊은 교제와 적극적인 의사개진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성장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5장은 이 같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비전의 방이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교회비전 확립에 구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진행된 연구이다. 또한 3장에서 살펴본 안산동산교회의 선행 연구를 통하여 얻은 교회비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비전확립과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 비전을 성도들에게 공유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 이에 연구자는 성경적 교회비전을 교인들과 함께 세우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 비전의 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역 방안을 주요하게 제시하며, 체계적인 교회비전 확립 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교회비전 준비단계

설문조사 결과 교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지에 대한 물음에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참석자가 46.7%가 되었고,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7.8%나 되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해진 교회의 방향과 사역에 충실히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교회가 새로운 50년을 내다보면서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무려 97.7%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선택하였다. 이것을 보면 교인들은 익숙한 교회의 환경과 생활도 좋지만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변화를 향한 성도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한편 성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비전확립체계가 필요하다. 교회비전 준비단계에서는 교인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하고자 한다.

1) 목회철학 및 교회목적

연구자가 처음 신광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을 때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50년을 출발하는 시작점에 있었다. 이에 교인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세대로 모아졌고 정체된 교회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아 부흥하기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망하였다. 그때 장로들은 당회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로의 변화를 간곡히 호소하였고 교인들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비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당시 연구자는 교회의 비전을 당회와 교인들에게 제시하기에 앞서 기도를 통하여 얻은 두 가지 원칙을 마음에 간직하고 진행하였다. 첫째는 담임목사의 일방적인 비전선포가 아닌 성도들과 함께 만들고 추진하는 교회 비전이며, 둘째는 39년을 목회한 전임자의 목회방향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50년 교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목회비전을 세운다는 것이었다.

신광교회는 전임자가 세운 '오직예수'라고 하는 영구표어와 '가르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등 예수님의 3대사역을 교회의 영구목표로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교인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는 신광교회가 그 동안 추구하여 온 교회의 본질과 사명인 '영혼구원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여 '하나님 나라'를 목회철학으로

삼고 교회의 큰 방향으로 선택하였다.

연구자에게 크나큰 목회적 영향을 준 안산동산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여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세상에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며 살도록 하기위해 몸부림치는 교회이다. 이런 목회적 토양 속에서 훈련받은 연구자에게 신광교회의 지나온 목회방침은 미셔널처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비전으로 새롭게 다가왔다. 이에 '예수님의 3대사역과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비전을 세워 나가는 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실제 비전을 취합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과 뜻을 본질에 집중하여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결국 교회의 비전과 모든 계획은 담임목회자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이며 성경적인 교회의 방향과 철학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2) 당회원 및 교역자 워크숍

교회의 비전을 정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필수적 단계는 담임목회자가 섬기고 있는 현재 교회의 역사와 성장배경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지난 세월 교회가 어떠한 사역에 힘을 쏟아 왔으며, 어떤 방향에 집중하여 헌신해 왔는지를 아는 만큼 새로운 비전에 대한 중요한 준비는 없을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부분의 교인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교회의 정책이나 방향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비전에 동참하고 싶어한다. 때문에 연구자는 가장 먼저 당회원 및 교역자 워크숍을 시행하였다.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를 중심으로 지나온 교회의 역사를 듣고 신광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돋움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장로들은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성도들을 세심히 살피면서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생각과 의견을 많이 알고 있다. 또한 워크숍을 통해 교회의 최일선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새로운 50년에 대한 기대감을 교회의 리더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에 2018년 10월 3일 공휴일을 이용하여 오전 10시부터 하루의 일정으로 ‘당회원 및 교역자 비전워크숍’이란 이름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먼저 장로와 교역자 5~6명씩 소그룹으로 앉게 하고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크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담임목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강의를 통하여 나누었다. 그리고 그 강의를 중심으로 미리 준비한 세가지 질문을 주어 토의를 하게 하였는데 “첫째, 신광교회는 그동안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 왔는가? 둘째, 현재 신광교회는 어떤 교회로 평가할 수 있는가? 셋째, 앞으로 신광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부흥하기를 원하는가?” 등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신광교회의 모습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누도록 하였다. 각 테이블에서 논의한 결과들은 대표들의 발표로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발표한 모든 내용들은 그 자리에서 같은 범주별로 정리하며 참석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정리된 내용들은 다시 해당되는 사역팀별로 분류하였으며 이 사역팀들이 추후 8부류의 ‘비전의 방’ 참석 대상자들이 되었다.

3) 비전위원회 조직

비전워크숍 이후에 당회는 담임목사 중심으로 새로운 50년을 달려갈 교회비전을 새롭게 세워보자는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담임목사가 혼자 추진하는 비전이기보다는 성도들이 중심이 된 비전을 함께 만들어 볼 것을 장로들에게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야 말로 비록 교회에 새로운 리더십이 교체가 되었어도 사역의 단절과 갈등 없이 새로운 비전을 은혜롭게 제시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회는 연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교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비전 수립과정의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

(1) 비전위원회 구성

비전위원회 구성은 조직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선정하되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비전위원회의 사역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교역자 대표 1인 행정목사와 당회에서 선정된 위원장 장로 1인, 또한

안수집사회에서 추천한 대표 1인, 권사회에서 선임된 대표 1인, 3040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서리집사 1인, 청년 대표 1인 등 총 6인으로 조직되었다.

(2) 비전위원회 사역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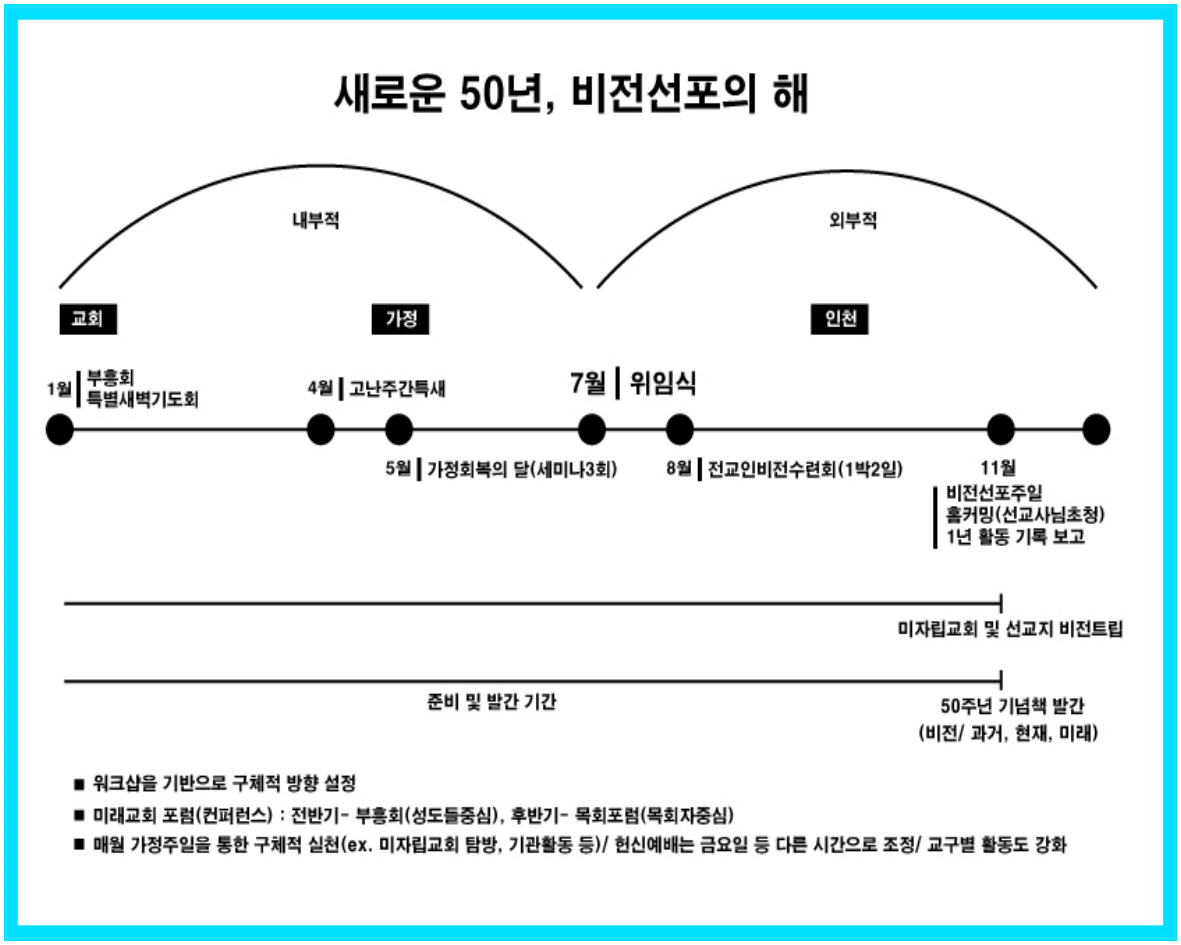
비전위원회를 조직할 때 위원회의 역할과 사역방향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정하였다. 첫째,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비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교인 전체에 비하면 극히 작은 숫자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위원들은 모임 시 각자의 의견 개진이 아니라 자신이 해당하는 그룹의 생각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논의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교회 내 다양한 직분자 대표들이 모여있기에 자칫 소극적으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교역자나 장로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른 위원들이 수동적으로 동의하기 보다는 교회의 필요와 유익을 위하여 각자가 해야 할 말들을 적극적으로 나눌 때 교회는 더욱 교회다운 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6명으로 구성된 비전위원회는 교회의 비전을 확정하고 세우는 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비전을 만들 수 있을지 비전의 확립과정을 고민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때문에 비전위원회는 교회의 변화나 나갈 방향을 논의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1년의 기간 동안 비전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지 비전확립의 큰 로드맵을 정하는 곳이다.

(3) 비전위원회 활동

앞서 연구자가 언급한 것처럼 비전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비전수립을 위한 공감대를 교회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1년 동안의 교회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기획하면 좋을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비전수립을 위해서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며, 실제 그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에 성도들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전위원회는 2019년도 한 해를 신광교회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비전 선포의 해'로 정하고 몇 가지 교회의 중점사역을 정리하였다.

먼저 당회원 워크아웃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미 선정된 8개의 사역팀을 대상으로 '비전의 방'이란 이름으로 워크아웃을 연중 운영한다는 것이다. 비전의 방을 통하여 교회 내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교회비전을 설정한다는 목적이다. 또한 비전부흥회, 가정세미나, 전교인 비전수련회, 국내외 비전트립, 50주년 기념책자 발간 등 연중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성도들의 관심을 비전수립에 집중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11월 3째주 교회 창립주일을 비전선포주일로 정하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신광교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을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50년을 힘차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준비하였다. 비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당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회의내용 및 진행사항을 수시로 행정목사를 통하여 담임목사에게 알리고 확인받았으며, 연구자는 당회에 해당 내용들을 서면으로 공유하며 함께 의논해 나갔다.

<표 27> 비전 위원회를 통하여 제시한 연중 비전수립 로드맵



4) 설교를 통한 비전구상 제시

연구자는 비전수립을 위하여 교회가 어떻게 한해를 보낼 것인지 비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정책당회를 통하여 1년 목회계획을 확정 지었다. 2019년 교회표어를 “새로운 50년, 비전 선포의 해”로 정하고, ‘예배에 힘쓰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비전을 세우는 교회’ 등 교회 3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2019년 한 해가 신광교회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비전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한 해임을 이해시키고 공유하기 위하여 설교를 통하여 교회 3대 목표를 1월 한달동안 강단에서 선포하였다. 1월 첫째주일 ‘예배에 힘쓰는 교회(사 6:1-3)’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같은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설교하였다. 둘째 주일 설교에서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살전 5:16-18)'에 대해서 전하며 성도의 심령에 감사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앞을 향하여 나갈 새로운 비전을 공동체에 담을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일은 '비전을 세우는 교회(욜 2:28-3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가득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1년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찾으며 세워나갈 것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렇게 3주간의 비전집중설교를 통하여 한해의 목표를 설교함으로 모든 교인들이 1년을 어떻게 보내고 무엇에 힘써야 할지 잘 알도록 도와주었다.

2. 교회비전 수립단계

설문결과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묻는 말에 참석자 42.2%나 되는 사람들이 '잘 몰랐다'고 대답하였다. 응답자들 중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등 다양한 직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교회의 일꾼들이 교회비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비전의 방이 교인들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62.2%라는 숫자가 '교회비전의 소통'이라고 선택하였고, 28.9%의 사람이 '교회비전에 참여'라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비전의 방은 그동안 비전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교인들에게 교회 비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고, 교인들의 관심을 교회비전으로 이끌어 올 수 있었다. 이에 교인들을 함께 동참시키는 교회비전 수립단계를 연구하고, 교인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비전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비전의 방 운영

연구자가 사역한 안산동산교회는 워크숍이 문화로 자리잡은 교회이다. 교회 대부분의 사역들이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워크숍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그런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 특별히 매년 1회 지역장과 셀리더들을 대상으로 교구별로 '비전의 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임을 통해 담임목회자는

목회철학과 중요한 교회비전을 리더들에게 흘려 보내주고 있다. 연구자는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하며 경험한 '비전의 방' 사역을 조금 더 세심하게 조정하여 연중 시행하였고, 한편 성도들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룹 토의시간을 '비전의 방' 사역의 중심에 두었다.

(1) 참여대상

당회원 및 교역자 워크숍은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되었다. 전반적인 교회에 대한 몇몇 건의 사항은 당장 사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은 함께한 모든 당회원들과 교역자들이 같은 공감대를 이루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다. 워크아웃에서 정리된 의견들은 다음세대 활성화, 새가족 정착, 구역 활성화, 체계적인 양육, 대외적인 교회이미지, 영혼구원 사역, 해외 선교사역, 청년부 활성화 등 대략 8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가능했다. 여기서 수렴된 8가지의 주제는 보다 더 세심하게 논의하고, 함께 문제를 찾아 개선된 교회의 모습을 그려 갈 그룹선정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교사 비전의 방'을 통하여 교회학교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게 하였고, '구역장 비전의 방'에서는 보다 활력 있는 구역을 위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였다. '청년부 비전의 방'을 통하여 청년세대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젊은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3040남녀전도회 비전의 방'에서는 다음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교회에서 실시하는 영혼사랑초청잔치나 해외 선교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전도대 비전의 방'에서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새가족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새가족부 비전의 방'에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현재 교회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도회 회장단 비전의 방'을 통하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선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렇게 1년 동안 8번의 비전의 방을 운영했을 때 처음에는 한번도 해보지 못한 방식에 다소 어색함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점차 교회안에 소통의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설문조사

본 연구자는 신광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비전에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고 만들어 가는 비전'을 처음부터 마음에 염두하고 비전 수립과정을 시작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비전의 방을 계획했을 때 다양한 그룹의 성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미래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내어놓고 가급적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 함께 비전을 만들어 가고자 목적하였다. 하지만 각 그룹별로 한번씩 시행되는 '비전의 방' 사역만으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교회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참석자들의 보다 더 다양하고 객관적인 의견들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에 비전의 방을 시행하면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하여 비전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구역모임에 구역원들이 잘 못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가, 앞으로 교회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미래 사역은 무엇인가, 3040세대들이 교회 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각 그룹의 특성에 맞는 설문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3) 운영방법

비전의 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된다. 먼저 1-7월까지 상반기 동안 매달 한 그룹씩 '비전의 방' 일정이 정해지고 성도들에게 공유되는 연중 목회계획서를 통하여 공지가 된다. 각 그룹에 해당되는 참석자들은 일정에 맞추어 주보광고나 문자공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참석을 권유 받고 참석 여부도 확인 받게 된다. 당일 비전의 방에 모인 참석자들은 6-8명씩 소그룹으로 나눠 앉게 되는데 이때 테이블 리더는 교역자들이 담당한다. 모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30분 정도의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열어주며, 서로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한다(대략 성도들이 함께 돌아다니며 어울릴 수 있는 활기찬 게임).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찬양을 통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찬양이 끝난 뒤에는 담임목회자가 참석 대상자의 특성에 맞도록

주제강의를 하게 되는데 강의 내용은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전하게 된다. 앞서 말한대로 리더십 한 사람의 성향이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비전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목회자들이 '비전의 방'에서 강의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말씀의 깃발아래 성도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강의를 마치면 모든 테이블은 배정된 교역자의 인도 하에 40분 정도 그룹토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더욱 발전된 비전의 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시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66.7%의 사람들이 '토론 및 나눔시간'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만큼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비전의 방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진행한 것이 바로 토론 및 나눔시간이다. 참석자들은 SWOT이라는 분석기법으로 나눔을 하게 되는데, 기업이나 단체에서 그룹토의 시간에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지만 연구자는 교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SWOT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SWOT이란 조직의 환경을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이라는 4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여 유용한 전략을 수렴하는 방식이다. 성도들은 먼저 10분간 장점을 서로 이야기하며 경청하게 되는데 이렇게 약점, 기회, 위협 등 세 번 더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한곳에 모이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교사 비전의 방에서는 참석한 교사들이 신광교회 교회학교의 장점을 먼저 말하게 되고, 이후 그와 반대로 교회학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 하고 나면 앞으로 신광교회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발전된 교회학교로 전환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토론을 마무리 한다. 이렇게 교사들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이야기하다 보면 스스로 우리교회의 주일학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교회학교에 주어진 비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룹토의를 하는 동안에 모든 그룹의 서기들은 논의되는 내용들을 한 장의 용지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여 추후에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테이블별로 한 사람의 발표자를 정하여 서기들이 정리한

용지를 들고 앞으로 나와 모든 참석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이렇게 발표된 내용들은 전 참석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발표 마지막 시간에 보여주며 담임목회자가 간략하게 풀어 설명해준다.

(4) 비전 기도회

기도회는 비전의 방이 단순히 성도들의 논의나 회의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영적 풍성함을 더해준다. 기도는 참석자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 주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주목하게 만들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자는 비전의 방을 운영하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비전 기도회는 30분 정도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비전과 관련한 찬양 두 곡을 뜨겁게 부르고, 해당 주제에 맞는 2가지 정도의 기도제목을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한다. 이후 2-3명씩 짝을 지어 기도하게 하고, 다시 테이블 별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참석자들이 원을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계속 확장해 가면서 기도하게 한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교회를 향한 진지한 마음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한다.

<표 28> 비전의 방 진행 큐시트

소요시간	내용	진행 방법	비고
20분	마음열기	레크리에이션	
20분	찬양		찬양이 끝나고 담당자 기도
30분	담임목사 비전공유	PPT 사용	① 각 그룹에 맞는 주제 ② 성경에 입각한 교회론
20분	나눔1	강의를 듣고 조별로 느낀 점 나눔	① 간단히 각자 소개하기 ② 토론 시간이 되지 않도록
15분	휴식	간단한 다과와 차	
40분	나눔2	주어진 질문으로 각 조별로 토론함	SWOT 방식으로 나눔을 진행
30분	발표	토론한 내용을 조별대표가 발표함	① 조에서 나온 중요한 의견 ② 간단한 결론적 제안
10분	담임목사 마무리	발표에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마무리	① 같은 내용으로 분류 ② 공동체에 대한 기대 ③ 격려와 축복
20분	기도회	비전을 방을 통해 나누었던 내용과 비전이 이끄는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함	① 담임목사 직접 인도 ②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 ③ 성령의 뜨거움 임재

2) 교역자 비전 TFT(Task Force Team)

연구자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비전을 수립하고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도해 나가며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비전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 비전위원회의 6명의 위원들이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역의 전문가이며 교회 비전을 만들어 가는데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교역자들을 비전수립 전 과정의 핵심그룹으로 선택을 하였다. 교역자 그룹은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교회 사역을 위해 모임을 하게 되지만 비전과 관련하여 모임을 하게 될 때는 '교역자 비전 TFT'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였다.

(1) 비전수립연구

일반적으로 연구라고 하면 믿음과 상반된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연구는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제화 할 수 있는 과정이며, 오히려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풍성한 비전을 얻는 필수적 단계가 된다. 이에 연구자는 교회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기획하면서 교역자들에게 4가지 연구과제를 주었다. 교역자 한 사람이 한 가지 비전의 방을 맡아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게 하였는데 첫째는, 비전의 방에서 실시한 설문지를 정리하는 것이다. 설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이나 교회에 필요한 정책들을 수집하게 된다. 둘째는, 비전의 방에서 나온 논의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교역자들은 비전의 방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면서 그 결과들을 교회비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는, 주목할만한 건강한 교회를 탐방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교역자는 각자가 맡은 비전의 방 그룹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여러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논문이나 책을 읽고 연구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회 비전을 다양한 목회전문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독서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교역자들이 독서를 통하여 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모으고 교회 비전에 반영하도록 했다.

(2) 비전수립회의

‘교역자 비전 TFT’은 매주 수요일 새벽기도회 후 6-9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이 시간을 선택한 이유는 평일 일과 시간에는 예상치 못한 심방이나 불가피한 교회 사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 교역자들은 아침을 다같이 먹으며 단합과 화합의 기회로 삼았으며 교역자의 역량과 자질을 강화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본격적인 회의 시간에는 한 주간동안 각자가 정리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발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교역자들이 서로 발전된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기도 하였다. 이런 반복된 회의를 통하여 교역자들은 각자가 맡은 주제들을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비전으로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3) 비전수립정리

교역자들은 비전 수립회의를 준비하면서 각자가 맡은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다른 교역자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경청하면서 목회적 관점에서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경험도 하였다. 하지만 가장 큰 회의의 결과는 신광교회 새로운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비전을 정하고 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비전의 방이 진행되는 수개월동안 교역자들은 각자가 맡은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발표하였지만, 비전선포주일이 다가올수록 교역자들이 논의한 결과들은 최종적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회비전으로 함께 모아졌다. 물론 그동안 취합하고 정리한 모든 내용들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하나의 도출된 비전으로 제시할 1차적 책임은 담임목사인 연구자에게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연구자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방향을 중심으로 모든 논의된 내용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도식화된 교회 비전을 교역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후 교역자들과 함께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교회 비전을 더욱 선명하고 간결하게 정립하게 되었다.

3) 전교인 비전수련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잠언 1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비전을 규범화하고 선포하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2019년 8월 15-17일 '한 몸 in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전교인 비전수련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신광교회 전세대가 한 장소에 머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 몸 된 주님의 공동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영적충전의 시간이 되었다.

비전수련회는 크게 세 가지를 목적하고 2박 3일동안 진행되었다. 첫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깊은 교제를 함께 나눈다는 것이다. 수련회 기간 동안 진행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그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지만 성도들의 친밀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런 교제의 시간을 통해 서로 관계가 소원했던 성도들이 친밀함을 회복하는가 하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둘째,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다. 수련회를 통하여 현재 교회와 자신들의 영적 현 주소를 되돌아보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자신과 교회를 살펴보면서 현재 지금의 모습보다 더욱 새롭게 변화될 교회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온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듣는 것이다. 이에 비전수련회의 강사로 본 연구자는 평소 존경하는 안산동산교회 원로목사 김인중을 초청하였는데 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주신 비전을 명확히 듣고 정리할 수 있었다. 건강한교회 행복한 교회(고전 12:12), 열리는 교회(골 4:2-3), 자녀가 더 잘되는 교회(대상 4:9-10),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고전 2:4-5) 등 새벽과 저녁 4번의 집회 말씀은 신광교회의 사역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보는듯하였다.

<표 29> 전교인 비전수련회 일정표

<table>
<tr><th>시 간</th><th>15일(목)</th><th>16일(금)</th><th>17일(토)</th></tr>
<tr><td>06:00 - 07:00</td><td></td><td colspan="2">아침예배</td></tr>
<tr><td>07:00 - 08:00</td><td></td><td colspan="2">세 면</td></tr>
<tr><td>08:00 - 09:00</td><td></td><td colspan="2">아침식사</td></tr>
<tr><td>09:00 - 10:00</td><td rowspan="2">출 발</td><td rowspan="6">힐링타임</td><td rowspan="2">골든벨을 울려라</td></tr>
<tr><td>10:00 - 11:00</td><td>폐회예배</td></tr>
<tr><td>11:00 - 12:00</td><td rowspan="3">등록 및 식사</td><td rowspan="8">집으로</td></tr>
<tr><td>12:00 - 13:00</td></tr>
<tr><td>13:00 - 14:00</td></tr>
<tr><td></td><td>개회예배</td></tr>
<tr><td>14:00 - 15:00</td><td>오리엔테이션</td></tr>
<tr><td>15:00 - 16:00</td><td rowspan="3">한 조 in 그리스도
(공동체 훈련)</td><td rowspan="3">한 몸 in 그리스도
(복화술의 은혜
속으로)</td></tr>
<tr><td>16:00 - 17:00</td></tr>
<tr><td>17:00 - 18:00</td><td rowspan="2">저녁식사</td></tr>
<tr><td>18:00 - 19:00</td><td rowspan="5"></td></tr>
<tr><td>19:00 - 20:00</td><td colspan="2">찬 양</td></tr>
<tr><td>20:00 - 21:00</td><td colspan="2" rowspan="2">한 말씀 in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회)</td></tr>
<tr><td>21:00 - 22:00</td></tr>
<tr><td>22:00 -</td><td>Vision sharing
(조별 비전 나누기)</td><td>Vision Night
(애찬식 및 찬양축제)</td></tr>
</table>

4) 2차 당회원 및 교역자 워크숍

한 해 동안 비전의 방을 중심으로 수렴된 성도들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교역자들은 담임목사인 연구자와 함께 신광교회 새로운 50년 비전의 밑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다. 8월 전교인 비전수련회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비전 구체화 작업에 돌입하였고 마침내 10월 말 당회원들 앞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모든 진행과정과 신광교회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당회원 및 교역자 워크숍을 통해서 목회 방향이 공개되고 장로들의 최종적인 의견을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다.

워크숍은 교역자들이 각자가 맡아 연구한 결과들을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모든 교역자들의 발표가 마치게 되면 그 모든 내용의 결과물로 교회 비전체계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담임목회자가 최종적으로 발표하면서 설명하게 된다. 신광교회는 워크숍 이후에 11월 두 차례의 당회를 통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고 더욱 세밀하고 선명한 목회 비전으로 교회에 적용할 수 있었다.

5) 비전 체계화

비전의 방을 운영한 것은 결국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교회비전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모든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그 비전에 동참시키기 위함이다. 교역자들로 중심이 된 비전 TFT은 각 비전의 방에서 나온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쳤다. 그 결과로 온 성도들 앞에서 선포할 비전을 목회적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규범화하였고, 신광교회 비전체계는 최종 정책당회에서 추인이 되었다. 교역자 비전 TFT을 통하여 연구자가 제시한 확정된 신광교회 비전은 사명, 사명선언문, 5대 교회비전, 핵심가치사역 등 4가지 항목의 비전체계로 정해졌다.

(1) 사명(Mission)

새로운 50년 신광교회가 추구할 교회 사명 “예수님의 3대사역 계승으로 펼쳐가는 하나님나라”로 정해졌다. 이 사명에는 그 동안 신광교회가 수십 년 동안 목적으로 삼았던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대로 이어 받고자 하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담겨 있다. 연구자는 교회의 영구표어와 목표를 그 의미는 최대한 바꾸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고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함축적 언어로 만들었다.

(2)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략한 문장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정해진 사명선언문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교회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가르쳐 키우고 치유하여,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한다”로 결정하였다.

(3) 교회 5대 비전(FIVE DREAM)

ⅰ)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Developing Disciples)

ⅱ)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Restoring Our Families)

ⅲ)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Enriching The Next Generation)

ⅳ)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Assisting Our Neighbors)

ⅴ)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Missionizing All Nations)

(4) 핵심가치사역(Core Value)

신광교회는 교회비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사역으로 “가르치는 사역, 회복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등 3대 핵심가치를 제시하였다. 핵심가치는 말 그대로 교회가 앞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에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하게 적용하고 반영할 사역이 될 것이다.

3. 교회비전 공유단계

설문결과의 전반적인 핵심은 ‘소통과 참여’라는 응답의 결과로 나타났다. 교회는 그 동안 성도들에게 비전 공유가 잘 되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참석자의 48.9%가 잘 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고, 무려 13.3%의 사람들이 매우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비전수립단계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과정은 비전 공유단계이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든든하게 서가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인들에게 충분히 비전이 설명되어야 한다. 이에 교회비전 공유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교회 비전을 잘 전달 할 수 있고, 한편 모두가 동참하는 교회비전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고자 한다.

1) 중직자 비전 설명회

연구자는 당회를 통하여 교회비전이 정해지자 가장먼저 중직자를 대상으로 비전 설명회를 가지게 되었다. 비전 설명회를 통하여 그동안 진행되어 온 비전수립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교역자들은 각자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여 그들이 한 해 동안 연구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발표하였다. 부교역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정리된 교회비전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의 목회방향을 포괄적으로 밝혔다. 무엇보다 참석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실제적인 비전 운영방안과 목회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보충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교회의 모든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과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전 설명회를 통하여 교회 비전을 미리 점검하고 협력을 구하는 이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중의 하나이다.

2) 비전 선포식

모든 비전의 방 일정이 끝나고 가시적인 비전체계가 도출되는 동안 연구자는 비전 선포식을 그 어떤 과정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였다. 앞서 설문결과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비전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인들과의 소통을 잊지 않는 것이다. 비전의 방에 참석한 과반의 성도들은 교회가 그동안 어떤 목적과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몰랐으며 성도들에게 공유되지도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때문에 연구자는 지금까지 준비해 온 교회비전이 모든 성도들에게 공개되는 비전 선포식 당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비전공유의 시간으로 보았다. 이런 비전 선포식을 통하여

성도들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에 동조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신광교회는 2019년 11월 17일 창립주일예배 시간에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50년을 향한 교회비전'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포식 예배의 첫 순서로 청년부가 준비한 스킷 드라마(Skit Drama)를 통하여 모두가 함께 이루어나갈 하나님 나라 비전을 관람했고 성도들은 깊은 감동과 감사로 가득했다.

이후 연구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마 9:35)라는 제목으로 비전메세지를 선포하였다.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신광교회는 '오직예수'라는 깃발 아래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제 앞으로 달려나갈 새로운 50년은 교인들과 함께 만든 비전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연구자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펼쳐가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자고 성도들에게 호소하였다.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감사, 은혜, 기대라는 세가지 테마로 제작한 성도들의 간증영상은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 보고 다가 올 미래를 기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영상이 시작되면서 1부 예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2부 비전선포식이 진행되었다. 청년부 대표 두사람의 사명선언문 낭독에 이어 각 세대 5명의 대표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 교인들의 함성과 함께 신광교회 5대비전인 DREAM 현수막을 하나씩 내리는 세리머리가 시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디자인하고 제작한 '하나님 나라' 스티커 부착식을 통하여 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구호를 외치며 하나님 나라 비전에 함께 동참할 것을 결단하였다. 무엇보다 선포식의 하이라이트는 비전비행기 날리기였다. 교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교회에 대한 기대감과 기도제목을 노란 종이비행기에 적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강대상 앞쪽으로 날렸으며 그야말로 비전선포식은 절정에 달하였다.

<표 30> 비전 선포식 및 창립감사주일 예배 큐시트

시 간	순 서	설 명	비 고
10:45~10:59	찬 양	감사하신 하나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마지막 찬양 때 대표 기도자 강단 등단
11:00~11:04	대표기도		* 오르간 기도 반주
11:05~11:15	스킷 드라마	청년부 에벤에셀팀	* 기도 후 자연스럽게
11:15~11:20	성경봉독	본문: 마 9:35	
11:20~11:25	성가대찬양		* 성경봉독 후 바로 진행
11:25~11:45	비전메세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 헌금기도와 함께
11:45~11:50	헌 금	찬송가 217장	
11:50~11:55	영 상	인터뷰영상	
11:55~12:15	비전선포식	1) 사명 선언문 2) 5대비전 선포식 3) 결단식(스티커 붙이기) 4) 구호 제창: “우리는 하나님나라입니다” 5) 비전 종이 비행기	* “위원 입장” 멘트와 함께 음악재생 * 목사님 통성기도 안내할 때 기도반주 * 비전비행기 날리기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반주 (후렴만 반주)
12:15~12:18	송 영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후렴만)	
12:18~12:19	축 도		
12:19~12:24	케익 커팅식	원로 및 당회원, 각 대표들과 함께	케익
12:24~	기념촬영		

3) 비전집중설교

연구자는 비전 선포식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주부터 10주간에 걸쳐서 매주 주일 '비전집중설교'를 진행하였다.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를 함께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비전 소통과정 중의 하나이다. 이에 연구자는 비전 선포식에서 제시한 신광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5대비전, 또한 교회의 3대 핵심가치를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매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설교 말씀을 각 주제에 맞춰 전달하면서 교회가 앞으로 추구할 비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 나갈 것인지, 성도들은 그 비전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듣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표 31> 비전집중설교 목록

날 짜	본 문	제 목
2019-11-17	마 9:35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2019-11-24	마 28:19~20	하나님 나라 사명
2019-12-1	고전 9:24~27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2019-12-8	창 2:18~25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2019-12-15	삿 2:6~10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2019-12-22	눅 10:25~37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2019-12-29	행 13:1~5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2020-1-5	딤후 3:14~17	교회의 핵심가치(1): 가르치는 사역
2020-1-12	삼상 22:1~5	교회의 핵심가치(2): 회복하는 사역
2020-1-19	막 1:35~39	교회의 핵심가치(3): 전파하는 사역
2020-1-26	마 6:31~34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

4) 매스미디어를 통한 나눔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교회의 비전과 목회 방향을 성도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광고나 정보전달은 단순한 사역의 나열이나 교회 비전과 별개로 전해질 때가 많다. 비전 선포식 전후 교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성도들에게 비전을 전달할 방법을 찾고 활용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연구자는 비전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로 교회주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였다. 교회주보는 모든 성도들이 매주 꼭 가져가는 정보전달의 수단이기에 상세한 설명이 첨가된 교회비전체계를 주보 주요면에 몇 주간에 걸쳐서 게재하였다. 현재 2020년 새해부터 변경된 교회 주보에는 한쪽 전면이 교회비전도식과 설명으로 디자인이 되어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 비전 브로슈어 제작, 비전 로고 디자인, 교회본당 비전현수막 설치 등 교회비전을 성도들에게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활용하였다.

5) 비전 실행위원회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신광교회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한 희망찬 도약이 시작하였다. 이제는 더욱 구체화된 하나님나라 교회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비상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연구자는 선포된 비전이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교회의 비전으로 잡을 수 있을지, 또한 성도들이 외우고 아는 비전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비전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강하게 느꼈다. 이에 앞으로 5년 동안 제자양성, 가정회복, 다음세대, 이웃섬김, 세계선교 등 5대비전을 교인들에게 공유하고 적용해 나갈 실행위원회를 단계적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당회의 요청으로 가장 먼저 다음세대사역을 위한 비전 실행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위원회에는 교육부서관련 장로 2인, 3040세대 남녀전도회 회장 2인, 교역자 1인으로 총 5명이 구성되었다. 앞으로 비전 실행위원회는 교회학교 시설을 포함하여 다음세대의 주축인 3040세대 사역을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면 좋을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게 될 것이다. 추후 다양한 비전 실행위원회를 필요에 따라서 각 분야에 맞추어 출범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 비전의 방 사역에 대한 소결론

본 연구자가 안산동산교회에서 9년간 사역을 하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다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성도들에게 공유하고 그 비전을 함께 구현해 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신광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 장로들은 물론이요 성도들 역시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새로운 목회 비전으로 역동적으로 변화되기를 연구자에게 기대하였다. 이러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연구자에 주신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가자” 였다. 그래서 ‘비전의 방’ 사역을 계획하고 구성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의 비전을 수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한 해 동안 비전의 방을 진행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연구자에게 다시없는 값지고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교회 비전을 만들겠다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만남의 기쁨이 비전의 방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며 교회를 향한 의식과 태도가 점점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꿈도 얻을 수 있었다.

비전의 방을 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통해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공유하고, 참여자들은 토론을 통하여 각자 교회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시는 비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결국 교회는 비전의 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전의 방을 통하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해 가는 문화를 마련해 주고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비전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한다. 비전의 방 사역 초기에는 나눔이 자연스럽지 않은 성도들이 토론에 잘 집중하지 못하였지만, 구체적인 나눔의 주제와 방향,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여러 번 대화를 진행하게 되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교회 부흥을 꿈꾸기 시작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오롯이 집중하며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만들어 나간다면 모든 결과는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교회 비전을 수립해 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누가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연 중 진행된 비전의 방의 수고와 노력이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세부적으로 잘 정리하고 더욱 발전시킬 그룹이 필요했다. 이에 연구자는 부교역자들을 통하여 비전의 방에서 나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하였고, 교회비전수립에 참고할 만한 설문을 진행하게 하며, 교회 탐방 및 각종 자료 연구 등을 통하여 교회 비전체계 확립에 집중하여 헌신하도록 하였다. 분명한 것은 이 같은 교역자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인하여 신광교회 새로운 50년의 비전이 가시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었고, 성도들은 앞장서서 교회를 목양하는 담임목사와 교역자들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교역자 그룹만큼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공동체는 없다. 단순한 정리와 연구가 아니라 교역자들은 더욱 기도에 집중하여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담임목회자와 함께 생각들을 나누고 지혜들을 모을 때 교회가 붙잡아야 할 분명한 비전과 방향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요즘처럼 비전이라는 단어가 사람들로부터 터부시되는 시대도 없을 것이다. 청년들은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오히려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맞냐고 분노를 표출한다. 하지만 연구자가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비전을 연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하여 움직여 간다”는 확신이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개인 혹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셨고 거부할 수 없는 그 비전에 목숨을 걸고 헌신했을 때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노력하고 준비하여 진행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지는 것만큼 교회에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때문에 비전의 방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다. 연구자는 지난 1년 동안 비전의 방을 운영하면서 경험하였듯이 성도들의 화합을 이루고, 교회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며, 교회의 전통을 이어 교회가 새롭게 나갈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사역의 최전선에서 어떻게 교회를 목양해야 할지 밤낮 연구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다. 목회자들만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에 비전의 방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전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분명 유용한 사역이 될 것이다.

5. 교회 비전수립을 위한 발전적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신광교회에서 적용한 비전수립과정은 전통교회가 새로운 비전으로 활력을 되찾고 성도들의 연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비전의 방을 통하여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들이 반영되어 교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비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방을 중심으로 교회비전을 함께 세워가는 사역의 보람이요 가시적인 열매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광교회에서 운영해 온 비전확립과정은 한국교회가 받아들이고 따라 할만한 가치 있는 사역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비전의 방 사역은 물론 전반적인 비전수립과정을 한국교회가 적용하여 더욱 비전 중심의 건강한 교회들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먼저, 담임목회자는 교회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회비전은 교회의 지나온 역사 위에 새롭게 새워져야 한다. 때문에 목회자는 지나온 교회의 과거는 물론 현재 교회의 모습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 속에서 비전에 관한 성경적 지식과 목회철학이 함께 어우러진 통합적 사고를 준비하고 비전취합을 시작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분석과 분명한 목회철학을 기본으로 하였기에 교인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둘째, 소통과 관계에 대한 목회 본질의 적용이 필요하다. 비전의 방 사역은 성도들 상호간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관계 안에서 비전을 세우는 일이다. 때문에 단순히 비전수립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들마다 관계를 세우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비전의 방 사역을 진행하면서 모든 순서에 성도들이 공동체로 하나되고 연결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였다.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자 도전하는 것은 교회의 비전을 세우는 일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부교역자들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지도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선명한 교회 비전체계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비전의 방을 통해서 성도들이 개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하고, 그 생각들을 충분히 검증하며, 더불어 더욱 확장하여 구체적인 비전으로 도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자는 비전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부교역자 그룹을 중심으로 이 과정을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시도하였다. 독서, 연구, 탐방, 세미나, 기획 등 비전을 세우기 위한 부교역자들의 목회적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역량 있는 교역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비전은 더욱 질적으로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넷째, 다양한 대상을 향한 목회 철학과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8번의 비전의 방을 운영하면서 참석자들은 각기 다른 대상그룹에 소속되어 있었고 교회에 대한 생각들도 달랐다. 때문에 연구자는 그 대상에 맞는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교회 모습에 대하여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한층 더 교회의 여러 사역에 대한 경험과 전략적인 사고가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충분한 목회적 경험과 준비 없이 열정만으로 비전 수립에 나서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비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도함으로 성도들의 기대감을 상승시켜야 한다. 새로운 비전을 세운다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비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때문에 비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에게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질 비전에 대한 교인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어떤 교회들은 오랫동안 교회 비전을 세우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 결과만 일방적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교인들 상호간에 갈등을 빚기도 하며, 전체가 함께 하는 어우러진 비전이 아니라 일부만 동참하는 위기를 겪기도 한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새로운 비전에 대한 성도들의 기대를 연중 극대화 시켜주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비전구상설교, 153감사운동, 비전트립, 전교인 비전수련회, 비전선포식 등 다채로운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끊임없이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기다리며 함께 헌신하고 싶은 교회 분위기로 전환해 나가고, 모두가 비전 구축과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꼭 있어야만 되는 과정이다. 앞으로 이러한 제언들을 참고하여 비전의 방 사역이 한단계 더 완성된 비전수립과정으로 교회들에게 적용되어 비전이 이끄는 건강한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소개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제 6 장

결론

본 논문은 현재 한국교회에 대두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특별히 교회의 침체, 교회의 분열, 리더십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한국교회가 그 동안 1세대, 2세대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해오다가 리더십 교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구자처럼 젊은 목회자의 과도한 열정과 직전 목회자와의 갈등으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다. 따라서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힘껏 도약할 수 있는 비전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은 교회의 은혜로운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성경에서 비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비전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움직이는 비전의 공동체로 살았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중세교회의 목회자요 신학자인 예레미야 버로우스와 윌리엄 퍼킨스, 부흥운동의 선구자 죤 웨슬리 등 이들의 삶을 통하여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한가지는 그들은 각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나온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비전을 개인과 공동체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역동적이며 영향력 있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온 성도들이 연합하고 그 비전과 방향에 그들의 열정을 다 쏟아 낸다는 것이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소그룹, 다양한 강단을 통하여 전달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체계화된 양육훈련을 통하여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뜻이 각 개인의 삶에 변화를 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끄시는 데로 움직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것과 교회부흥을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 비전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비전 중심적으로 교회를 목양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연구자에게 안타까움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설교 시간에 간헐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비전을 어떻게 취합하고 성도들에게 확장해 나가야 하는지 아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연구자는 안산동산교회 사역을 통해 교회가 비전을 따라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하는지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연구자에게 준 크나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연구자는 비전의 방 운영뿐 아니라 교회의 비전을 확립할 수 있는 전체 수렴과정을 본 교회에서 실행하였고,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비전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4장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교회 비전구축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교회의 긍정적 변화와 활력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거듭 확인이 되었다. 설문에 응한 50% 이상의 참석자들이 그 동안 개인의 삶이 바빠서 공동체의 비전에 관심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는데, 대부분 비전의 방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비전과 담임목회자의 목회철학에 대하여 조금이나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분석된다.

무엇보다 교회 전 세대가 전혀 갈등없이 함께 어우러져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다같이 꿀 수 있게 된 것은 비전의 방의 큰 효과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설문에 응한 62.2%의 참석자들이 비전의 방을 통하여 그 동안 교류가 없었던 교인들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얻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확인된다. 연구자가 비전의 방을 계획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 것이 소통과 화합이었는데 이러한 설문결과를 통해 비전의 방이 그 목적에 맞도록 잘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젊은 3040세대의 주요 관심이 교회 공동체의 비전보다는 개인적인 교제나 자녀교육에 있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이에 새로운 교회 부흥을 위하여 더욱 청년 및 젊은 세대를 동참시킬 수 있는 비전의 방 사역의 확대가 요구된다.

5장을 통하여 이렇게 분석된 내용들이 실제로 교회 비전수립 과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지난 1년동안 비전의 방 사역과 교회 비전확립을 위한

여러 과정들을 집중하여 진행해 왔다. 성도들의 관심을 교회 비전에 둘 수 있도록 비전설교를 계획하였고, 성도들의 생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비전의 방을 계획하고 일정에 따라 운영을 하였으며, 새로운 비전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중 목회계획으로 세워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것뿐 아니라 더 선명한 비전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교역자들과 함께 수십 번 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정리하기도 하였다. 비전선포식 및 비전집중설교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의 노력과 교회의 구체적인 방향이 잘 설명되는 기회가 되었고 새로운 교회 비전이 안정적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확인된 확실한 한가지는 비전확립과정에 대한 연구는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는 것이다. 비전의 방 사역은 성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뿐 아니라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하여 교회의 과거 역사와 새롭게 나갈 교회의 미래를 연결해 주는 가교역할을 감당해 준다. 따라서 비전의 방 사역이 신광교회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성장을 위한 목회전략이 아니라 비전을 실제적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좋은 모델로 따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성도들과 함께 교회비전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비전의 방은 각 교회의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연구에 있어서 분명 한계점도 실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인천에 거주하는 성도들 중 비전의 방에 참여한 교인들로 검증이 되었다. 연구를 통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긴 하였지만 지역적 한계를 가진다. 이것은 수도권 여러 도시들과 중소형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포함하여 농어촌 교회 등 다양한 성도들의 생각이 배제된 것이다. 둘째, 비전의 방을 통한 교회비전 확립에 관한 연구가 50년된 전통교회에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자가 비전의 방을 시행한 신광교회는 여러 조직이 잘 갖추어진 중형교회이다. 때문에 조직이나 교회 구성원이 많지 않은 개척교회나 신생교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제한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가 비전을 세워가는 과정에 집중하였기에 도출된 비전이 실제적으로 교회에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전선포식 이후에 비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음을 밝힌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더 보편적이고 발전적인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먼저는 연구가 인천을 포함한 광역도시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폭 넓게 적용된다면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척교회나 소규모 교회에서 비전을 세워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대형 교회의 비전 구축에 관한 연구는 많이 개발된 상황이지만,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의 비전 수립과정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비전수립과정을 교회들이 전부 다룰 수는 없겠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의 '소통정신'을 목회현장에 접목해보는 연구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 초기단계부터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회의 비전을 세워가는 목회현장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비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으면 한다. 이에 따라 성도들이 교회비전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비전 실행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렇게 비전확립과정의 결과로 교회는 앞으로 추구해야 할 새로운 비전을 보유함과 동시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비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일꾼을 키우는 비전 실행사역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연구하여 한층 더 완성된 비전수립과정이 소개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신광교회에서 진행한 비전의 방과 비전확립과정은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모든 한국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움직여가는 비전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연구이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반드시 함께해야 할 사역임을 확신한다.

현재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상은 교회의 긍정적 모습보다는 자꾸만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바라보고 비판한다. 교회를 향한 냉소적인 분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팽배해져 있다. 이때 교회는 더욱 화합하고 교회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여 나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연구자가 제시한 비전의 방 중심의 교회비전 확립과정은 성도들의 소통을 이끌어 내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교회비전을 갈등 없이 도출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를 통해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는 비전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비전이 이끄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APPENDIX A
부록 A

설문동의서(한글)

비전의 방을 통한 교회비전 확립 방안 연구: 인천 신광교회를 중심으로

박 성 호

리버티대학교, 신학대학원

귀하를 연구자의 연구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신광교회 교인으로서 비전의 방을 통한 교회비전 확립 방안 연구(신광교회를 중심으로)에 초대되었습니다. 귀하는 20 세 이상의 신광교회 교인으로서 참여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본 동의 문서를 잘 읽으시고 문의사항이 생기면 질문을 해 주세요.

리버티 대학(Liberty University)의 신학대학원(School of Divinity)에 소속된 박사과정 중에 있는 박성호(SUNGHO PARK)는 본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경설명: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인들과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비전확립 과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비전을 세우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전달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또한 신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비전에 집중하고 모든 교인들이 활력을 얻어 교회부흥에 쓰임 받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연구진행과정: 만일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다음의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나는 무기명 설문 조사와 30 분의 시간을 당신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위험요소: 본 연구를 통해 발생될 위험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발생할 위험요소는 극히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문참여자가 매일 겪게 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위험요소와 같은 정도입니다.

혜택: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직접적인 혜택들은 없을 것입니다.

보상: 설문참여자들은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보상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비밀유지: 본 연구의 기록들은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연구자의 어떠한 형태의 출판이나 보고서에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귀하의 모든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기록들은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며 본 연구자만이 그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가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료들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컴퓨터에 보관될 것이며 향후 연구발표 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자료들은 삼 년 후에 삭제될 것이며 종이문서들은 파쇄될 것입니다. 설문참여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그룹 밖의 사람들과 그룹 안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해의 충돌 고지(告知): 해당사항 없음

자발성에 입각한 연구: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의 가부가 귀하의 현재와 미래의 리버티 대학교, 신광교회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신 뒤에도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참여중단이 위의 관계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참여를 중단하는 방법: 귀하가 연구참여 중단을 원할 경우 귀하의 설문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연구자에게 연구참여를 중단할 의사를 밝히세요. 귀하의 응답들은 기록되거나 연구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자 연락처, 질문: 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박성호(SUNGHO PARK)입니다. 지금 바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추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지체 말고 82-10-5350-0771/ spark56@liberty.edu 으로 연락하십시오. 본 연구자의 지도교수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정교수: 82-01-2031-9985 yjlee@liberty.edu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이나 염려가 있고 연구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은 경우 지체 없이 International Review Board 로 연락을 하십시오: 1971 University Blvd., Green Hall Ste. 2845, Lynchburg, VA 24515 or email at irb@liberty.edu.

APPENDIX B
부록 B

CONSENT FORM

A STUDY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HURCH VISION THROUGH THE VISION ROOM: THE CASE OF INCHEON SHINKWANG CHURCH IN KOREA

SUNGHO PARK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You are invited to be in a research study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HURCH VISION THROUGH THE VISION ROOM: THE CASE OF INCHEON SHINKWANG CHURCH IN KOREA. You were selected as a possible participant because you are 20 years of age or older and you are a member of Shinkwang church. Please read this form and ask any questions you may have before agreeing to be in the study.

SUNGHO PARK, a doctoral candidate in the School of Divinity at Liberty University, is conducting this study.

Background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hurch's vision and to propos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vision by which will be made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church members. Additionally, this study has its purpose in Shinkwang church being more focused on the vision that is grounded on the Word of God and in rejuvenating the church members so that they could serve in reviving the church.

.

Procedures: If you agree to be in this study, I would ask you to do the following things:

1. Complete and answer a 30-minute long survey.

Risks: The risks involved in this study are minimal, which means they are equal to the risks you would encounter in everyday life.

Benefits: Participants should not expect to receive a direct benefit from taking part in this study.

Compensation: Participants will not be compensated for participating in this study.
Confidentiality: The records of this study will be kept private. Research records will be stored securely, and only the researcher and the researcher's faculty chair will have access to the records. Participant survey responses will be anonymous. Data will be stored on a password locked computer and in a locked desk and may be used in future presentations. After three years, all electronic records will be deleted and all paper records will be shredded.

Voluntary Nature of the Study: Participation in this study is voluntary. Your decision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will not affect your current or future relations with Liberty University or Shinkwang church. If you decide to participate, you are free to not answer any question or withdraw at any time, prior to submitting the survey, without affecting those relationships.

How to Withdraw from the Study: If you choose to withdraw from the study, please do not complete or submit your study materials. Your responses will not be recorded or included in the study.

Contacts and Questions: The researcher conducting this study is SUNGHO PARK. You may ask any questions you have now. If you have questions later, you are encouraged to contact him at 82-10-5350-0771/ spark56@liberty.edu. You may also contact the researcher's faculty chair, Yoojung Lee, at yjlee@liberty.edu.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regarding this study and would like to talk to someone other than the researcher, you are encouraged to contact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1971 University Blvd., Green Hall Ste. 2845, Lynchburg, VA 24515 or email at irb@liberty.edu.

APPENDIX C
부록 C

설문서 (한글)

비전의 방 사역을 위한 설문 문항

(해당 문항에 체크(✓) 해 주세요.)

(인구사회학적 영역)

1. 성별:

① 남 ② 여

2. 나이: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3. 교회를 출석한 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1-3년 ② 4-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 이상

4. 현재 교회에서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① 장로 ② 권사 ③ 안수집사 ④ 집사 ⑤기타

(교회 인식도에 대한 질문)

5. 현재 50년 된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활기차다 ② 활기차다 ③ 보통이다 ④ 정체되어 있다 ⑤ 매우 정체되어 있다

6.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친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친밀하다 ② 친밀하다 ③ 보통이다 ④ 폐쇄적이다 ⑤ 매우 폐쇄적이다

7. 우리 교회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보통이다 ④ 없다 ⑤ 기타

8. 당신은 교회가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9.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지금과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성장할 것이다 ② 성장 할 것이다

③ 지금과 같을 것이다 ④ 침체될 것이다

⑤ 매우 침체될 것이다

(비전 인식도에 대한 질문)

10. 당신은 그 동안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까?

① 매우 잘알고 있었다 ② 알고 있었다 ③ 알 것 같다 ④ 잘 몰랐다 ⑤ 전혀 몰랐다

11. 우리 교회는 그 동안 교회비전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과 사역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못하다 ⑤ 전혀 그렇지 못하다

12. 우리 교회는 그 동안 전세대 모든 교인들에게 교회비전이 널리 공유되고 있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못하다 ⑤ 매우 그렇지 못하다

13. 우리 교회의 그 동안 모든 사역은 교회 비전에 잘 부합되어 만들어져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못하다 ⑤ 매우 그렇지 못하다

14.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가지 중복선택)

① 교육 ② 비전 ③ 봉사 ④ 전도 ⑤ 교제

(비전의 방 사역에 대한 질문)

15. 당신이 참여한 비전의 방에 대해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16. 당신은 우리 교회 비전확립을 위해 비전의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17. 비전의 방은 당신이 교회 관심을 가지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못하다 ⑤ 전혀 그렇지 못하다

18. 비전의 방 참여가 당신에게 주었던 가장 큰 영향은 무엇입니까?

① 교인들과의 교제 ② 교회 비전의 소통

③ 교회 비전의 참여 ④ 교회 프로그램 참여

⑤ 기타

19. 비전의 방은 우리 교회의 사역 방향과 비전을 정하는데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못하다 ⑤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 앞으로 교회가 비전의 방 사역을 계속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참여하겠다 ② 참여 하겠다 ③ 보통이다 ④ 참여하지 않겠다 ⑤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

(비전의 방 운영에 대한 질문)

21. 교인들이 참여하는 비전의 방은 1년에 몇 번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많을수록 좋다

22. 비전의 방 운영에 적절한 참여 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10명 이하 ② 11-30명 ③ 31-50명 ④ 51-100명 ⑤ 101명 이상

23. 비전의 방에 참여하는 교인들은 어느 대상까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장로 및 교역자 ② 중직자 ③ 중직자 및 청년 ④ 모든 교인 ⑤ 기타

24. 더 발전된 비전의 방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주제강의 ② 토론 및 나눔시간

③ 발표시간 ④ 질의 및 응답시간

⑤ 기도회

25.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비전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전설교 ② 소통을 위한 모임 ③ 사역팀 구성 ④ 모델교회 탐방 ⑤ 기타

APPENDIX D
부록 D

Survey Questions

This survey is designed for a dissertation titled "A STUDY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HURCH VISION THROUGH THE ROOM OF VISION: THE CASE OF INCHON SHINKWANG CHURCH IN KOREA." The contents and answers will not be used for other uses. Please refer to the explanation of the investigator and answer the questions. Thank you.

(Personal Questions)

1. What is your Gender?

① Male ② Female

2. In which category does your age fit in?

① 20-29 ② 30-39 ③ 40-49 ④ 50-59 ⑤ 60 and over

3. How long have you been attending church?

① 1-3 years ② 4-10 years ③ 11-15 years ④ 16-20 years ⑤ More than 21 years

4. What is your duty in the church?

① Elder ② Deaconess ③ Ordained Deacon ④ Deacon ⑤ Other

(Survey on Self-Awareness of the Local Church)

5. What do you think the ambience of 50 years old Shinkwang church is like?

① Very Active ② Active ③ Moderate Scale ④ Stagnant ⑤ Very Stagnant

6. Are the members of Shinkwang church intimately and mutually cooperating in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① Very Intimately Cooperating ② Intimately Cooperating ③ Moderate Scale

④ Closed ⑤ Very Closed

7. Does Shinkwang church have ways to reflect church members' opinions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① There are many ways ② There are ways ③ Moderate Scale ④ None ⑤ Others

8. Do you think that many changes are needed for Shinkwang church to prepare the further 50 years?

① Very Needed ② Needed ③ Moderate Scale ④ Not Needed ⑤ Not Needed at All

9. What do you think the future of Shinkwang church will be compared to current status?

① Will grow much ② Will grow ③ Same as now

④ Will be stagnant ⑤ Will be very stagnant

(Survey on Awareness of the Church's Vision)

10. Were you aware of what the vision of Shinkwang church was?

① Very aware ② Aware ③ I have an idea of what it was.

④ Not aware ⑤ Not aware at all

11. Did Shinkwang church execute all the programs and ministries according to the church's vision?

① Definitely Yes ② Yes ③ Moderate Scale ④ No ⑤ Not at All

12. Did Shinkwang church share the church's vision to all the generations?

① Definitely Yes ② Yes ③ Moderate Scale ④ No ⑤ Not at All

13. Did Shinkwang church's ministries in the past match the church's vision?

① Definitely Yes ② Yes ③ Moderate Scale ④ No ⑤ Not at All

14. What do you think is most needed for Shinkwang church to be established healthy in the future? (Choose two from below)

① Education ② Vision ③ Service ④ Evangelism ⑤ Fellowship

(Survey on the Vision Room Ministry)

15.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Room of Vision* according to your experience?

① Very satisfied ② Satisfied ③ Moderate Scale ④ Not satisfied ⑤ Not satisfied at all

16. Do you think that *The Room of Vision* is needed for Shinkwang church to establish its vision?

① Definitely needed ② Needed ③ Moderate Scale ④ Not needed ⑤ Not needed at all

17. Do you think that *The Room of Vision* influenced you to have more attention to the church?

① Definitely Yes ② Yes ③ Moderate Scale ④ No ⑤ Not at all

18. What is the greatest influence that *The Room on Vision* gave you?

① Fellowship with the church members ② Communication of church's vision

② Participation in church's vision ④ Participation in church's program

⑤ Others_____

19. Do you think that *The Room of Vision* assisted Shinkwang church in deciding its direction and vision?

① Definitely Yes ② Yes ③ Moderate Scale ④ No ⑤ Not at all

20. Are you willing to participate if the church continues to conduct the ministry of *The Room of Vision*?

① Will participate for sure ② Will participate ③ Moderate scale

③ Will not participate ⑤ Will never participate

(Survey on Operating the Vision Room)

21. How frequent per year do you think is appropriate for the church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Room of Vision*?

① Once ② Twice ③ Three times ④ Four times ⑤ More the better

22. What do you think is the appropriate participating number in operating *The Room of Vision*?

① Less than 10 ② 11-30 ③ 31-50 ④ 51-100명 ⑤ More than 100

23. Who should be the objects for participating in *The Room of Vision*?

① Elders and ministers ② Important Officers ③ Important Officers and Young Adults

④ Every church member ⑤ Others _____

24. What is needed for *The Room of Vision* to be developed?

① Thematic lecture ② Time for discussion and sharing ③ Time for presentation

④ Time for questions and answers ⑤ Prayer meetings

25.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for Shinkwang church to be established healthy on the ground of a vision that is based on the Word of God?

① Sermons of vision ② Assembly for communication ③ Composing a ministry team

④ Visiting role-model churches ⑤ Others _____

BIBLIOGRAPHY
참고자료

1. 단행본 및 번역서

강병훈 편. 「쉐마 주제별 종합자료 사전」. 서울: 성서연구사, 1990.

김인중.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13.

———.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8.

———.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 서울: 규장, 2011.

———. 「김인중목사의 희망도시 선포」. 시흥: 가나북스, 2014.

김학중.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위대한 신학자」. 서울: 넥세스CROSS, 2013.

권성수. 「생명사역」. 대구: 생명사역훈련원, 2017.

문병호.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1.

명성훈. 「교회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박찬식, 이우성 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박용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안산: 큰숲, 2009.

배종석, 양현석, 류지성.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서울: IVP, 2008.

서길원. 「Restart의 원리로 미래를 여는 교회」.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8.

송삼용. 「장 칼뱅」. 서울: 넥세스CROSS, 2009.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서울: 두란노, 2009.

신성관. 「Simple Bible Plus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안희묵. 「교회, 다시 꿈꾸다」.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5.

이평강. 「만점짜리 셀리더로 서기」. 서울: 두란노, 2012.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8.

이동원. 「역경에 무릎 꿇지 마라」. 서울: PLI, 2013.

_____. 「비전의 신을 신고 내일로 간다」. 서울: 두란노, 2010.

_____. 「지구촌교회의 목장이야기」. 서울: 요단, 2015.

_____. 「하나님 나라 비전 매핑」. 서울: 두란노, 2012.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정완기. 「칼빈신학과 기독교강요」. 서울: 도서출판씨토스, 1995.

정재영. 「한국교회, 10년의 미래」. 서울: SFC출판사, 2014.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_____.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최홍석. 「교회론」. 서울: 도서출판솔로몬, 2001.

하용조 편. 「비전성경사전」. 서울: 두란노, 2002.

하용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서울: 두란노, 2007.

홍인규. 「바울신학 사색」. 서울: 킹덤북스, 2010.

Beer, David. 「비전과 목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천슬기 역. 서울: 서로사랑, 2008.

Berkhof, Louis. 「벌코프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Braoudakis, Paul 편저. 「윌로우크릭 지도자핸드북」. 김양석 역. 서울: 두란노, 1997.

Brooks, Thomas.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 이태복 역. 서울: 지평서원, 2001.

Burroughs, Jeremiah. 「세상에 속하지 말라」.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7.

Clowney, P. Edmund.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F, 1995.

Coekin, Richard. 「교회성장 DNA」. 김성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8.

Cuningham, William. 「역사신학(상)」. 라은성 역. 서울: 도서출판그리심, 2004.

Donahue, Bill and Robinson, Russ. 「소그룹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Driscoll, Mark and Breshears, Gerry. 「기독교 교리」.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Dunahoo, H. Charles. 「하나님 나라의 제자」. 이현민, 김양숙, 김종훈 공동역. 인천: 템북, 2019.

Dunn, D. G. James. 「바울신학」.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3.

Gets, A. Gene and Wall, Joe. 「효과적인 교회성장전략」. 김현희 역. 서울: 디모데, 2000.

Goodwin, Thomas.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들」. 박현덕 역. 서울: 지평서원, 2001.

Haggai, E. John. 「미래는 진정한 리더를 요구한다」. 임하나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7.

Leo, Eddy. 「ECCLESIA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세일 역. 안산: 큰숲출판사, 2018.

_____.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안산: 큰숲출판사, 2013.

Maxwell, John. 「당신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 강준민 역. 서울: 두란노, 2000.

McGrath, E. Alister. 「루터의 십자가 신학」. 정진오 역. 서울: 컨콜디아사, 2012.

Mcknight, Scot. 「하나님 나라의 비밀」. 김광남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Mead, Matthew. 「유사 그리스도인」. 장호익 역. 서울: 지평서원, 2002.

Milton, A. Micheal. 「교회 비전 바로 세우기」. 이호우 역.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6.

Murphy, Troy. 「성장하는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이상준 역. 서울: 두란노, 2004.

Perkins, William. 「황금사슬: 신학의 개요」. 김지훈 역. 용인: 킹덤북스, 2016.

Rainer, S. Thom.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최예자 역. 서울: 프리셉트, 2013.

Shaw, Mark. 「비전」. 조정규, 임종원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5.

Stanley, Andy. 「비저니어링」. 정연석 역. 서울: 디모데, 2001.

Spurgeon, H. Charles. 「스펄전 설교전집 출애굽기」. 보문번역위원회 역. 대구: 보문출판사, 2003.

Warren, Rick.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삼 역. 서울: 디모데, 2007.

Wesley, John. 「존 웨슬리의 일기」. 김영운 역. 파주: CH북스, 2019).

Yancey, Philip.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윤종석 역. 서울: IVP, 2010.

2. 정기간행물

신도배. “공동 목회를 꿈꾸다(1)”. 「목회와 신학」. 2019년 9월.

3. 온라인 자료

교갱뉴스, “안산동산교회 셀 컨퍼런스 ‘큰숲비전축제’”〔온라인자료〕
http://www.church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30. 2020 년 2 월 14 일 접속.

기독공보, “교회 성장만이 목표는 아니다” 〔온라인자료〕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5819342933. 2020년 2월 8일 접속.

기독신문, “우리 시대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13)기쁨의동산교회”
〔온라인자료〕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45. 2020년 2월 13일 접속.

——— . “건강한 교회 대안, 교회 분립개척 주목받는다”〔온라인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68594. 2020년 2월 13일 접속.

국민일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 〔온라인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1679176. 2020년 2월 7일 접속.

——— . “안산동산교회 올해 창립 30주년 목회 노하우 지원 큰숲운동 펼쳐”
〔온라인자료〕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1310171. 2020년 2월 12일 접속.

——— . “목회 현장서 지친 목회자들 ‘셀모임’ 통해 힘 얻는다”〔온라인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60343&code=23111111&cp=nv. 2020년 2월 13일 접속.

——— . “세대, 이념, 지역 넘어선 새 사역 플랫폼 만들자”〔온라인자료〕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83306. 2020년 2월 14일 접속.

안산동산교회. “셀과 양육”〔온라인자료〕 http://www.d21.org/02cell_training/dschurch_cell.aspx. 2020년 2월 6일 접속.

——— . “교회비전”〔온라인자료〕 http://www.d21.org/01intro/vision.aspx. 2020년 2월 7일 접속.

——— .“동산상담소”〔온라인자료〕
http://mentor.d21.org/Web/Edu/Edu_happyFamillySchool. 2020년 2월 7일 접속.

——— .“교회비전”〔온라인자료〕 http://www.d21.org/01intro/vision.aspx. 2020년 2월 9일 접속.

——— .“양육소개”〔온라인자료〕 http://www.d21.org/02cell_training/celltraining_intro.aspx. 2020년 2월 11일 접속.

——— .“신앙기초과정”〔온라인자료〕http://www.cellnetwork.or.kr/300/A00/cellbasic_newfamily.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 .“새가족모임”〔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300/A00/cellbasic_newfamily.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 .“성경학교”〔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300/A00/cellbasic_bibleschool.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 .“기도학교”〔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300/A00/cellbasic_prayerschool.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 .“셀양육과정”〔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300/B00/bringingup_step1.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 .“셀기초과정”〔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300/B00/bringingup_step1.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 .“셀성장과정”〔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300/B00/bringingup_step2.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 .“셀전도과정”〔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300/B00/bringingup_step3.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 .“생수의강”〔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200/D00/stone_water_about.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 .“교육과정”〔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300/C00/education_biblecollege.aspx. 2020년 2월 12일 접속.

——— .“셀컨퍼런스”〔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200/C00/conference_about.aspx. 2020년 2월 13일 접속.

——— .“셀세미나”〔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200/A00/cell_experience_about.aspx. 2020년 2월 13일 접속.

——— .“큰숲”〔온라인자료〕 http://www.d21.org/02cell_training/big_Forest.aspx. 2020년 2월 13일 접속.

——— .“세대를뛰어넘는세미나”〔온라인자료〕
http://www.cellnetwork.or.kr/200/F00/Elder_experience_select.aspx. 2020년 2월 14일 접속.

크리스천투데이, “불모지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 안산동산교회 30 주년”
〔온라인자료〕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02813. 2020 년 2 월 8 일 접속

4. 학위논문

박승원. “비전위원회를 통한 교회 활성화”.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7.

천무엽. “현대교회의 비전과 그 중요성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Dubuque Teological Seminary. 2000.

IRB APPROVAL
IRB 승인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January 23, 2020

Sungho Park
IRB Exemption 4075.012320: A Study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hurch Vision Through the Room of Vision: The Case of Inchon Shinkwang Church in Korea

Dear Sungho Park,

The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has reviewed your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OHRP)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gulations and finds your study to be exempt from further IRB review. This means you may begin your research with the data safeguarding methods mentioned in your approved application, and no further IRB oversight is required.

Your study falls under exemption category 46.101(b)(2), which identifies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human participants research is exempt from the policy set forth in 45 CFR 46:101(b):

> (2) Research that only includes interactions involving educational tests (cognitive, diagnostic, aptitude, achievement), survey procedures, interview procedures, or observation of public behavior (including visual or auditory recording) if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is met:
>
> > (i) The information obtained is recorded by the investigator in such a manner that the identity of the human subjects cannot readily be ascertained, directly or through identifiers linked to the subjects;

Please note that this exemption only applies to your current research application, and any changes to your protocol must be reported to the Liberty IRB for verification of continued exemption status. You may report these changes by submitting a change in protocol form or a new application to the IRB and referencing the above IRB Exemption number.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exemption or need assistance in determining whether possible changes to your protocol would change your exemption status, please email us at irb@liberty.edu.

G. Michele Baker, MA, CIP
Administrative Chair of Institutional Research
Research Ethics Office

LIBERTY
UNIVERSITY.
Liberty University | Training Champions for Christ since 1971